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콜롬비아

kotra

<http://www.kotra.or.kr>

차 례

1.	국가개요	1
2.	경제동향 및 전망/콜롬비아 경제동향 및 전망	2
3.	한국과의 무역관계	4
4.	한국과의 투자관계	8
5.	수입규제사례/원사 세이프가드	8
6.	수입규제사례/택시용 승용차 세이프가드	9
7.	현지히트상품/다기능전자수첩외	10
8.	현지히트상품/2004년 히트상품	10
9.	주요이슈/대미관계	11
10.	주요이슈/게릴라 문제	12
11.	주요이슈/마약문제	13
12.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14
13.	환전	16
14.	기후	17
15.	공휴일	19
16.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20
17.	호텔	21

18.	식당	22
19.	교통/통신/교통,통신	24
20.	유용한 연락처	26
21.	여행시 유의사항	27
22.	관광명소	29
23.	유용한 현지어 표현	30
24.	국토	32
25.	국민	34
26.	역사	36
27.	국가조직	40
28.	정치제도	41
29.	정치사회동향/정치동향	43
30.	정치사회동향/사회동향	46
31.	국가원수	46
32.	주요인사	47
33.	행정구역	51
34.	대외관계	57
35.	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 (IMD).....	60
36.	도량형	62

37.	관공서 관행	62
38.	국제공항 및 항구	63
39.	매스미디어	65
40.	주한 주재국기관	66
41.	현지화제 유머속담/현지 주요스포츠	67
42.	물가정보	68
43.	경제발전사	69
44.	경제정책	71
45.	금융통화제도	75
46.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77
47.	주요산업동향/광업	81
48.	주요산업동향/교통,관광업	84
49.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86
50.	주요산업동향/석유화학산업	89
51.	주요산업동향/자동차산업	91
52.	지적재산권	92
53.	소비자보호	93
54.	수입관리제도	94
55.	관세제도	96

56.	통 관 절 차	97
57.	유 통 구 조	98
58.	국 제 입 찰 제 도	100
59.	외 환 관 리 제 도	101
60.	시 장 특 성 / 시 장 규 모 및 특 성	102
61.	상 거 래 시 유 의 사 항 / 상 거 래 체 크 포 인 트	103
62.	전 반 적 투 자 여 건 / 투 자 진 출 환 경	105
63.	투 자 유 치 정 책	108
64.	외 국 인 투 자 제 한	109
65.	투 자 진 출 절 차	110
66.	지 사 및 현 지 법 인 개 설 / 지 사 개 설	110
67.	공 장 설 립	111
68.	산 업 단 지	112
69.	자 유 무 역 지 대	121
70.	조 세 제 도	122
71.	사 회 간 접 자 본	125
72.	노 동 여 건	127
73.	사 회 보 장 제 도	128
74.	현 지 생 활 여 건	129

75.	이주 정착 가이드/이주.정착 가이드	131
76.	자녀 교육여건	133
77.	진출기업	136
78.	주요경제지표	138
79.	대외거래지표	138
80.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139
81.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	139
82.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수출입 규모	140
83.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출입 상품	141
84.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142
85.	물가금융지표/물가 및 금융지표	143
86.	노동통계	143
87.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144
88.	지방자치구역동향/유용한 웹사이트	145

1. 국가개요

국가개요

국 명	콜롬비아공화국 (Republic of Colombia)
위 치	남미 서북부에 위치. 태평양과 대서양(카리브해)에 연해있음 서경 66° 50' - 79° 02', 북위 12° 26' - 남위 4° 13'
면 적	1,141,748km ² (남한의 11.6배, 한반도의 5배 정도)
기 후	열대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고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대 보유
수 도	보고타 (Bogota) - 현지정식명칭은 Santa Fe de Bogota임
인 구	45백만명('04년)
주요도시	Bogota(631만명), Medellin(169만명), Cali(178만명) Barranquilla(102만명)
인 종	메스티조(60%), 백인(20%), 물라또(15%)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이 외 64개의 토속어 및 방언이 사용됨
종 교	카톨릭(92%), 개신교(7%), 기타
독 립 일	1810년 7월 20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Mr. Alvaro Uribe Velez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무소속. 자유주의 성향)
입 법 부	양원제 (상원 102석, 하원 165석)
주요정당	여당- 자유당(Partido Liberal), 야당- 보수당(Partido Conservador)
정부성향	자유민주주의

경제지표 (200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US\$ 1020억
실질경제성장률	3.6%
1 인 당 G D P	US\$ 2,270(잠정치)
실 업 률	13.5%
물가상승률	5.5%

화폐단위	Colombian Peso (\$)
환율	1 US\$ = \$2,393 (2005년 3월말 현재)
외채	US\$ 385억 (2004년)
외환보유고	US\$ 135억
연간정부예산	재정수입- 240억불, 재정지출- 256억불
산업구조	서비스업(55%), 농림수산업(19%), 제조업(26%)
교역규모	수입- US\$ 139억(CIF기준), 수출- US\$ 128억(FOB기준)
교역상대국	수입- 미국(39.4%), 베네주엘라(9.7%), 일본(4.6%), 독일(4.3%) 수출- 미국(39.4%), 베네주엘라(9.7%), 에콰도르(6.1%), 페루(3.7%)
교역품	주요수입품 - 산업장비, 운송장비, 소비재 화학제품, 제지류, 연료, 전기 주요수출품 - 석유, 커피, 석탄, 의류, 바나나, 화훼류

한-콜롬비아 관계 (2004년 기준)

체결협정	문화협정('76), 과학기술협정('81), 사증면제협정('81) 무역협정('85), 투자협정('96)
교역규모	US\$ 296백만 (한국수출), US\$ 76백만 (한국수입)
교역품	자동차, 가전, 식물, 타이어 (한국수출) 커피, 금속광물 (한국수입)
투자교류	대콜롬비아 - 5건 US\$6백만 (한국진출), 대한민국 - 없음
교민	교민 200여명, 체류자 50여명

2. 경제동향 및 전망/콜롬비아 경제동향 및 전망

우리бе 대통령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2002년 5월 26일 투표에 참여한 국민 중 53.0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1차 선거에서 콜롬비아의 차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알바로 우리베 벨레즈(50)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앞으로 우리베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는 말 그대로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우선 40년 이상을 끌어오고 있는 반군 게릴라와의 성공적인 평화협상 또는 전면전에서 승리, 뿌리깊은 마약조직과의 전쟁, 공직자부패 척결 등이 우리베의 강한 의지와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 중의 하나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타개와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회복 및 고용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콜롬비아의 현실이다. 공식 실업율이 16%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가난에

찌들리고, 게릴라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연일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콜롬비아의 현실이다.

Uribe 대통령이 당선 직후 현지 최대 경제전문지인 La Republica 지에 밝힌 경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고용

2001년 당시 정부목표치 15%를 뛰어넘는 18.2%의 공식실업율을 우리베 정권의 임기말기에는 10% 이하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 이를 위해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견지한다는 구상임. 또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공공사업 부문에 노동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안을 갖고 있음

이러한 공공사업에는 도시환경미화사업 확대, 산림보호 및 개발 확충. 목화-옥수수 등 농작물재배 활성화, 각종 문화재산업 촉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다각적인 고용창출계획을 실현할 방침임. 특히 필요한 노동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사회투입 이전에 학교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시사함

○ 세금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무조건 세금을 올리거나, 추가세금부과의 무모한 방법은 없을 것이며, 추가세금부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질 것임. 특히 추가세금 부담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탈세 등 모든 불법적인 세금납부 회피 등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

○ 국방비

반군게릴라와의 전쟁, 각종 테러행위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국방비증액은 불가피한 현실임. 그러나 작금 콜롬비아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상황 및 높은 실업률을 감안, 소위 국민자라 할 수 있는 사회계층에게는 별도의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며, 대신 공직자부정.부패, 부정축재, 탈세 등을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국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서도 국방비를 증액할 것임

이러한 국방비의 증액계획으로 인해 결코 국가재정적자가 늘어나거나 거시경제지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나갈 것임

○ 외채

콜롬비아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사회공공사업 확충 등이 필수이므로 단기간 내 외채상환은 어려우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화의 추가차입도 고려 중임. 대신 국제사회 및 IMF등에 콜롬비아의 정치 경제적 현실을 최대한 부각시켜 외채상환연기 또는 이자부담경감 등을 호소할 계획임

○ 재정

공직자 부정부패, 탈세 등을 단호히 척결함과 동시에, 교육, 보건, 공공서비스 및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공공사업 이외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재정투입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임. 이자율의 안정, 국방비의 증액, 효율적인 정부정책운용을 위해서도 재정안정은 꼭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의 궤도에 오르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음

한편 통화발급 관련, 우리베정부는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필요분 이상의 통화분을 발급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과오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요금

대중교통, 수도세, 전기세 등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금인상은 신중하고도 계층별 부의형평에 맞추어 시행될 것임. 무조건적인 공공요금의 동결은 중장기적으로 관련인프라 후퇴로 인한 생산비용 확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므로 권장할만한 것이 못됨. 수도, 전기, 전화 등 공공서비스 이용시 절약하는 자세 및 공공요금 납부의 적기성도 국민들이 지켜나가야 할 것임

○ 기업활성화

국내외기업이 납치, 살인, 강도 등의 범죄행위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민생치안에 역정을 둘 것임

또한 외국인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기업 설립 관련 각종법규와 절차의 간소화, 투자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 등도 검토될 것임

한편 자국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수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향후 2년간 정부가 규정하는 신기술부문 및 자본재 수입시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 등 다각적인 재원을 통해 벤처자금(Fondos de Capital de Riesgo)을 운용할 계획임

○ 자유무역협정

2005년 출범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에 있어서, 콜롬비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자간 협상 외에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 안데안공동체-메르코수르 통합협상 등도 적극 추진할 것임

3. 한국과의 무역관계

1. 한-콜롬비아 관계

- 콜롬비아는 중남미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 전쟁시 UN군의 일원으로 병력을 파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지원한 혈맹으로서, 군사외교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콜롬비아 입장에서 한국전쟁 때, 5,200명의 병력과 5척의 전함, 그리고 다수의 군수품 지원은 콜롬비아 군 역사상 유일무이한 해외파병 경험으로, 매년 6월 25일은

콜롬비아 군의 주요 기념일이 되고 있다. 특히 2000년 10.23-27일 기간 중에는 한국전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날 행사를 마련, 각종 문화행사 등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졌다.

- o 60-70년대 한국경제의 도약 이후 80년대부터는 한국의 일방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상지원, 연수생 초청교육, 전문가 파견 등의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Ruiz 화산폭발 및 Armenia 지진 등의 재해 발생시에도 구호품 및 구호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현지법인에서는 1백만 불의 기금을 출연, 한국전쟁 참전 콜롬비아군 2세를 위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 o 한-콜롬비아 양국은 정치외교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무역 및 투자진흥 협정을 체결, 상호 경제교류를 증진키로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양국간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교류는 미미한 실정이며, 아울러 한국측의 수출이 일방적인 수출초과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이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 교역규모

- o 양국간의 교역은 지난 1992년에는 교역규모가 1억불 정도로 크지 않았으나, 1993년 콜롬비아의 수입개방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난 1997년에는 수출이 3.2억불, 수입이 0.76억불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 o 1998년 콜롬비아 경제위기 직후 1999년에는 수출이 전년대비 44%나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후 양국의 경제가 안정되면서, 최근 교역규모는 점차 97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o 2003년 12월까지의 교역동향 중 수출 쪽을 보면, 콜롬비아 폐소화가 2002년말 대비 20% 가량 평가절하되면서 수출은 3/4분기까지는 하향세를 보였으나, 베네주엘라산 합성수지의 생산차질로 인한 한국산 합성수지 수요증가와 연말 PCS 통신 개통으로 인한 휴대폰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9% 증가한 2.96억불을 기록하였다.
- o 특기사항으로는, 현지에 판매법인을 두고 있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주요 가전제품을 한국이 아닌 인근국(브라질, 멕시코 등) 생산공장을 통해 들여오고 있어, 실제 우리상품의 현지진출은 이보다는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o 수입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요수입품목인 철광의 가격이 2003년 하반기에 급등, 수입액이 전년에 비해 73.4%나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55.7% 증가한 0.76억불을 기록하였음. 품목으로 볼 때, MTI 3단위를 기준으로 1천만 불 이상 수입되는 제품이 철광, 커피, 석유제품 등 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3. 2004년 교역전망

- o 2004년에는 콜롬비아의 경제가 성장세에 접어들고 주요수출품목인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콜롬비아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고, 환율도 최근에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2004년에는 양국간 교역이 수출과 수입 모든 면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기본적으로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역관계는 극심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역역조 현상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현재 한국의 주요수출상품 중 콜롬비아 시장 진출이 미흡한 분야로는 기계류, 직물류, 컴퓨터 및 반도체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 중 앞으로 시장진출이 유력한 분야로는 각종 산업기계류를 들 수 있음. 기계류의 경우는 각종 경험자금 지원, 미주개발은행을 통한 융자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향후 수출이 확대될 여지가 많으며, 컴퓨터 및 반도체의 경우도 현지 IT산업 개발지원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콜롬비아의 무역역조 해소를 위해서는, 최근 원자재 국제시세 급등으로 공급난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콜롬비아의 광물자원 및 원유의 수입확대를 통해, 콜롬비아 측으로서는 무역적자폭 축소가 가능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통계자료

<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입 추이 (괄호는 증감율) >

(단위 : 백만불, %)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수 출	201 (31.8%)	226 (12.4%)	272 (20.4%)	296 (9.0%)	460 (54.9)
수 입	53 (11.0%)	42 (-20.1%)	49 (15.7%)	76 (55.7%)	106 (39.7)
수 지	148	184	223	220	353

자료원 : KOTIS

- 대 콜롬비아 수입시장점유율은 97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의 콜롬비아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단위: 백만불,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	271.9 (1.98%)	152.6 (1.53%)	201.1 (1.83%)	226.1 (1.88%)	272.2 (2.29%)	296.5 (2.13%)	460 (2.9%)
전체	13,724	9,991	10,998	11,997	11,891	13,881	15,500

자료원 : 콜롬비아 중앙은행 및 KOTIS

4.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 한국의 대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로서, 자동차, 휴대폰, 합성수지, 가전, 타이어, 원사, 직물, 철강제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합금철, 커피, 동광 및 카프로락탐 등 농수산물 및 원자재로 이루어져 있다.

- 교역품목만으로 볼 때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경우, 조립 및 단순가공 단계이기는 하나 자체적으로 자동차, 가전, 식물, 타이어 등의 제조기반이 존재하고 있어, 한국상품은 경쟁국 상품과의 경쟁 이외에 현지 제조상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현지의 제조업체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국정부에 수입규제를 요청하고 있어, 자동차, 폴리에스터 원사, 타이어 등의 품목은 불안한 수출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 한편 한국의 대 콜롬비아 수출은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 일부 대기업품목에 60% 이상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지 자동차 시장의 호부진이 우리나라 수출 호부진에 직결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구조에 있어 중소기업 제품 중심으로 품목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들 품목의 진출가능성은 아직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수출호조품목(2004. 1-12월) (괄호 안은 증가율)

합성수지(165%), 무선통신기기(7%), 자동차부품(92.6%)
 고무제품(8.8%), 정밀화학원료(27.6%), 섬유제품(74.7%)
 기타석유화학제품(33.1%)
 기타식물(37.6%), 반도체(428.4%), 면직물(7.3%), 농약 및 의약품(7.4%)
 기타섬유제품(85.8%), 자동차(230.2%) 등

* 수출부진품목(2004. 1-12월) (괄호 안은 감소율)

자동차(21.2%), 가전제품(-4.1%), 석유화학(-41.3%), 컴퓨터(-14%)
 종이제품(13.8%), 철강판(72.5%) 플라스틱제품(-15.2%)
 계측제어분석기(-13.6%), 등

5. 현안사항

- 양국간 정치외교적으로는 별다른 현안사항이 없으며, 무역측면에서 몇 가지 현안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 제기하는 현안사항으로, 한국의 대 콜롬비아 수출액은 수입액의 5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한국의 무역흑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은 다음에 기술하는 한국상품 수입규제 움직임의 기반이 되고 있다.

< 폴리에스터 원사 >

- 콜롬비아 정부는 '98년 7월 31일부로 HS Code 540243, 540233류의 폴리에스터 원사제품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 최근 1년간 국가별 수입량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국가별 수입량을 규제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조치에 따라 대만 등 WTO 비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세이프가드가 발효되었으며, 한국, 미국 등 WTO 회원국가 제품에 대해서는 WTO 내부절차에 따라 적용기로 하였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WTO 에서 부적절판정을 받아 발효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자동차 >

- o '98년 3월 27일 콜롬비아 자동차 조립업체인 Colmotores사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정부에 요청, 한국산 자동차 수입규제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결국 한국 측의 민관사절단 파견을 통한 협의, 그리고 한국차량 수입상들의 수량 자율규제 의사전달로 일단은 수습되었다.

< 타이어 >

- o '98년 4월 29일 콜롬비아 타이어 제조업체인 ICOLLANTAS S.A.사 및 GOOD YEAR S.A.사의 제소로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조사 담당기관인 대외무역청(INCOMEX)에서는 '99년 4월 27일,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 승용차용 타이어에 13.75%, 그리고 화물차량 및 버스용 타이어에 30.25%의 덤핑혐의를 인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건의하였다. 다행히 한국업체의 적극적인 반박자료 제출 및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콜롬비아 대외무역부에서는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혐의는 인정되지만 이의 수입규제가 자국산업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덤핑관세 미부과를 결정,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4. 한국과의 투자관계

우리나라의 대 콜롬비아 투자는 총복제사에서 잠업생산을 위한 합작투자금 200만 불, 그리고 LG산전,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삼성전자 등에서 설립한 판매법인 형태의 투자 400만 불 등 총 600만 불에 불과한 실정이다.

콜롬비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주로 유전이나 광산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는 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은 없는 셈이다. 2003년말 원자재 파동 이후 콜롬비아 산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점진적인 투자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이 중남미지역 생산거점으로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한 투자가 많으나, 콜롬비아는 대서양, 태평양을 접하고 있어,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운송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싸고 노동력이 우수하며, 해고가 쉬운 고용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여,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릴라로 인한 치안불안과 물류비 부담이 낮아 우리기업이 진출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5. 수입규제사례/원사 세이프가드

규제 조치명	폴리에스터 원사 세이프가드
규제 기간	' 98.10.26- ' 99.10.26
규제대상품목	HS 5402.43, 5402.33에 해당하는 폴리에스터 원사

규제 대상국	한국, 미국, 대만, 중국
우리관련기업	주) 효성 등 원사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관련기업	콜롬비아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업체 Enka de Colombia
조치 경과	- `98.03월 : Enka사 대외무역청에 세이프가드 제소</li> <li>- `98.07월 : 콜롬비아 정부 Enka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세이프가드 발동. WTO 비회원국인 중국과 대만산 제품의 경우 즉시 발효에 들어가고, 한국, 미국 등 WTO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WTO 규정에 따라 조치결과 통보 - `98.09월 : WTO 내에서 한국-콜롬비아 정부대표단 협상 결렬</li> <li>- `98.10월 : 콜롬비아 정부 Resolucion 009호를 통해 일방적 세이프가드 발효 - `99.10월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해제

6. 수입규제사례/택시용 승용차 세이프가드

규제 조치명	택시용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사
규제대상품목	HS 8703.22, 8703.23, 8703.31, 8703.32에 해당하는 승용차 중 부가세 15% 납부대상인 택시용 승용차
우리관련기업	대우, 현대, 기아자동차
현지관련기업	르노 승용차 조립생산업체인 Sofasa S.A.
조치 경과	- `99.04월 : Sofasa사, 대우자동차를 겨냥한 세이프가드 제소</li> <li>- `99.07월 : 대외무역청에서 Resolucion 2350호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발표 - `99.12월 : 한국산 택시 무혐의 판정
기 타	- 콜롬비아 택시시장에 공급되는 수입승용차가 `96년 4,544대에서 `97년 10,238대로 크게 증가 - 자국 택시용 승용차 생산의 56%를 대표하는 Sofasa사의 경우 동기간 중 26%의 고용감소를 포함 판매감소, 재고증가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결 과	- 콜롬비아 대외무역청 (INCOMEX)은 한국산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 착수 (`99.7.7)</li> <li>- 대우자동차, 최근 기존업체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잠식하면서 현지업체의 수입규제를 위한 대정부 로비가 증대 (대우 자동차 점유율(`96년 13.1% → `99년 52%)</li> <li>- INCOMEX, 국내 택시산업 피해와 택시수입 증가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정(`99. 12)

7. 현지히트상품/다기능전자수첩외

1. 다기능 전자수첩

- o 제품설명: 계산기능, 전화, 성명 등 데이터 입력기능 등 수십가지 기능을 가진 멀티전자수첩
- o 히트요인: 초소형 전자수첩으로, 기능은 기존 전자수첩보다 두 배 이상 향상. 디자인, 크기, 최신기술복합성 등에서 단연 선두 유지. 재생배터리 사용. 콜롬비아 시장은 현재 노트북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많은 정보를 축적, 가공, 열람할 수 있는 전자수첩이 인기를 끌고 있음.
- o 가격 : US\$500 내외

2. MOTOROLA의 최신 핸드폰 기종

- o 히트요인: 현재 콜롬비아 핸드폰시장은 NOKIA, ERICSSON, MOTOROLA 등이 석권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이 디자인 및 미니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 모토로라 신제품은 미니포켓(폴더) 사이즈로, 진동기능 및 다양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o 가격 : US\$ 280

3. 대우 무쏘 4X4

- o 제품설명: 220마력(자동) 및 150마력(수동) 지프차
- o 히트요인: 콜롬비아는 지형상 도로기복이 심하고 도로 포장상태도 매우 안좋아 지프차의 인기가 좋은 편임. 다만 가격이 일반적으로 높아 중상류층 이상이 선호하고 있음. 현재 대우의 전차종이 현대와 함께 주재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최근 대우의 주)쌍용 합병으로 무쏘 지프차의 현지판매가 이루어지면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일본, 미국산 차종과 경합을 벌이고 있음.
- o 가격 : US\$25,000(자동)

8. 현지히트상품/2004년 히트상품

[최신 히트 상품] - 2005. 3월

1. Tungsten T3 (Palm사)

Palm사의 최신 포켓PC 모델. 현재까지 동사에서 출시된 제품 중 가장 큰 화면을 가지고 있고, 해상도도 2배로 높혔음. T3모델은 품위높은 스타일과 초저중량, 편리성이 특징으로, 호환가능한 휴대폰을 연결하여 e-mail 전송, 전화걸기, 인터넷접속 등이 가능하다.

2. PDA

이동 중이나 비행기 안에서 전자메일을 보내는 것은 PDA와 무선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갈수록 쉬워질 전망이다. 몇몇 최신 모델은 높은 연결성과 휴대폰 내장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일정관리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액세서리로는 USB타입의 미니디스크에서부터 몇 초 안에 읽고, 저장하고, 번역하고 단문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의 전자볼펜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3. SPH-700 휴대폰 (Samsung)

삼성 휴대폰의 최신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델은 전화 기능 외에 디지털카메라 기능을 내장하고 있고, MS Windows 시스템도 지니고 있다. 즉석에서 사진을 찍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외에 메세지서비스, 게임기능, 음악 및 비디오 파일 전송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4. C-Pen 800

C-Pen은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펜 형태로, 나중에 케이블이나 적외선 연결을 통해 PC나 노트북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내장프로그램으로는 사전과 주소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Blackberry 6700

휴대폰 기능이 내장되어 무선연결을 통한 e-mail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준다. 여행 중이나 이동 중에도 전자메일을 받고, 보내고, 회신할 수 있게 해준다.

6. Flash Memory용 디지털 지문인식장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소니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128MB 용량의 USB Flash Memory인 Micro Vault 제품에 디지털 지문인식 식별시스템을 내장한 제품이다. 별도의 전원이 필요없으며, 일반 볼펜보다도 작은 크기이다.

9. 주요이슈/대미관계

미국은 콜롬비아에 있어서 정치, 외교,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 면에서 그 비중이 50%에 달하는 상태에서 콜롬비아로서는 미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에 있다. 미국과의 현재 가장 큰 현안사항은 마약재배 및 거래문제이다. 미국은 지난 '90년 콜롬비아를 비롯한 안데안 국가에서의 마약재배 및 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ATPA(안데안 무역특혜 협정)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마약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정부는 '96년 콜롬비아를 마약통제 미협력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7년 재차 마약통제 미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96년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통제를 위해 재배지 제초, CALI-CARTEL 두목검거,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강화, 마약거래자 재산몰수법 입법화 등의 노력을 한 바 있다.

미국의 일방적 마약통제 협력국 평가제도(Certification)에서 '96, '97 2개년간 연속 불합격 판정을 받은 콜롬비아는 '97.11.25일 미국의 관심사항인 범죄인 인도협정에 소급조항을 삭제, 의회에 통과시킴으로써 '98년에도 역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었으나, 선거를 앞둔 콜롬비아의 정치상황이 고려되어 '98년에는 조건부 협력국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미국의 평가결과는 Samper 전 콜롬비아 대통령의 미국비자 박탈 등 정치관계 경색 이외에 경제적으로 대외차관 도입 제동, 대미수출 쿼터 감축, 그리고 안데안 특혜관세제도

수혜대상 제외 등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어 콜롬비아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가 되어왔다. Samper정권 말기부터 나타난 미국의 유화적인 태도는, 그간 강경한 외교공세가 콜롬비아에서 실질적 마약단속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여타 중남미 전통우방국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는 분석결과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Uribe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게릴라와 마약소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미관계 개선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2년 10월, 기존의 ATPA협정을 Atpdea(안데안무역특혜 및 마약방지 협정)으로 변경, 연장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미주자유무역지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콜롬비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정치, 경제, 군사적인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6월, 콜롬비아 정부군의 무기증강 및 마약재배지역 소탕, 기타 인권향상 등을 목적으로 콜롬비아에 약 US\$10억의 자금을 원조하였으며, 2003년 이라크전과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콜롬비아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10. 주요이슈/게릴라 문제

콜롬비아의 게릴라 역사는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20년대 커피, 사탕수수 대지주들이 스스로의 재산보호 및 영세농민 착취를 위해 사병조직을 운영한 것에 불법 무장세력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후 농민들의 생존권 및 이익방어를 위한 농민조합이 무장게릴라로 발전한 이후, 반정부 세력으로 확대되었고, 1960년대 정치사회적인 불안기에 쿠바혁명의 영향과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이 가세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수용, 이념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구소련 몰락 이후에도 콜롬비아 게릴라 문제는 현재까지도 가장 주요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현재 게릴라는 여러가지 정치적 이슈를 내세우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념적인 토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마약집단과 연계되어 하나의 불법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정부에서는 게릴라 문제해결을 위해 몇 차례의 게릴라 단체와 평화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전임 Pastrana 정부가 다시 게릴라 단체와 평화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게릴라 세력의 확산에 도움을 주고 만 꼴이 되었다. 현재 게릴라 집단은 Farc(15,000명), ELN(5,000명) 등 2개 좌익게릴라 조직과 Paramilitares (반게릴라 극우 무장단체), Autodefesa(자치군) 등 4개의 무장단체가 크게 활동 중에 있으며, 현지 정부에서 확인한 게릴라단체의 수익만도 연간 6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이러한 엄청난 수익이 게릴라 조직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02년 8월 대통령에 취임한 Uribe 현 대통령은 우익성향으로, 게릴라들의 선 폭력중지가 이뤄져야만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하고 대대적인 게릴라 소탕작전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게릴라 세력의 뿌리가 깊고, 근거를 밀림지역에 두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게릴라세력 소탕의지에 맞서 2003년에는 보고타 중심가의 고급사교클럽인 노갈클럽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게릴라

간의 대결구도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게릴라 활동동향

- 96. 4월 FARC와 ELN 연합군 150여명 NARINO지역 군기지 습격: 군인 30여명 사망
- 96. 8월 FARC 게릴라 400여명 PUTUMAYO지역 군기지 습격: 군인 40여명 사망
- 97.10월 지자체 선거 보이콧을 선언한 게릴라에 의해, 미주기구에서 파견 감시단 2명 납치, 아울러 선거기간중 지방의회 의원후보 35명이 피살되고, 200여명이 납치되었으며, 1,300여명이 게릴라의 협박으로 후보직을 사퇴하였음.
- 98.03월 게릴라와 정규군의 총격전으로 군인 62명 사망, 62명 포로로 잡힘
- 98.05월 미국인 5명을 포함 민간인 18명이 보고타 근교에서 게릴라에 납치
- 98.05월 아마존 지역에서 부락주민 25명 피살
- 98.05월 보고타 시내에서 전직 국방장관 피살
- 98.10월 ANTIOQUIA주 송유관에 대한 폭탄테러로 인근지 주민 100여명 사상
- 98.11월 MITU시에 대한 게릴라 공격으로 민간인 및 군경 100여명 사상, 납치
- 99.04월 46명을 태운 AVIANCA 국내선 비행기가 게릴라에 의해 납치
- 99.05월 Cali시 마리아성당에 게릴라 난입, 미사중이던 신도 124명 납치
- 03.01월 보고타시 중심가 노갈클럽에서 자동차 자살폭탄테러 발생
- 03.11월 보고타시 중심가 호프집에 수류탄 투척테러 발생

11. 주요이슈/마약문제

콜롬비아는 세계적인 코카인 생산수출국으로, 마약문제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국내적인 경제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역대 콜롬비아 정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마약은 1970년대 대마초, 1980년대 코카인에 이어 1990년대에는 양귀비 재배로 발전하고 있으나, 코카인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코카인의 원료는 코카 나뭇잎으로 코카재배는 콜롬비아 뿐 아니라 페루, 볼리비아 등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생산되어 왔으며, 코카 잎 자체는 중독성이 없는 차류로서 안데안 원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애용해 온 전통식품이다.

또한, 커피와 코카의 재배조건이 유사한 점도 콜롬비아의 마약재배와 관련이 깊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세계커피기구 탈퇴 이후 국제 커피시세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커피재배 농가가 수익성이 더 높은 코카 재배로 발을 돌리면서, 마약재배량이 더욱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콜롬비아 마약단체는 코카인 정제기술을 확보, 페루 및 볼리비아에서 반정제 제품을 수입, 이를 정제한 후 세계적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십억 불씩 유입되는 마약달러는 콜롬비아 경제를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작동도 하고 있으나, 지하경제 비대화, 달러세탁, 반군유지 자금 원천, 무기밀매와 연계되어 국제적인 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 최대소비국인 미국의 압력 및 지원하에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근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과거 Medellin, Cali 카르텔로 대표된 대규모 마약조직은

와해되었으나, 아직도 콜롬비아 마약산업은 게릴라단체와 연계, 조직분산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단체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89년 자유당 대통령 후보 CARLOS GALAN 상원의원 마약조직에 의해 피살
- 93.12월 마약왕 PABLO ESCOBAR를 사살하여 MEDELLIN CARTEL 제거
- 95. 6월 CALI CARTEL의 두목인 GILBERTO RODRIGUEZ를 체포
- 96. 3월 미국 마약통제 미협력 국가(DESCERTIFICACION)로 지정: 차관중단
- 96. 9월 Cali-Cartel의 마지막 수배자 Mr. Helmer Herrera 검거
- 96.10월 마약달러 세탁방지를 위한 금융법 일부수정
- 96.12월 마약자금 부정축재 재산몰수법(EXTINCION) 입법화
- 97.02월 마약사범 등 반사회범죄자들에게 형량을 현재의 3배로 강화
- 97.02월 마약통제 미협력국으로 지정 받음: 경제제제 여부는 6개월간 유보
- 97.03월 마약사범 대미인도법(EXTRADICION) 입법화 추진
- 97.04월 CALI-CARTEL두목 등 250명에 대한 미국입국 비자취소
- 97.05월 마약사범 대미인도법(EXTRADICION) 상원법사위원회 통과
- 97.08월 미국과 마약통제협력 양해각서 서명
- 98.02월 미국의 조건부 마약통제 협력국 지정
- 99.02월 미국의 마약통제 협력국 지정

12.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가. 비자면제협정

한국과 콜롬비아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관광객은 비자가 면제된다. 그러나 취업 및 유학목적의 장기체류자의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체류기간 연장이 용이하다. 출국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객으로 입국하여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첫 번째 비자는 주변국을 통해 받아야 하며, 두번째 갱신비자부터는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스페인어로 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를 발급 받더라도 6개월 내지 1년 비자를 받기 때문에 체류기간 중 연례적으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비즈니스용 상용비자가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거래상담 목적의 출장시 상용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장기간이 단기일 경우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이 권고된다. 상용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출국할 때 콜롬비아에서의 활동내역을 문의하거나, 콜롬비아 내에 비즈니스상 채무가 없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등 불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비자 입국의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여행목적이 관광인지 사업인지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 때 관광목적을 사업이라고 할 경우, 출국할 때 16불 정도의 공항세를 더 내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연락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3층
전 화 : 02)720-1369

휴 일 : 토, 일요일 및 양 국가의 공휴일

접수시간 : 09:00~12:00

구비서류 : 여권, 건강증명서, 신청서 양식, 호적등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등이 요구되나, 방문목적 및 비자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콜롬비아 대사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다. 이민국 및 세관통관

콜롬비아의 경우, 이민국 통과시에는 특별한 절차가 없으며, 출입국신고서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세관통과시에는 통과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초록불이 켜지면 무검사 통과, 그리고 빨간불이 켜지면 검사대로 가서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검사시 샘플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보이스 및 샘플리스트, 그리고 샘플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동 샘플에 해당하는 세금을 예치해야 하며, 출국시 해당샘플을 재검사하고 예치금을 환불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관원 재량에 따라 상품가치가 없는 샘플로 판단될 경우 통과시키고 있다.

한편 음식물류의 경우 세관의 요주의 검사품목이며, 아울러 동양 사람들이 식품을 많이 휴대하는 것에 착안하여 부패세관원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 무관세 반입한도

. 서적, 잡지, 오디오테이프, CD : 품목당 6개 한도

. 주류 : 6병

. 사진기, 가전제품, 레저용품 : 각 2개 한도

* 상기 품목별 반입한도 이외 전체 반입품의 가격이 U\$1,500을 초과되지 않아야 함.

라. 예방접종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콜롬비아에서 아마존 등 열대지역을 여행 또는 방문할 계획인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베네주엘라, 에콰도르의 경우 한국 등 여타국가에서 직접 도착하는 입국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콜롬비아에서 탑승한 입국자에게는 황열병 예방접종 카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를 경유, 브라질 방문 예정인 출장자의 경우 한국에서 황열병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를 휴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보고타 공항에서 탑승이 거부되어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황열병 예방접종의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을 맞고 10일 후에 접종확인서 (Yellow Card)를 발급받을 수 있다.

13. 환전

[화폐단위]

콜롬비아는 화폐단위로 페소(Colombian Peso)를 쓰며 약칭으로 \$를 사용한다. 은행거래시 또는 회계상 센트(100분의 1페소)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화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50페소 동전이다.

주화로는 50, 100, 200, 500, 1,000페소 동전이 유통 중에 있으며, 50페소 동전은 점차 유통이 줄어들고 있다.

지폐의 경우 1000, 2000, 5000, 10000, 20000페소 지폐가 있으며 역시 1000페소 지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단계에 있다.

[환율]

콜롬비아 페소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2004.3.29일 현재 U\$1=2,673Peso를 기록하고 있다. 동 환율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시장대표환율로서 실제 환전소에서 적용하는 환율은 매입율 2,500 그리고 매도율 2,550을 기록하고 있다.

콜롬비아 환율제도는 '99년 9월까지 관리변동 환율제도로써 정부에서 연간 평가절하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선 위아래로 상하한선을 설정, 상하한선 이내에서의 환율변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환율이 동 한계선을 벗어나려 할 경우 중앙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율관리제도는 단기적으로 페소화 환율을 시장원리에 맡기면서 장기적으로는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에 따른 강한 외부적 충격에 대해 대응이 늦은 취약성을 안고 있어 국제 투기자금의 주요 공격목표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의 상하한선 환율관리제도 폐지론이 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결국 '99년 10월부터 자유변동환율제가 채택 실시되어오고 있다.

콜롬비아 페소화 환율은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거의 3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3년에는 안정세, 2004년 들어서는 달러화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초까지 1불당 1000페소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페소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97년말 아시아 외환위기의 파급으로 단기간에 1300까지 상승했고, 98년에도 러시아 외환위기 등 대외적 변수의 영향으로 1500선까지 평가절하 되었다. 한편 99년 6월 이후 1900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12월 30일 현재 1850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2000년부터 페소화 평가절하가 다시 시작되면서 최근 정부와 반군 게릴라간의 평화협상 지지부진, 게릴라들의 외국인투자 및 자국기업 민영화계획 반대, 정부내의 부패 및 갈등 등 사회심리불안 증대 및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5월 들어 결국 마의 2000페소대를 넘었다. 2001, 2002년에는 신정부 출범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 듯 하였으나, 2003년 들어, 환율이 다시 요동치면서, 최고 2,900페소를 기록했다가, 최근에는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투자 증가 등의 이유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환전>

콜롬비아는 연간 수십억불의 불법 마약자금의 유입되고 있으며, 정부의 마약근절 의지에 따라 미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달러화에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달러화의 유입은 묵인하면서 유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여타 대부분 국가와는 틀린, 특이한 환전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환전하는 공식환율보다 암시세 또는 일반 환전소 환율이 높은 것이 정상인데 콜롬비아에서는 반대로 은행환율이 시중 환전소 환율보다 더 높고, 아울러 은행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만 수령할 뿐 일반개인의 달러예금, 달러환전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관광객을 포함 일반인들이 콜롬비아에서 달러를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공항에 소재한 은행사무소, 그리고 시중 환전소, 그리고 주요 호텔에서 환전하는 방법이다. 이중 달러화를 현지화로 바꿀 경우 공항에서 환전이 가장 유리하고, 현지화를 달러화로 바꿀 경우 환전소 환율이 가장 유리하다. 대부분의 경우 호텔에서는 고객에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어 호텔에서의 환전이 불가피할 경우 당장 필요한 소액만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기후

[기후]

콜롬비아는 남위 4° ~ 북위 12° 에 이르는 적도선상에 위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중 열대의 다습한 적도성 기후를 보유하고 있고, 아울러 밤과 낮 길이가 연중 비슷하고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미미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고도 4천미터의 안데스 산맥이 콜롬비아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져 남북으로 국토를 관통하며, 이에 따라 산악 및 계곡, 해안에 흩어진 주요 도시들은 고도에 따라 열대우림 아마존에서 만년설까지 각각 다양한 기후대를 보이고 있다. 즉, 콜롬비아의 기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절은 없고, 고도에 따라 특징지워진 기온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보면, 우선 전국토의 81%에 이르는 지역이 해발 1000미터 미만에 위치해 있고, 카리브 및 태평양 해안지역, 아마존 정글지역, 그리고 산맥과 산맥 사이 계곡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며 연중 24°C 이상의 열대성 기후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발 1000~2000 미터 지역은 전국토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낮은 고원지대 내지는 산맥 기슭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는 평균기온 17.5°C의 아열대성 및 온대기후를 보유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주요 지방도시인 Cali시 및 Medellin시가 이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보고타시를 포함 해발 2000~3000 미터 지역은 전국토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기온 12°C의 온대기후를 보여주고 있고, 해발 3000미터 이상지역도 국토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는 평균기온 10°C 미만의 한대 및 냉대기후를 보이고 있고, 4000미터 이상에서는 만년설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강우량의 경우 지역에 따라 300mm~11,000mm 까지 다양한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데, 태평양연안과 북부내륙 Magdalena 계곡지역, 그리고 동부 아마존 지역에서는 연평균 4,0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고, 북부 해안지역 및 아마존 지역은 연평균 2,000~4,000mm의 강우량을, 그리고 보고타시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연평균 1,000~2,000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다.

[고지기후의 특성]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는 해발 2,650미터에 위치, 고산기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중 기후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3월부터 8월까지의 우기,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건기로 분류되고 있다. 우기의 경우도 비를 뿌리는 빈도수가 높다는 의미로 한국의 장마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최근의 엘니뇨 현상으로 수년간 우기건기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보고타시 기후는 연중 우리나라의 가을날씨와 같이 쾌적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으나 낮에는 25~28°C, 그리고 아침에는 10°C 정도로 일교차가 크므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보고타시는 방대한 보고타고원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2,650미터에 위치한 이 고원은 보고타시를 벗어나 북쪽으로 100Km 이상 이 고도를 유지하며 평원을 이루고 있다.

고지에 위치한 지역 특성상 외부인의 방문시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고산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고산증세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로 소화불량 및 식욕부진, 숙면부족, 건망증 심화 등의 증세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별다른 대처방안은 없으며 신체적인 무리 및 과식, 과음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복장]

한국의 가을날씨를 연상하고 준비하면 별 무리가 없다. 한국의 춘추복 정장 및 긴팔 셔츠, 그리고 아침저녁 활동을 위해 잠바를 하나 정도 휴대하면 좋다. 콜롬비아는 난방시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특급호텔에서도 에어컨은 있으나 난방장치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한국 출장자 중 간혹 취침시 추위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보고타시 날씨는 한국의 가을 날씨지만 적도상에 위치 햇빛이 매우 강렬하며 출장시 섀글라스를 하나 정도 휴대하는 것이 권고된다.

[각 도시별 고도 및 평균기온]

도시명	북위	해발	평균기온
Barranquilla	11 ° 00 ´	4m	27°C
Bogota	4 ° 32 ´	2,650m	14°C
Bucaramanga	7 ° 08 ´	959m	23°C
Cali	3 ° 27 ´	995m	24°C

Cartagena	10 ° 26 ´	2m	28°C
Ibague	4 ° 27 ´	1,285m	21°C
Medellin	6 ° 16 ´	1,479m	21°C
Pereira	4 ° 49 ´	1,411m	21°C
San Andres	12 ° 35 ´	2m	27°C

(자료원 : 콜롬비아 기상연구소, Instituto Nacional de Meteriologia)

15. 공휴일

<휴일 지정방식>

콜롬비아는 공휴일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념일 및 축제일등을 지정, 시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념일 등은 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이며, 해당지방에서만 시행된다는 면에서 공휴일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동절,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한 휴일이 주중에 위치할 경우 이를 다음주 월요일로 이동시켜 연휴로 만듦으로써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돕고, 호텔 등 관광부문을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도 공휴일 일정표>

신정(LA Circuncion)	1/1
주현절(Reyes Magos)	1/10
성요셉축일(SANJOSE)	3/21
부활절주간(SEMANA SANTA)	3/24-25
노동일(DIA DEL TRABAJO)	5/1
예수승천일(ASCENCION Del SENOR)	5/9
성체기념일(CORPUS CHRISTI)	5/30
예수성심제(SAGRADO CORAZON DE JESUS)	6/6
성베드로 및 바울의날(SAN PEDRO Y SAN PABLO)	7/4
독립기념일(INDEPENDENCIA NACIONAL)	7/20
독립전쟁기념일(BATALLA DE BOYACA)	8/7
성모승천일(ASUNCION DE LA VIRGEN)	8/15
민족의날(FIESTA DE LA RAZA)	10/17
만성절(TODOS LOS SANTOS)	11/7
까르타헤나독립기념일(INDEPENDENCIA DE CARTAGENA)	11/14
성모수태일(INMACULADA CONCEPCION)	12/8
성탄절(NAVIDAD)	12/25

<출장지양기간>

콜롬비아는 법정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을 채택하고 있으나 상점 및 공장을 제외한 일반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출장일정에 토요일이 낄 경우 상담을 계획하는 것 보다는 시장조사 또는 휴식일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활절 및 성탄절은 콜롬비아의 양대 휴가시즌으로서 동 휴일을 전후해 1~2 주 정도는 출장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콜롬비아 근로자의 법정 휴가일 수는 근무일 기준 15일로서, 주말까지 감안하면 3주가 되고,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은 전년도 미사용 휴가까지 활용 1달씩 휴가를 실시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연시, 그리고 부활절 연휴기간과 연계하여 휴가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방학하는 7월 중순~8월 중순 기간도 일부 휴가시즌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출장시 사전에 상담가능성을 타진하고 출장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시차]

콜롬비아와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으로, KST-14 시간대로 분류된다. 즉, 한국이 24:00시 일 때 콜롬비아는 아직 10:00시이다. 콜롬비아는 계절의 변화가 크지 않아 썸머타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근무시간]

일반 사무실의 근무시간은 08:00~17:00가 일반적이다.

관공서의 경우 대부분 15:00시경 근무시간이 끝나므로, 관공서 업무는 가급적 오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

은행의 경우 보통 근무시간이 09:00~15:00시까지이며, 일부 은행에서는 09:00시에 개점하여 15:00~17:00 동안 휴식후 17:00~19:00시까지 연장업무를 보기도 한다. 매월 마지막 날 은행들은 결산업무 관계로 오전까지만 고객들의 여수신 업무를 받아주고, 연말의 경우 12월 31일은 고객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또한 대부분 콜롬비아 근로자들이 급여를 한달에 2번 수령하고 있으며, 이중 한 번의 급여일이 15일이어서, 매월 15일 및 월말은 은행이 가장 붐비는 시기로 은행 이용시 동 일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콜롬비아의 법정 근로시간은 48시간이나 매장 및 공장을 제외한 일반 사무실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회계연도]

콜롬비아 정부 및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7. 호텔

콜롬비아는 전국적으로 1,468개의 호텔이 등록되어 있으며 52,34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객실은 주요도시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객실 수 기준으로 수도 보고타지역에 15%, 북부해안도시로 국제회의등이 개최되는 Cartagena 지역에 10%, 제 2 지방도시인 Medellin시 및 Cali시에 각각10%, 그리고 San Andres 섬 및 Barranquilla, Santa Marta 등 지방도시에 각 5%씩 분포되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콜롬비아 호텔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www.ashotelera_bogota.com.co
- www.colombia_hotels.com.co

[주요호텔]

호텔명	주 소	전화/팩스	가격(싱글/트윈)
Bogota Plaza (*****)	Calle 100 No 18 a 30 Santafe de Bogota	571-6322200/ 571-6322237	US\$ 95/ US\$ 105
Bogota Royal (*****)	Avenida 100 No 8 a Santafe de Bogota	571 2189911/ 571-2183261	US\$ 110/ US\$ 110
Holiday (*****)	Inn Calle 74 No 13 -27 Santafe de Bogota	571 31705/ 571-3171817	US\$ 105/ US\$ 115
Hotel Radisson (*****)	Calle 114 No 9 Santafe de Bogota	571 6295529/ 571-6295021	US\$ 136/ US\$ 160
Hotel Dann (*****)	Av 15 No 103- 60 Santafe de Bogota	571 6350010/ 571-2823108	US\$ 62/ US\$ 62
Hotel Belfort (*****)	Calle 17 No 40b 300 Medellin	574 3119171/ 574 3110776	US\$ 104/ US\$ 117
Hotel Intercontinental (*****)	Calle 16 No 28-51 Medellin	574 2660680/ 574 2661548	US\$ 95/ US\$ 95
Hotel Dann Carlton (Deluxe Collection)	Cra 2 No 1 -60 Cali	572 886 2000/ 572 893 4000	US\$ 140/ US\$ 145
Hotel Intercontinental (*****)	Av Colombia No 2-72 Cali	572 8823225/ 572 8920712	US\$ 103/ US\$ 119
Hotel Cartagena (*****)	Hilton Av Almirante Brion, Cartagena	575 6 650666/ 575-6-652211	US\$ 145/ US\$ 165
Hotel Santaclara (*****)	Cra 8 39-29 Cartagena	575 6646070/ 575-6647010	US\$ 185/ US\$ 185

18. 식당

콜롬비아는 해안지역, 산악지역, 정글지역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음식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럽, 미국, 동양의 음식문화까지 들어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콜롬비아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음식은 Carne Asada(바베큐)를 들 수 있으며 한국사람 입맛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무실가 부근에는 간단한 점심을 판매하는 식당이 많으며, 여기서는 Carne Asada에 감자, 샐러드 등이 곁들여 나오며 가격도 3,000~5,000페소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한편 보고타지역의 토속음식으로 Ajiaco(아히아꼬)가 있으며, 감자국물에 닭고기, 옥수수 등을 끓인 것으로 한국의 영계백숙을 연상시키며, 한국사람 입맛에도 별로 거부감이 없다.

보고타지역의 음식가격은 만만치 않으며, 식당 및 음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급식당 및 일식당에서는 일인당 5만페소 이상은 잡아야 한다.

한편 보고타 시내에는 4곳의 한국식당이 운영 중이며, 2군데는 정식으로 식당으로 영업하는 곳이고 나머지 1곳은 가정집을 개조해 영업하고 있다.

= 한국식당 =

Casa de Corea(한국관)

주소: Cra 15 No 74-31 전화: (571) 2115280 / 2127275

한국식당으로 다양한 메뉴 보유

Biwon(비원식당)

주소: Cra 16 No 93 A 21 전화: (571) 2189063 / 2567894

한국식당으로 다양한 메뉴 보유

Arirang(아리랑)

주소: Cra 13A No.97-47 전화: (571) 616-1400

정식백반 전문 한국식당

= 중국식당 =

Casa China

주소: Calle 109 No.16-43 전화: (571) 214-2731 / 0517

전통 중국음식점임.

Rincon de China

주소: Cra 18 No.91-15 전화: (571) 618-3441

전통 중국음식점임.

= 일본식당 =

Benihana

주소: Cra 18 No 93 a 83 전화: (571) 6357978
일본 음식점으로 철판구이, 초밥 전문임.

Hatsuhana

주소: Cra 13 No.93A-27 전화: (571) 236-3379
대표적 일식 전문점으로 맛에 대한 평판과 함께 가격도 제일 비쌘.

Welcome

주소: Cra 14 No.80-65 전화: (571) 256-4790
철판구이 전문점으로 일식당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함.

= 현지식당 =

Andres Carne de Res

주소: Via Chia - Cota, Km. 6 전화: (571) 8630122
바비큐 전문점으로 가격은 1인당 10불 내외임.

Casa Vieja

주소: Calle 116 No 20-50 전화: (571) 2137855
Ajiaco 등 전통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음.

Carbon de Palo

주소: Avenida 19 No 106-12 전화: (571) 2140450
바비큐 전문점으로 시내 대표적인 Carne Asada 전문점임. 한국사람에
음식량이 많은 편임.

= 기타 =

Tramonti

주소: Cra 1ª No 93-50 전화: (571) 2182400
이태리음식 등을 취급하는 분위기있는 식당으로 산기슭에 위치하여
보고타시 전경을 조망할 수 있음.

Las Cuatro Estaciones

주소: Cra 8ª No 98-38 전화: (571) 2569309
스페인식 음식을 취급함

La Fragata

주소: Diag 127ª No 20-36 전화: (571) 2746527
해산물 요리 전문 고급음식점으로 식당전체가 회전하며 보고타 북부
전망을 보여줌

19. 교통/통신/교통,통신

[항공노선]

한국에서 콜롬비아까지 가장 단순한 노선은 서울-L.A.-보고타 노선으로서, 서울에서 L.A.까지 12시간(서울=>L.A. 10시간 30분, L.A.=>서울 12시간) L.A.에서 보고타까지 7시간, 총 19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된다.

L.A.-보고타 노선 비행기들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중간기착지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직항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AVIANCA 항공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L.A.에서 오전 10시에 출발, 보고타로 직항하는 항공편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L.A. 도착시간을 조정할 경우 L.A.에서 대기시간을 줄여 환승할 수 있다. AVIANCA사의 L.A.행 직항편은 매주 화, 목, 토요일 16:20분에 출발하여 L.A.에 22:05분에 도착한다.

콜롬비아 등 대부분 중남미 방문시 미국에서의 환승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중남미 방문시 미국비자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미국비자 없이도 환승은 가능하나 여권 및 비행기 티켓을 사설 호송담당에 맡기고, 이들의 감시하에 대기시간을 보내야 하며, 또한 사설 호송 서비스에 대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불편 및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 외 자주 이용되는 노선은 서울-아틀란타-보고타 노선(서울-아틀란타 주 3회 운항)이며, 미국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토론토-멕시코시티-보고타 또는 서울-파리-보고타 노선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육상교통]

외국인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로서 시내에서 움직일 경우 대부분 5천페소(US\$1.85) 정도, 공항까지 이동할 경우 2만페소(US\$7.50 내외) 정도로 가격수준도 그리 높지 않아 이용이 권장된다.

택시를 잡을 경우 호출회사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부르는 경우와 그냥 지나가는 빈 택시를 잡는 경우가 있으나 지리를 잘 모를 경우 혹은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 택시를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 콜롬비아에는 별도의 콜택시가 없으며 일반 택시 기사들이 호출회사의 무전기를 임대받아 호출회사의 지시로 손님을 확보한 경우 일정부분 커미션을 납부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호출회사를 통해 택시를 부른 경우 동 회사에 연계기록이 남아있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보고타시의 택시 호출번호는 211-1111, 311-1111.

택시는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표시기에는 요금이 아닌 거리단위가 표시된다. 즉 출발할 때 25에서 시작해서 100미터마다 1단위씩 추가된다. 미터기의 1단위 가격은 35페소이고 기본요금 2000페소가 적용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단위별 요금표를 확인하여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택시를 호출한 경우, 야간 및 휴일 이용 경우, 외진 공항으로 이동 경우 등은 정상요금에 1000-2000페소를 더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다.

미터기에 요금이 아닌 거리단위가 표시되는 것은 인플레이를 겪는 후진국의 특성 중 하나로서 인플레이에 따른 가격인상시 전 택시의 미터기를 바꾸기보다, 요금환산표 1장만 바꾸는 게 더

편리하게 때문이다.

한편 택시 이외에 노선버스가 이용되고 있으나 신변안전상 외국인 이용이 권장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노선을 번호로 표시하여 운행되기 때문에 버스선택이 쉽지 않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1~2차례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교통체증]

보고타시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2000년 취임한 Antanas Mocus 보고타시장은 교통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보고타시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장기적으로 지하철건설에 모아지고 있으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아직까지는 도상계획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타시에서는 단기적인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서 과감하게 출퇴근 시간대 2.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하루에 10대중 4대의 차량이 출퇴근 시간대(07:00~09:00, 17:00~19:00) 통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보고타에서는 사람 만나는 약속을 할 때 우선 자신의 차량운행 가능성을 생각하고, 상대 차량의 운행가능성까지 확인하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 보고타시내 2.5부제 (현지어명 : Pico y Placa)

각 요일별로 번호판 끝자리수에 해당되는 차량은 오전 7~9시, 오후 5~7시 시내주행 금지
월: 7 8 9 0, 화: 1 2 3 4, 수: 5 6 7 8, 목: 9 0 1 2, 금: 3 4 5 6

[통신시스템]

콜롬비아는 전반적으로 낙후된 통신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싼 통신요금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국제전화 코드는 005, 007, 009 등이 있으나 국영통신회사에서 운영하는 009가 통화 성공률이 높다. 한국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009+82(한국)+2(지역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까지 1분 통화요금은 2,166페소(U\$0.80)로 수신자부담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할 경우 교환을 통해야 하는데 국제교환 호출번호는 179, 159, 199등 3개이며, 교환을 호출 콜렉트콜을 요청하고 상대의 전화번호를 주면, 교환이 전화를 하여 요금부담 여부를 확인하여 통화를 연결시켜 준다.

한편 호텔 등에서는 한국까지 통화요금을 2배정도로 청구, 가급적 대화할 내용을 요약, 팩스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분 호텔에서는 사후 문제가능성을 들어 수신자부담 전화를 봉쇄하고 있다.

보고타시내에서는 공항,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공중전화 발견이 쉽지 않으며, 동전식 공중전화와 카드식이 있으며, 주화식 공중전화의 경우 100페소 및 200페소 주화로 각각 1.5분, 3분 시내통화가 가능하다. 카드식 전화의 경우 개별 전화회사에서 설치하는 관계로 해당회사에서 발급한 전화카드만 이용하도록 되어있어 이용이 불편하다.

한편 콜롬비아는 지역별 빈부격차를 감안, 모든 공공요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가정 및 사무실용 전화의 시내요금은 지역에 따라 분당 16~40페소를 부과하고 있다.

20. 유용한 연락처

<관공서>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	인터넷
국가보안국(DAS)	Calle 100 No 11b 28	6107315 6107315	www.sinpro.gov.co
관광부	Calle 28 No 13 A 15	3522102 2843009	www.sinpro.gov.co/mindesarrollo
관세청(DIAN)	Cra 7 No 6 -45	3428700 2835324	www.dian.gov.co
노동부 (이민국)	Avenida 19 No 6-68	2837025 2837025	www.sinpro.gov.co/mintabajo
국가기획청(DNP)	Calle 26 No 13-9 P iso9	3340225 2813348	www.dnp.gov.co
대외무역부	Calle 28 No 13 ^a 15 Piso7	2869111 349908	www.mincomex.gov.co

<은행 및 경제단체>

중앙은행(국제부)	Calle 16 No 6-66 Piso17	2849572 282701	www.banrep.gov.co
은행감독원	Calle 7 No 4-49	2800280 2800864	www.superbancaria.gov.co
경제인연합회(ANDI)	Cra 13 No 26 - 45	2810600 2813188	www.andi.com.co
대외무역은행 (BANCOLDEX)	Calle 28 No 13 a 15 Piso40	3410677 2825071	www.bancoldex.com
기업감독원	Av El Dorado No 46 -80	2220566	www.supersociudades.gov.co
투자진흥청 (COINVERTIR)	Cra 7 No 71-52 Torre A Oficina 702	3120317 3120318	www.coinvertir.org.co
산업진흥원(IFI)	Calle 16 No 6 -66	3360377	www.ifi.gov.co

<한국기관>

한국대사관	Calle 94 No 9-39	616-7200 610-0338	
한인회	-	337-6877 337-5532	www.hancol.org

21. 여행시 유의사항

[기후 및 복장]

콜롬비아는 적도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험준한 안데스 산맥이 국토를 관통, 수도 보고타시를 비롯한 주요도시가 고산지역에 위치해 있어, 콜롬비아 출장시 목적지의 해발과 기온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고타시의 경우 해발 2,650미터에 위치해 있으며, 연중 우리나라의 10월 날씨에 해당하며 서울의 춘추복 정장 정도면 무난하며, 일교차가 큼을 감안하여 잠바 하나 정도 추가로 휴대하면 좋다. 한편 제2도시 Medellin시의 경우, 해발 1,480미터로서 우리나라의 5월 정도 날씨를 연상하고 복장을 준비하면 된다. 한편 제3도시 Cali시의 경우 해발 995미터로서 우리나라 7,8월의 날씨와 유사한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반팔셔츠와 얇은 복장이 요구된다.

[전압]

가정 및 호텔, 사무실등에서는 60Hz, 110V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니 가전제품 휴대시 주의가 요망되며, 220V 가전제품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승압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치안]

콜롬비아는 미국에서 자국민 여행자제국으로 분류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여행시 주의가 요구된다. 현지인들 역시 치안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가급적 시비 및 언쟁을 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타 중심지는 슬럼화되어 많은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급적 동 지역 방문 및 야간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안내인을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일과시간 중에도 외출시 귀금속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길거리에서 돈을 지불할 경우 지갑을 펼쳐 돈을 보여주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아울러 차량으로 이동 중 신호등 등으로 차가 정차할 경우 창문을 올려놓는 것이 안전하다.

[택시 사용]

시내 어디서나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만 제시하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다. 길거리에서 빈 택시를 잡을 수도 있으나 가급적 전화로 호출하여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통/통신 참조)

[긴급연락처]

콜롬비아 체류중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몇가지 연락처는 메모하여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응급용 전화번호로는 다음과 같다.

- 경찰 : 112
- 소방서(구조) : 119

- 엠블런스 : 115

아울러 한국대사관 및 KOTRA, 교민회장 자택 전화번호 등도 응급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용한 연락처 참조)

[팁]

호텔 및 공항에서 포터가 짐을 옮길 경우 여행용 가방 1개당 1,000페소 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음식점에서는 서비스요금으로 10%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서에 서비스요금 포함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금액에 따라 5~10%의 팁이 관행화 되어 있다.

택시의 경우 팁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나, 미터기로 요금을 산정한 경우 100페소 단위 거스름돈은 팁으로 주고 있으며, 일부 기사들은 의도적으로 잔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택시로 시외지역을 방문할 경우, 그리고 호텔택시 등은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사전에 요금을 흥정해야 하며 팁은 줄 필요가 없다.

[식수]

보고타의 수도물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산층 이상에서는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고, 저소득층에서는 수도꼭지에 간단한 정수기를 부착하여 정수된 물을 마시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 출장시 생수(Agua Mineral)를 사서 마시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이발소]

시내 곳곳에 이발소(Peluqueria)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요금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7,000~10,000페소 내외이다. 콜롬비아 이발소는 한국과 달리 대부분 이발 후 머리를 감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구두닦이]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무실 거리의 노상에 구두닦이가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도로화단 등에 방석을 깔아놓고 손님을 기다린다. 구두를 닦는데 정해진 가격은 없으며 보통 1,200 ~ 1,500페소를 요구한다

[쇼핑]

보고타시 시내중심에는 San Andresito(일명 밀수시장)라는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가전과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콜롬비아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각종 밀수품들이 저가에 판매되고 있어 보고타 서민들의 주요 쇼핑장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실정을 잘 모르는 방문객의 경우 안내인 없이 방문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고타 시민 중에서 중류층 이상에서는 슈퍼마켓 내지는 하이퍼마켓, 그리고 백화점에서 필요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보고타 시내에 주요 하이퍼마켓으로는 EXITO, MAKRO, HOME CENTER 등이 있으며, 그리고 한국의 백화점 식으로 다양한 매장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Centro Comercial Andino, Unicentro, Hacienda Santa Barbara 등이 있다.

[에메랄드와 커피]

콜롬비아는 세계 에메랄드 시장의 80%를 공급하는 최대 생산국으로, 한국으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모양이라도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라 보석에 대한 안목이 없을 경우 바가지를 쓸 가능성도 있으며, 보석에 조예가 있는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브라질과 함께 주요 커피수출국으로, 브라질 커피에 비해 향과 맛이 순해 원두커피로 많이 소비된다. 가격에 비해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 여행객의 휴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 출장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귀국 선물용품이 되고 있다.

22. 관광명소

[보고타시 주변]

(소금성당)

보고타시 북부에 위치한 Zipaquira시에 위치해 있으며, 소금암반으로 이루어진 산속에 거대한 지하성당을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곳에는 지표면에서 170미터 지하에 미사를 볼 수 있는 성당을 만들어 놓고 성당까지 이르는 길에 예수고난을 상징하는 12처소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곳은 스페인 정복 이전부터 바다를 모르던 원주민들이 염분을 채취하던 곳으로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도 소금채취가 지속되었다. 표면에서의 염분채취는 점차 광산으로 발전하여 산을 파들어가는 본격적인 광산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광부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빌기 위해 광산 입구에 마리아상을 세우고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194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기업활동으로 광산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산 내부로 폭 10미터, 높이 16미터에 이르는 소금암반을 파낸 갱도가 이곳 저곳으로 얹혀있는 것을 보게 된다. 1990년대 들어 소금광산의 관광산업적 가치를 발견한 현지정부 및 기업에서 공동출자를 통해 이곳에서의 소금생산을 중단하고 거대한 성당으로 탈바꿈하는 공사를 시작, 1995년에 완공하여 일반에 공개되었다. 입장료는 일인당 8,000페소이다.

(Montserrat)

보고타시 중심부 동쪽에 해발 3,200미터(보고타시 자체가 해발 2,650미터에 위치해 있으므로 보고타시에서 보면 그리 높지 않은 산임.)의 작은 산봉우리에 성당이 세워져 있으며, 성당까지 케이블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역시 예수고난을 상징하는 처소를 만들어놓아,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찾고 있으며 아울러 보고타시 전체를 조망하는 전망대로서 시내 주요 관광지가 되고 있다.

(Bolivar 광장)

보고타시 시내 중심부에 스페인시대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는 공간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콜롬비아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 보고타시청, 대성당 등이 위치해 있어, 콜롬비아의 정치중심지를 구성하고 있다.

광장 중심에는 콜롬비아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까지 스페인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중남미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Simon Bolivar 동상이 세워져 있다. 한편 Bolivar 광장 부근에는 Candelaria라는 지역이 있으며, 이곳은 일반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목재발코니, 석재타일을 깔은 좁은 포장도로 등 식민지시대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문화적,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보고타시 이외 지역]

콜롬비아는 험준한 안데스 산맥이 적도를 지나는 지역에 위치, 아마존에서 만년설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의 천혜의 휴양지인 카리브해와 접해 있어 관광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력 부족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미흡, 그리고 산악 및 정글지역에 포진한 게릴라의 위협 등으로 관광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태에 있다.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카리브 해안지역으로, 카리브 해안을 따라 백사장과 호텔이 펼쳐져 있는 Santa Marta, 스페인 정복대의 중남미정복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여 오래된 성벽과 많은 유적지가 남아있으며,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Cartagena, 그리고 Nicaragua와 영유권 분쟁이 잠재된 상태에서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는 San Andres 섬 등이 주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 6개주를 포괄하는 방대한 지역에 아마존 정글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아마존 지역은 남한의 4배에 이르는 403,000Km로 콜롬비아 국토와 비교해서도 35%에 이르고 있다. 아마존강 유역은 지구의 허파로 비유될 정도로 태고의 자연이 보존되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방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국경이 접한 아마존 상류지역은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동식물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 유용한 현지어 표현

<발음규칙>

스페인어는 단순명료한 발음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와는 달리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발음규칙만 숙지하면 글을 읽을 수 있는 명확한 발음규칙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스페인어 발음에는 ㅋ, ㅌ, ㅍ 등 격음체계가 없으며 이 대신 경음을 사용하여 c(k), t, p 등 자음을 ㄱ, ㄷ, ㅂ 등 경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주요 자모음별 발음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페인어 자모는 a(아), b(베), c(세), ch(체), d(데), e(에), f(에페), g(헤), h(아체), l(이), j(호따), k(까), l(엘레), ll(엘레), m(에메), n(에네), o(오), p(빠), q(꾸), r(에레), s(에세), t(떼), u(우), v(베), w(베도블레), x(에끼스), y(이그리에가), z(세따) 등 28개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b, d, f, k, l, m, n, p, r, s, t, v, y, z 등은 영어의 자음과 같은 발음을 가지며 단지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k, p, t 등은 ㅋ, ㅍ, ㅌ 이 아닌 ㄱ, ㅍ, ㅌ 의 발음을 가진다.

- c : a, o, u 앞에서는 ㄱ 으로 발음되며 e, i 앞에서는 ㅅ 으로 발음됨.
예) casa(까사), cosa(코사), cuna(꾸나), cepillo(세빠요), cielo(씨엘로)
- ch : ㅈ 발음 예) mucho(무초), muchacho(무차초)
- g : a, o, u 앞에서는 ㄱ 으로 발음되며 e, i 앞에서는 ㅎ 으로 발음됨
예) gato(가또), gota(고따), gente(헨떼), gitano(히따노)
* 한편 게, 기 발음을 살릴 때는 gue, gui로 사용한다
- h : 항상 무음임 예) hotel(호텔)
- j : ㅎ 발음으로 영어의 h 보다 강하게 발음함 예) Juan(후안), lejos(레호스)
- ll : 영어의 y 발음이나 콜롬비아에서는 ㄷ 에 가깝게 발음함
예) calle(까예, 까제)
- n : 한글의 ‘ 나 ’ 의 첫음처럼 발음됨 예) Nino(니노), senor(세노르)
- q :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u와 함께 e, i 앞에서 쓰이며 발음은 ㄱ 에 가깝다
예) queso(께소), quinta(깐따)
- rr : 굴리는 발음으로 우리발음에 없는 유일한 발음임
예) perro(빠르로)
- x : 한글의 ㄱ 과 유사하게 발음
예) examen(엑사멘), existir(엑시스띠르)

<인사말>

Buenos Dias [부에노스 디아스] - 아침인사
 Buenas Tardes [부에나스 따르데스] - 오후인사
 Buenas Noches [부에나스 노체스] - 저녁인사

Como esta usted ? [꼬모 에스따 우스?] - How are you에 해당하는 인사말
 Bien Gracias [비엔 그라시아스] - 상기 인사말에 대한 대답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Gracias [그라시아스] -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무차스 그라시아스] - 대단히 감사합니다.
 Lo siento [로 시엔또] - 죄송합니다
 Disculpe [디스쿨빠] - 실례합니다
 Por favor [쁘르파보르] - 영어 please에 해당하는 표현
 Y [이] - 영어의 and
 O [오] - 영어의 or

<가격이 얼마입니까>

Cuanto cuesta ? [꾸안또 쿠에스따] - 얼마입니까?

Cuanto vale ? [꾸안또 발레] - 얼마입니까?

Son veinte mil pesos [손 베인떼 밀 뻬소스] - 2만페소 입니다

<기타표현>

Mucho gusto [무초 구스또] - (만나서) 반갑습니다

Me llamo Miguel Kim [메 야모 미겔 킴] - 제 이름은 Miguel Kim 입니다

Como se llama usted? [꼬모 세 야마 우스?] -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Cual es su nombre? [꾸알 에스 수 뇨브레] -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No hablo muy bien el espanol [노 아블로 무이 비엔 엘 에스빠놀]

- 저는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Hable mas despacio, por favor [아블레 마스 데스빠씨오 뽀르파보르]

-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De donde es usted? [데 돈데 에스 우스?] - 어디에서 오셨어요?

Soy de Corea [소이 데 꼬레아] - 한국에서 왔습니다

Que hora es? [께 오라 에스] - 지금 몇시입니까?

Son las dos y diez [손 라스 도스 이 디에스] - 지금 2시 10분이군요

<숫자>

1-10 : uno(1), dos(2), tres(3), cuatro(4), cinco(5)

seis(6), siete(7), ocho(8), nueve(9), diez(10)

11-20 : once(11), doce(12), trece(13), catorce(14), quince(15)

dieciseis(16), diecisiete(17), dieciocho(18), diecinueve(19),
veinte(20)

30-100 : treinta(30), cuarenta(40), cincuenta(50), sesenta(60)

setenta(70), ochenta(80), noventa(90), cien(100),

200-900 : doscientos(200), trescientos(300), cutrocientos(400),

quinientos(500), seiscientos(600), setecientos(700),

ochocientos(800), novocientos(900)

그 이상 : mil(1000), millon(1,000,000)

12,300 : doce(12) mil trescientos(300)

1,300,253 : un(1) millon trescientos(300) mil doscientos(200) cincuenta y tres

24. 국토

[위치]

콜롬비아는 남위 4° 13' 30" ~ 북위 12° 26' 46" (남미 최북단 Gallinas곶)의 적도상에 있으며, 경도상으로 서경 66° 50' 54" ~ 79° 02' 23" 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남미대륙의 서북단에 위치, 중미국가인 파나마와 연결됨으로써 남미대륙을 중미 및 북미대륙과 이어주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2,050Km), 브라질(1,643Km), 페루(1,496Km), 에콰도르(590Km), 파나마(225Km) 등 5개 국가와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어 역내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면적]

콜롬비아의 국토면적은 1,141천km²으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보다는 작고 페루, 볼리비아와는 비슷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대서양 카리브해 연안에 1,760Km, 북태평양 연안에 1,448Km에 이르는 등 총 3,208km의 해안선을 보유, 영해 넓이만도 988천km²에 이르고 있어, 해양대국으로서의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영해는 12해리, 경제수역은 200해리로 선포하고 있다.

[지형]

콜롬비아 국토는 크게 태평양 연안지역, 대서양 연안지역, 안데스 산악지역, 평원지역, 그리고 아마존 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산악지역 및 대서양 연안지역에 높은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남미대륙 태평양 연안을 따라 콜롬비아에서 칠레까지 연결된 안데스 산맥은 콜롬비아 북부해안에서 세 갈래로 시작되어 에콰도르와의 국경부근에서 하나의 산맥으로 합쳐진다. 세 갈래의 산맥은 각각 Cordillera Occidental, Cordillera Central, Cordillera Oriental로 이름 붙여져 있으며, 콜롬비아 전체 영토를 볼 때 서쪽 태평양 연안에 치우쳐 있고, 국토 동부지역은 평원지역과 아마존 상류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세 갈래 안데스 산맥 사이에는 Cauca강과 Magdalena 강이 흐르고 있으며, 여기에도 평원지대가 형성되어 주요 농산물 생산지가 되고 있다.

안데스 산맥은 평균고도 3,400미터, 그리고 최고 해발 5,775미터(Ritacuba봉)의 험준한 산맥으로, 주요도시들이 산맥과 산맥 사이의 계곡, 그리고 산맥능선 및 기슭에 형성된 고원지대 등에 흩어져 형성되어, 안데스 산맥은 콜롬비아의 교통, 통신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아마존 지역은 지구의 허파로 불릴 정도로,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넓은 밀림지역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류를 보유,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아마존 지역에는 많은 유전이 위치해 있어 미래 콜롬비아의 부를 보장해주고 있으나, 현재 인간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자연환경, 국제 환경기구의 감시, 그리고 게릴라집단의 본거지가 아마존에 위치해 있는 등의 요인으로 아직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다.

[기후]

국토의 남단을 적도가 횡단하고 있어, 열대권에 속하지만, 지형과 표고의 차이에 따라 네

가지의 기후로 나누어지고 있다. 해안지대와 아마존지역은 연평균기온이 28 °C 이하로 내려가는 때가 없는 열대성 기후, 표고 1,000~1,500m 지대는 연평균기온이 20 °C 전후인 아열대성 기후, 산악지대의 초원에 해당되는 표고 2000m 지대까지가 상춘의 기후이다. 3,000m급의 산악지대는 한랭지이다.

[부존자원]

콜롬비아는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업은 콜롬비아 GDP의 8%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수출산업이 되고 있다. 주요자원별 부존량을 보면 석유 20억 배럴, 석탄 28억 톤, 우라늄 12,000톤, 철광석 1억 5천만 톤, 구리 2억 톤 등으로, 이외 에메랄드, 마그네슘, 니켈 등도 상당량 부존되어 있다.

에메랄드의 경우 세계 제1위 생산국으로 세계시장 수요의 80%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액은 5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석유의 경우, 게릴라의 준동으로 아마존지역에서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미 콜롬비아 제1의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오랜 기간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커피의 수출액을 넘어섰다. (주요품목별 수출통계 참조)

[자연경관]

콜롬비아는 고도에 따라 아마존에서 만년설, 그리고 천혜 관광지인 카리브 해안까지 다양한 자연경관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관광 인프라 개발부족 및 치안불안으로 관광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카리브 해안만 국제관광지로서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다. Cartagena, Santa Marta, San Andres 등이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25. 국민

<인구>

콜롬비아는 16세기 말 인구통계가 3백만 명이던 것이 2002년 7월 기준으로 4,100만명(추정치)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규모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제3위의 국가로 분류된다. 인구의 7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인 보고타 시에는 전체인구의 15%인 600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 연령별 성별 인구구성 (2002년 추정치)

연령대	비율	남성(명)	여성(명)	성비(남:여)
0 - 14세	31.6%	6,552,961	6,399,666	1.02:1
15 - 64세	63.6%	12,694,293	13,375,425	0.95:1
65세이상	4.8%	886,921	1,098,961	0.81:1
합계	100.0%	20134175(49.1%)	20874052(50.9%)	0.97:1

- 정보원 : CIA - The World Fact Book 2002 - Colombia

○ 인구성장율 : 1.6% (2002년 추정치)

- 출산율 : 21.99명 / 천명당 (2002년 추정치)
- 사망율 : 5.66명 / 천명당 (2002년 추정치)
- 이민율 : -0.32명 / 천명당 (2002년 추정치)
- 유아사망율 : 23.21명 / 신생아 천명당 (2002년 추정치)
- 평균수명 : 70.85세 (남자 67세, 여자 74.83세) (2002년 추정치)
- 성인 에이즈감염율 : 0.31% (71,000명) (1999년 추정치)
- 문자해독율 : 91.3% (15세 이상 인구기준)

<종족>

콜롬비아는 기존의 Chibcha족으로 대표되는 아시아계 원주민과 스페인 정복자, 그리고 스페인 인이 노예로 수입한 흑인들이 오랜 기간 공존해 오면서 광범위한 혼혈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혼혈인이 현재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종족이 되고 있다.

이들 종족별 비중을 보면 백인과 인디오간 혼혈인 메스티소(Mestizo)가 58%로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순수 백인 20%, 백인과 흑인간 혼혈인 물라또(Mulato)가 14%, 흑인 4%, 인디오 1.5%, 그리고 기타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타 및 주요도시에서 흑인 및 물라또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이들은 주로 대서양 및 태평양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한편 북부 Sierra Nevada 산악지역, 그리고 아마존 지역에서는 아직도 외부문화와 격리되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원주민 부족이 있으며, 이들 순수 인디오의 인구비중은 2% 내외에 그치고 있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인디오의 숫자는 60만명 정도로, 81개 부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종교>

콜롬비아는 카톨릭국가로서 국민의 90%가 카톨릭 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주말마다 성당미사에 참가하는 신자비중은 그리 높지 않으며, 한국식 종교관으로 볼 때는 신앙심이 낮은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일반인들의 종교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이미 생활문화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 등이 교통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성호를 그리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콜롬비아인들은 스스로 카톨릭 신자라고 말하지만, 친척의 결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말미사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없으나, 콜롬비아 사람 스스로, 매주 주말미사에 참가하는 인구는 3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성>

콜롬비아 국민은 전반적으로 낙천적인 라틴민족 특성으로, 맺고 끊는 것이 부족하고, 상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쉽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업체가 콜롬비아 사람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보다는 상대의 객관적인 능력을 나름대로 판단해야 하고,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보고타 시내에는 어스름한 새벽부터 거리를 메우는 차량행렬이 줄을 잇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 건물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약의 원료인 코카 잎의 주생산국이 페루와 볼리비아 - 물론 콜롬비아에서도 생산된다 - 인데 비해 세계적인 마약유통망을 보유한 것은 콜롬비아이며, 이것을 콜롬비아인의 우수성을 반증하는 사례로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콜롬비아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는 국민성이 있는데, 콜롬비아 인들이 오랜 기간 정치, 치안불안에 따른 신변위협을 받으며 살아왔고 이에 따라 냉정하고 과격한 면모도 보인다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중남미 국민들과는 차이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콜롬비아에는 연간 총기 또는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월드컵에서 자살골을 넣은 선수가 귀국 후 피살되는 사례 등은 콜롬비아인의 이런 국민성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문화수준>

콜롬비아는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 상류층의 경우 유럽문화를 전수받아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왔으며, 소설 “백년간의 고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Gabriel Garcia Marquez, 그리고 세계적으로 독특한 화풍을 자랑하는 Fernando Botero 등은 콜롬비아가 나온 세계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2천불 수준의 저소득 국가로서, 문화진흥은 국가 정책우선 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의 선진문화를 수입하여 보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26. 역사

[약사]

- 콜럼부스의 미대륙 발견이전

- 북쪽의 마야 문명과 남쪽의 잉카 문명을 잇는 교량역할을 수행
- Bogota 지역에는 Chibcha 부족, Sierra Nevada 지역에는 Tairona 부족이 거주
- 그 외 여러 부족국가가 있었으나, 상호 접촉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성격 유지

- 스페인 식민지시대

- 1595년 스페인 이주민 최초 정착
- 1810년 스페인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선언 (7월 20일)
- 1811년 최초 헌법(연방제) 제정. 국명은 Estado Soberano de Cundinamarca
- 1811년 Cundinamarca 주의 연방불참 결정으로 내전 발발
- 1819년 스페인 재정복

- 근대

- 1819년 Boyaca 전투에서 승리하여 스페인 통치로부터 완전 독립, Gran Colombia공화국 수립 (8월 7일)
- 1821년 Colombia공화국으로 국명변경 및 중앙집권제 채택
- 1832년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가 분리독립. 3회에 걸쳐 내전 발발
- 1843년 6차 헌법제정 - 중앙집권제 강화, 노예제도 유지, 교회의 정치참여 재개

- 1853년 7차 헌법제정 - 연방제, 자유시장 경제제도 채택
- 1863년 8차 헌법제정 - 연방제 강화. 주권을 가진 9개 독립정부로 국가 구성
- 1886년 9차 헌법제정 - 중앙집권제 회복. 8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1년까지 유지
- 1899년 천일내전(Guerra de los Mil Dias) 발발.
- 1903년 천일내전의 여파로 파나마 분리독립 (콜롬비아는 1921년에 파나마의 독립승인)
- 1910년 개헌 - 사형제 폐지, 대통령임기 4년 직선제
- 1948년 La Violencia - 자유파와 보수파간 분쟁으로 30만 명 이상 사망

- 현대

- 1953년 Rojas Pinilla 군사정권
- 1958년 Frente Nacional(국민전선)이 군사정권 타도에 성공. 이후 자유당과 보수당이 4년씩 번갈아가며 집권
- 1990년 Cesar Gaviria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장개방 등 개혁개방정책 실시
-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무소속(자유당계열)의 Alvaro Uribe Velez 후보 당선 (5월 26일)
- 2003년 보고타시 중심부 노갈클럽 테러사건으로 정부와 반군계릴라 간의 갈등 심화

[신대륙발견 이전]

중남미 인디오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며, 최근까지 4만년 전 빙하기에 베링해협이 얼어 아시아와 미주대륙이 연결되었을 때 몽고족 등 아시아 지역 인류가 미주대륙에 건너와 북미지역 인디언과 남미지역 인디오로 정착했다는 원론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프랑스 고고학자인 Raul Rivet이 주장한, 몽고족 뿐만 아니라 동남아, 대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기에 이주가 되었다는 다원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발견되는 인류의 흔적은 12,000년 전 빙하기 끝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약 6,000년 전부터 San Agustín, Tierra Dentro, Tumaco, Quimbaya, Calima, Zenu, Muisca, Tairona 등 부족국가를 형성하여 다양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그러나 이들 문명은 스페인 정복대가 도착할 때까지도 Maya 혹은 Inca 제국과 같은 국가단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부족국가 수준의 정치단계에 머물렀으며, 이는 교통통신을 저해하는 국토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식민지시대]

스페인의 콜롬비아 영토정복은, 방대한 영토 및 당시의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스페인 정복대는 1499년 처음으로 콜롬비아 카리브 연안에 도착하여 1550년 보고타에 왕립 자치정부(Real Audiencia de Santafe de Bogota)를 설립함으로써 콜롬비아 지역 정복을 마치게 된다.

스페인 정복대는 카리브 해안에 도착한 후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내륙 등 3개 방향으로 정복대를 파견했다. Francisco Pizarro, Rodrigo Bastidas, Gonzalo Jimenez 등 정복자들은 피정복 원주민으로부터 “남쪽에 다른 바다가 있고, 황금제국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황금의 꿈(El Dorado)을 쫓아 진격을 계속했고, 결국 이들은 파나마를 가로질러 태평양을 발견하게 되고 Francisco Pizarro는 태평양 연안을 거슬러 내려가 잉카제국을 정복하게 된다.

콜롬비아가 독립을 선언한 1810년까지 약 300여 년간의 식민지 기간 중 콜롬비아는 초기 Indias, 그리고 나중에 Nuevo Reino de Granada라는 지역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왕국은 현재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1564~1739년까지는 총독(Presidencia)을 두었으며, 1739년부터는 스페인 부왕을 두어 부왕령으로 관리되었다.

* 스페인 식민지로서 중남미 대륙에는 4개의 부왕령이 있었으며, 정복초기인 16세기에 멕시코 (Nueva Espana) 및 페루에, 그리고 식민지 말기인 18세기에 Nueva Granada와 현재 아르헨티나 지역에 Rio de la Plata 부왕령이 설치되었다.

[독립]

18세기 들어 스페인본국에서는 영국과의 전쟁으로 국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중남미 식민지에서의 금과 은의 유입은 급격히 줄고, 다른 나라 상품이 시장에 범람, 국가재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거래에 엄격한 관리를 적용하고 해외 식민지에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781년 3월 16일 Nueva Granada에서 소금, 담배, 주류 등 생필품에 세금인상이 공포되자 지방도시에서부터 담배를 불태우고, 술을 무료로 배급하는 등 시위가 발생했으며, 전국적인 폭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미 프랑스혁명 및 미국독립 등을 유도한 자유사상은 콜롬비아에도 전파되어 Antonio Narino가 프랑스 인권선언문을 번역 배포하는 등 스페인본국에 대항하는 중남미태생 백인들의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세금인상에 불복한 민중폭동은 이들 독립세력에 대한 지지세력으로 변화, 결국 1810년 7월 20일 콜롬비아는 대외에 독립을 선포하게 된다. 한편 1815년 스페인의 재정복으로 독립세력 대부분이 처형되고 공포정치가 실현되나, 기존 독립세력으로 스페인 재정복 때 자메이카로 피신한 Simon Bolivar 장군이 다시 세력을 규합, 스페인 부왕을 밀어내고 확고한 독립을 쟁취하였다.

* Simon Bolivar(1783-1830)

중남미태생 스페인 부부의 아들로 현재의 베네수엘라 Caracas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고아로 성장했다. 성장기 자유주의가 만연한 유럽을 여행하고, 27세 되던 해에 사상적 스승인 Simon Rodriguez 앞에서 조국을 스페인통치에서 해방시킬 것을 맹세함. 1810년 독립전쟁 당시 Francisco Miranda 휘하에서 독립전쟁에 참여했으며, 스페인 재정복 당시 자메이카로 피신했다가 Caracas로 돌아와 흩어진 독립세력을 재규합, 독립전쟁을 전개했으며, 1819년 8월 7일, 보고타시 인근 Boyaca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독립을 쟁취함. Simon Bolivar는 Nueva Granada를 해방시키고 Gran Colombia로 국명을 바꿔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중남미대륙을 미국과 같이 하나의 강력한 단일국가로 만들려던 이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의 독립선언에 실망하여 1830년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유럽여행 도중 콜롬비아 북부 항구도시 Santa Marta에서 사망했다.

[근대]

스페인통치가 종식된 Nueva Granada는 1821년 헌법을 제정, 국명을 Gran Colombia로 하고, 보고타에 수도를 두며, 삼권분립, 양원제의회, 노예해방, 만민에 시민권 부여, 초등무상교육 등 지금까지도 콜롬비아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을 헌법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1830년 Simon Bolivar가 페루전투에 참가한 외유를 틈타, 에콰도르에서 Juan Jose Flores,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Jose Antonio Paez에 의해 각각 독립이 선포되어, Gran Colombia는 11년 만에 3개 국가로 분리되게 된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의 분리 이후에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권력체제에 대한 분쟁으로 정치적 불안을 경험하였다. 콜롬비아 정치의 불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1000일 전쟁을 들 수 있는 데, 이는 1898년부터 3년간 발생한 자유, 보수 양당간의 정치대립이 일반국민에 흑백논리를 강요함으로써 지지세력간 폭력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9만여 명의 사망자와 농촌피폐에 따른 식량부족, 농민들의 도시빈민화 등 커다란 사회문제의 근원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현 파나마지역에서의 폭동진압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미국에 대한 지원요청과 이에 따른 미군진주는 콜롬비아가 파나마를 상실하는 치욕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 즉, 1903년 파나마 운하 개발을 위한 미국과 콜롬비아의 협정이 콜롬비아 의회에서 거부되자 미국은 파나마 토후세력을 사주, 미국의 영향력 하에 파나마를 독립시키고 파나마 신정부와 운하개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현대]

콜롬비아의 자유, 보수당에 의한 양당정치는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1884~1930년 기간 중 장기간 보수당이 집권했으며, 1930~1946년 기간은 자유당이 집권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비교적 정치적인 안정 속에 다양한 국가 기간산업이 건설되었다.

1940년대 들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세계공황의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고, 노조의 전국적인 파업 등 각종 사회모순이 표출되면서 사회분위기가 불안한 상태에서 콜롬비아는 다시 한번 정치 불안기를 경험하게 된다.

1946년 대선에서 보수당의 Mario Ospino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Mario 대통령은 선거패배를 인정치 않는 자유당 무마를 위해 일부 자유당 소속인사를 포함한 정부구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보수당 내부지지세력을 분노케 하여 양당간 정치적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 9일 자유당 차기 대권 주자인 Jorge Eliecer Gaitan의 암살사건이 발생, 콜롬비아는 극도의 혼란과 폭력사태에 직면케 된다.

1948년 Jorge Gaitan의 암살사건은 일차로 보고타시민을 분노케 하였으며, 시민에 동조하는 경찰의 수수방관 속에 시민폭동으로 비화하여 보고타는 무법천지를 이루었다(역사에 El Bogotazo로 기록됨). 보고타시에서의 사회불안은 점차 전국에 파급되어 농민들까지 무장 정치세력화 하여 반대파를 처형하는 등 내란형태로 발전하였다. 1948년 이후 3년 동안 폭력에 의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966년까지 지속된 혼란기를 역사에서는 La Violencia(폭력시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불안 속에 콜롬비아 역사상 초유의 군사쿠데타가 발생, 양당간 정쟁을 잠재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53년 Gustavo Rojas 장군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인수하면서, 의회를 해산하여 일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으며, 정치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 및 기존 정치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1957년 Gustavo Rojas 장군이 사임, 군부정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

군부정치 기간 중 정치대립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돌아선 자유, 보수 양당은 1957년 국민전선(Frente Nacional)을 형성, 정치안정에 노력하게 된다. 국민전선의 주요골자는 1957~1974 기간 중 양당이 번갈아 4년제 대통령을 배출하며, 당적에 따른 인재등용에 차별을 없앴다는 것 등이다. 국민전선에 의해 콜롬비아에서 정치대립은 크게 해소되었으나, 빈곤, 부의 편중 등 사회문제와 게릴라 문제 등은 현재까지도 정치권의 숙제로 남아있다.

70~80년대를 거치면서 콜롬비아는 채무 가중, 높은 인플레이, 재정적자 누적 등 소위 중남미 경제병을 경험하였으며, 여기에 마약산업의 발전은 외형적으로는 여타 중남미국가에 비해 높은 외환보유고로 80년대 외채위기를 순조롭게 넘어가는 등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지하경제의 비대화, 국가경제의 마약자금 의존, 정부관리의 부패, 게릴라 세력강화 등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1990년 중남미의 케네디로 불리는 젊은 Cesar Gaviria 대통령은 개혁, 개방을 표방하면서, 정치권의 부패척결 및 화합, 경제부문의 시장원리 도입을 추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였고, 2002년에는 무소속의 Alvaro Uribe 대통령이 취임하여,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펴고 있다. 2003년 10월에 실시된 정치개혁법안 국민투표의 실패로 개혁정책이 주춤하였으나, 2003년말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약, 게릴라, 부패의 척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27. 국가조직

<행정부>

콜롬비아는 대통령중심제의 공화국이다. 콜롬비아 행정부는 대통령과 각 행정부처, 그리고 32개 주정부 및 1,152개 시 등 자치단체의 지방정부로 대표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과 영토를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장관 및 대사, 기타 국가 기관장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진다. 현 Uribe 대통령은 2002년 5월(차기선거는 2006년 5월)에 53%의 지지율로 선출되어, 임기는 2002년 8월 7일 ~ 2006년 8월 7일까지다. 한편, 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시 직무를 대행하며, 대통령 선거 때 같이 선출되어, 임기를 같이 하며, 현재 부통령은 Francisco Santos이다.

현재 내각은 양대 정당인 자유당(PL)과 보수사회당(PSC) 및 무소속의원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정부의 경우,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다. 현재의 자치정부는 2002년 1월 1일 임기가 시작되어 2004년 12월 31일에 임기가 종료된다.

<사법부>

콜롬비아 사법부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 4개의 최고재판소와 하위기구로 고등법원, 일반법원을 두고 있고, 특별기구로 검찰(Fiscalia), 군법재판소(Penal Militar), 감사원(Procuraduria), 회계원(Contraloria) 등을 두고 있다.

* 4개의 최고재판소

- 헌법재판소(Corte Constitucional- 헌법의 최고성과 일관성을 옹호하고,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헌법 및 국제조약의 수정 등을 담당. 판사는 사법상급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되며, 임기는 8년임)
- 대법원(Corte Suprema de Justicia- 형사사건의 최종재판기관. 판사는 사법상급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되며, 임기는 8년임)
- 국가이사회(Consejo de Estado- 행정사건의 최종재판기관. 판사는 사법상급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되며, 임기는 8년임)
- 사법상급이사회(Consejo Superior de la Judicatura- 민사사건을 관리, 판결하고, 재판소 간의 사법적 분쟁을 조정. 다른 3개의 최고재판소와 의회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8년임.)

콜롬비아 사법제도는 '91년 개정된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정의실현과 엄정한 법률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국민주권, 권리보장, 국민자치, 평등선거, 국토이용의 효율성, 중앙은행의 업무 투명성 등을 중시하고 있다.

검찰(Fiscalia General de la Nacion)은 범죄수사와 함께 범법자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며, 형법관련 입법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독립적인 속성으로 고위정치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보유, 정치권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입법부>

콜롬비아는 상하원 양원제 의회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상원은 전국 단위로 선출된 100명의 의원과 인디오 대표 2명을 포함, 총 10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원은 각 주별로 선출된 64명과 25만명 단위 인구비례로 지역별(보고타는 31개 선거구)로 선출된 102명을 포함, 총 166석의 의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원 의원은 4년의 임기를 가지며, 상원 및 하원의장은 각 의회 내에서 투표로 선출되어 1년의 임기를 갖는다. 현재 의회는 2002년 3월 선거를 거쳐(차기선거는 2006년 3월), 2002년 7월에 구성, 2006년 7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의회 회기는 연간 150일로, 매년 7월 20일 개원되어 12월 16일까지 지속되며, 다음해 3월 16일 재개되어 6월 20일 회기를 마친다.

2003년 현재, 상원은 자유당(PL) 28석, 보수사회당(PSC) 13석, 무소속 및 군소정당(대부분 보수성향) 61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원은 자유당(PL) 54석, 보수사회당(PSC) 21석, 무소속 및 군소정당 91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28. 정치제도

[선거제도]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보통, 비밀,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4년의 임기를 갖는다. 대통령은 무조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 인정되며,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현재의 Uribe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53%의 지지율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다.

한편 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리스트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후보자는 자신을 후원 또는 지지하는 사람명단(보통 2~3명)을 같이 국민에 제시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공동입후보 제도이다. 이 때 해당 후보의 득표수가 높을 경우 당선권에서 넘치는 득표를 후보자 리스트의 차순위 후보자에 넘겨,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당선을 위한 표준득표수가 사전에 계산되는데, 이는 총 유효득표수를 총 의석수로 나눈 수치이다. 즉 100명 의원선거에 100만 명이 투표한 경우, 1만 표가 당선 표준득표수가 된다.

당선표준 득표수가 1만 표일 경우를 예로 들어, 특정후보가 2만 5천표를 득표할 경우 이 중 후보자 당선을 위한 1만 표를 제외한 15,000표가 차순위 후보자로 돌아가, 동 후보자도 의원으로 당선된다. 한편 남은 5천 표의 경우 다시 차순위 후보자에 돌아가나, 이 경우 당선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준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정하고 나서 남은 의석이 있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의석이 배정된다.

[정당제도 및 현황]

콜롬비아는 자유와 보수 양당이 100년 이상 정치를 주도해 왔으며, 자유당은 연방제 옹호, 정교분리, 기업자유 등을 주장해 온 반면, 보수당의 경우 중앙집권정부 옹호, 교회 보호, 국가의 민간경제 간여 등이 주요 정책방향이었다. 그간 중남미 다른 국가들이 군부, 독재정치를 겪은 것과는 달리 콜롬비아가 정치안정을 이루어 온 것은 양당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기구의 부패, 국가발전 낙후 등 문제점 들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정치인들끼리 나눠먹기식 인사, 행정이 지속되자, 일반국민들은 양당정치에 식상하기 시작했고, 보다 다양한 정치세력, 보다 참신한 정치인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1991년 개정된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 정당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정당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은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선거가 임박하면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여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며 활동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은 해체되었다가 다시 선거철에 또 다른 정당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당정치 색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자유당, 보수당 후보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선거철 자신이 등록된 당을 선전하기 보다 자신의 정책방향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이 단체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29. 정치사회동향/정치동향

[대선 및 총선 결과]

가. 대선(2002.5월)

- 지난 5.26 대통령선거 결과, 무소속의 Alvaro Uribe(자유당 계열)가 자유당의 Horacio Serpa, 진보계의 Luis Garzon, 무소속의 Noemi Sanin(보수당 계열) 등을 누르고 과반수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음.
- 주요 후보 득표율

* Uribe : 53.04%	* Serpa : 31.70%
* Garzon : 6.17%	* Sanin : 5.81%
- Uribe 대통령은 당선후 대선시 경합후보들과의 관계개선 및 제후를 위해 노력한 결과, Serpa 후보, Sanin 후보가 주 OAS, 주 스페인대사 직을 각각 수락하였음.

나. 총선(2002.3월)

- 지난 3.10 선거에 따라 신 의회가 7.20 출범함(임기 4년).
- 대선 및 신정부 와의 관계설정 과정에서 나타난 원내 정치세력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상원
 - * Uribe 대통령 지지 여권 연합 : 61석 (자유당 비주류 + 보수당)
 - * 자유당 주류 : 28석
 - * 기타 : 13석
 - 하원
 - * Uribe 대통령 지지 여권 연합 : 97석 (자유당 비주류 + 보수당)
 - * 자유당 주류 : 44석
 - * 기타 : 17석
- 그간 신 의회는 Uribe 행정부와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정치개혁 국민투표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조세연금 및 노동법 개정 추진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음.

[Uribe 신정부 출범(2002.8.7)]

가. 신정부 정책방향

1) 정치

- 정치개혁
 - 정치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안 추진(2003.6월경 국민투표 실시 예정)
- 긴축재정
 - 행정 비능률 제거 및 전비 조달을 위한 긴축 기조 실현

- 정부 조직 감축 (일부 부처 통폐합, 재외공관 감축 등)

○ 게릴라 및 마약문제 강력 대처

- 대게릴라 소탕작전 강화
 - * 전비조달 목적세 신설로 군비증강, 민간 정보망(100만명) 가동 등
 - * 게릴라가 무력행위, 납치행위 중단선언 등 선결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 평화협상 불재개
- 마약 대체작물 도입 및 산림회복을 위한 국제협력 확보

2) 외교

○ 내전종식과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적극 확보

○ 미국, EU, 중남미 주변국 관계가 대외정책의 핵심

- 대미관계 : 대게릴라전, 마약조직 소탕을 위한 군사원조, Plan Colombia 이행
- 대 EU 관계 : 경제원조 확보, 평화협상 관련 지원
- 중남미관계 : 대게릴라전, 마약소탕 위한 지역협력

○ 대아시아 관계 발전에도 관심

3) 경제

○ 치안강화, 사회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매년 GDP 3%의 추가 자원 확보

○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 정부 구조조정 실시

- 조세제도 개혁방향 : 조세 감면제도 재검토, 탈세방지대책 시행과 새로운 세원 발굴
군 전력증강을 위한 목적세 도입

○ 또한 안정적인 외자조달을 위해 대외신용 회복 적극 모색

- IMF와 재협상 -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 미진한 구조조정 적극 추진 - 연금법 개정 등
-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한 외채 조정

나. 신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 추이(Gallup Colombia사 조사결과)

여론조사항목	2002.9월초	2002.11월초	2003.1월초
국정 전반 수행 긍정평가	72%	75%	68%
콜롬비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여론	32%	44%	41%
자신의 생활형편이 1년전 보다 나아졌다고 보는 여론	28%	26%	24%
자신의 생활형편이 1년후에 나아질 것으로 보는 여론	46%	45%	34%

[내전 및 게릴라 동향]

가. 내전양상

- 정부군, 좌익게릴라(FARC, ELN 등), 극우민병대(AUC) 3자간 각축구도
 - 좌익게릴라 및 극우민병대는 마약조직과도 연계
 - FARC 15,000-20,000명, ELN 6,000명, AUC 8,000-12,000명
- 내전의 장기화로 사회, 경제적 불안심화
 - 난민 수백만명의 대도시 유입으로 실업, 범죄증가
- 국경지역의 게릴라 활동으로 주변국에 우려 야기
 - 내전 난민과 마약조직의 월경, 국경지역에 고엽제 살포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
 - 주변국 정부들은 미국이 주재국 정부의 게릴라 소탕작전을 강하게 지원할 경우 게릴라 조직이 자국 국경 내로 피신, 게릴라전이 자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우려
 - 한편 베네수엘라(차베스 대통령)는 FARC에 대한 이념적 동정태도를 보여 주재국과 외교적 마찰 조성

나. 정부-FARC간 평화협상

- 98.11 Pastrana 정부, FARC에 "긴장완화지역"(약 42,000km²)을 인정하면서 공권력을 철수, 사실상 FARC의 자치공간을 인정
- 99.1 정부-FARC간 평화협상 개시
- 2002.2.20 평화협상 중단, 긴장완화지역 폐지
- Uribe 신정부는 평화협상 재개 전제조건으로 게릴라측의 선 무력행위 중단 요구

다. 최근 동향

- Uribe 신정부는 대게릴라 강경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 병력 및 군비증강, 민간 도로정보대 가동 등
 - 게릴라측의 군.경 피납자 및 일반 피납자와 게릴라 죄수간 교환석방 제의 거부
- 게릴라는 2002.8월 Uribe 대통령 취임식장 포격이후 대도시에 대한 테러공격을 강화시켜 오고 있으며, 특히 2003.2월 FARC에 의한 보고타 El Nogal 클럽 폭탄 테러사건으로 정세불안과 긴장이 가중되고 있음.
- 미국은 2001.9월 테러사태 이후 주재국 정부의 게릴라 토벌작전을 보다 적극 지원 (전에는 마약소탕 지원에 치중)
 - * 미정부는 2001.9월초 주재국의 양대 게릴라 단체(FARC, ELN)와 AUC를 세계 28대 테러단체로 지목
- 2003.2월 정보활동중이던 미국 정부요원 1인이 피살되고 3인이 FARC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특히 FARC에 대한 미국의 응징론이 대두되고 있음. (지난 90년 이래 미국인 80명이 납치되고, 95년 이래 12명이 피살되었으나, 일반인이 아닌 정부요원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

[Plan Colombia]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 게릴라, 안전문제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99년 하반기에 종합적 국가 재건정책인 Plan Colombia (공식명칭 : 평화.번영 및 국가 강화 계획, Plan para la paz, la prosperidad y el fortalecimiento del estado)를 발표하였다.

총 75억불의 Plan Colombia 필요재원 중 40억불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35억불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대게릴라 평화협상과 함께 고용창출, 경제발전 등 종합적인 국가발전 만이 마약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Plan Colombia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문제 대처와 관련,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30. 정치사회동향/사회동향

`9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심각한 경기침체는 `99년에 더욱 악화되어, 대부분 산업 특히 고용산업인 건축산업의 침체를 야기, `99년말 현재 실업률이 19.8%에 이르러 최근 수년간 기록적인 수치로 기록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전 Pastrana정부에서는 그간 게릴라와 평화회담 등 정치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으나, 정부의 유화정책은 오히려 게릴라 세력의 확대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2년 출범한 Uribe 정부는 게릴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고, 국민들의 기대감도 매우 크다. 게릴라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마약재배지역의 축소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하반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콜롬비아의 경제환경은 크게 개선되어, 실업률 축소, 이자율 인하,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정부의 투명한 납세구조 정착을 위한 조세개혁안이 2003년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가가치세 일부환급을 통한 신용카드 사용확대, 각종 조세인센티브를 통한 인프라 확장과 자원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31. 국가원수



- 직위 : 대통령
- 성명 : 알바로 우리베 벨레스(Alvaro Uribe Velez)
- 취임일 : 2002.8.7
- 임기 : 4년

- 프로필
 - 생년월일 : 1952.8.17일
 - 출 신 지 : 안띠오키아 메데진(Medellin)
 - 출신학교 : 안띠오키아대학 법률학 및 정치과학 전공 (1977년)
미국 하바드대 경영학 석사 (1993년)
 - 가족사항 : 부인 Lina Uribe여사와의 사이에 2명의 아들(Tomas, Jeronimo)을 둠.

- 주요경력
 - 1976년 메데진 공공사업부 부동산과장 근무를 시작으로 공직생활 시작.
 - 1977-1978년 노동부 국장
 - 1980-1982년 항공청장
 - 1982년 : 메데진 시장
 - 1984-1986년 : 시 커운셀러
 - 1986-1990년 : 상원의원 당선
 - 1990-1994년 : 상원의원 재선
 - 1995-1997년 : 안띠오키아 도지사 - 정부정책 결정에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공무원 34% 감원 및 공용차량 35% 감축
 - 2002년 5월 26일 : 대통령 당선
 - 2002년 8월 7일 : 대통령 취임(4년 임기)

- 기타 사항
 - 1990년 최고상원의원상 수상
 - 1998년 Simon Bolivar상 수상

* 정보원 : 대통령궁 홈페이지(<http://www.presidencia.gov.co/presidente/hvingles.htm>)

32. 주요인사

<정부각료>

	장관 성명 및 약력
내무법무부 Interior y Justicia	FERNANDO LONDONO HOYOS
	- 57 세. 보고타 출생. 변호사이며 경제학자 - 외환관리국장, 라틴아메리카은행연합회장 역임 - 식품산업협회, 목재산업협회, 관광산업협회장 역임 - 수출자협회 이사 역임 - 기고와 강연활동이 활발함.
외무부	CAROLINA BARCO (여성)

	- 사회경제학 및 경영학 전공 - 보고타 시 도시계획국장, 문화환경부처 자문위원 - UN개발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재무부 Hacienda y credito Publico	ALBERTO CARRASQUILLA BARRERA - 1959년 4.24일 보고타출생 - 경제학자로, 일리노이즈대 경제학 박사 - 안데스대 경제학 교수 - 미주개발은행 조사관, 콜롬비아 일반조정국 경제담당관 역임.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컨설턴트 역임 - 안정과 성장, 폭풍의 시대 등 경제학 관련 저서 집필
국방부 Defensa Nacional	MARTHA LUCIA RAMIREZ DE RINCON (여성) - 1954년 7월 4일 보고타 출생 - Javeriana 대학 경제학과 졸업 - 미국 Harvard 대학 국제관계센터에서 연구 - 은행감독원 국장, 마스다금융 사장 역임 - 1989년 전국금융연합회 회장 역임 - 대외무역청 청장, 대외무역부 장관, 주프랑스 대사 역임 - 콜롬비아 최초의 여성국방장관
농업부 Agricultura	CARLOS GUSTAVO CANO - 55 세. 안데스대 경제학박사로, Tolima 주 태생 - 영 랭캐스터대 경제학 석사 및 미 하버드대 국제경제학 석사코스 수료 - 콜롬비아농부조합(SAC) 회장, 미국생산자연맹 이사 역임 - El Espectador 지 및 Agrarian 은행 회장 - 국제콜롬비아협회 이사(창설자) - 이 외 여러 금융기관 및 농업분야의 사외이사로 재직 - 골프와 바이오테크놀러지 관련 분야의 독서를 즐김.
노동보건부 Trabajo y Salud	DIEGO PALACIO BETANCOURT - NSR대 의대 및 안데스대 경영학 전공 - Lorencita대학병원 관리자 및 보건부 자문위원 역임 - El Tiempo지 및 RCN(라디오방송국) 근무 - 보건부 자문위원 역임
광업에너지부 Minas y Energia	LUIS ERNESTO MEJIA - 전 광업에너지부 차관 역임 - 배터리 제조업체인 MAC사에서 근무 - 보수성향의 무소속 출신임. - 70년대 음악과 비행기 조종, 축구경기 관람을 좋아함.
통상산업관광부	JORGE HUMBERTO BOTERO

	- 현 우리베 대통령의 선거캠프의 참모로 활동 - 안띠오키아대 법률학 전공. 미 웨스트버지니아대 정치과학 전공 - 금융부문에서 활동하며, 회사경영 및 언론기고 등 참여 - 수출금융 및 보험제공업체인 SEGUEXP0 와 보고타 전력회사의 이사 역임 - 1998-2000 년 콜롬비아 은행협회 회장 - 1993 년 연금기금관리협회 회장
교육부 Educacion Nacional	CECILIA MARIA VELEZ (여성) - 안띠오키아대 경제학 전공. 벨기에 Lovain 대 경제과학 석사. MIT 대 도시계획프로그램 수료 - 국가기획국 차장, 국토개발국장을 역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분야의 책임을 이양하는 등 분권화에 기여 - 교육 115 법령 입안에 참여 - 1998 년부터 보고타시의 교육분야에 경제원칙을 도입, 성공을 이끌어냈음.
환경국토개발부 Ambiente, Vivienda y Desarrollo Territorial	CECILIA RODRIGUEZ GONZALEZ-RUBIO (여성) - Barranquilla 출생. Andes 대 경영학 전공. 미 하버드대 협상 및 분쟁조정과정 수료 - 주로 민간분야의 CEO 로 활동 - 푸른산소당 공동발기인이며, 미주녹색당 콜롬비아 대표 - 2001 년 푸른산소당 상원의원 역임
통신부 Comunicaciones	MARTHA ELENA PINTO DE HART (여성) - Bumanga 출신의 경제학자로, Uribe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Primero Colombia 회의 이사 - Citibank, Santander 은행 등 민간분야에서 활동. - 골프와 요가를 즐김.
교통부 Transporte	ANDRES URIEL GALLEG0 - 콜롬비아 국립대 건축공학 석사. - 국립대, 메데진대 등에서 강사로 활동 - 1995 년 안띠오키아 주지사 대리 - Uribe 대통령이 안띠오키아 주지사 시절 공공건설국장을 지낸 인연이 있음. - 정치적인 성향이나 소속 정당은 없으나, Uribe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임.
문화부 Cultura	MARIA CONSUELO ARAUJO CASTRO (여성) - Externado 대학 재무 및 외교학 전공. 미 콜롬비아대 공공관리전문과정 수료. 伊 밀라노대 외교학과정 수료 - 보고타 녹지화 사업의 시초가 된 식물공원 원장 역임 - 농촌개발부의 대외무역담당관, 농업기금 특별국장 역임 - 보고타수로관리회사, 식물원협회, 문화관광연구소, 아동보호 지역연구소 등의 이사를 역임. - 입각 직전 보고타 여가 및 스포츠 지역연구소장 역임.

<기타 주요인사>

- 보고타상공회의소 회장 : MARIA FERNANDA CAMPO
 - 1944년 6월 2일생
 - Rosario 대학 법과 졸업
 - 수출진흥은행(BANCOLDEX) 이사 역임
 - 콜롬비아-베네수엘라 상공회의소 회장 역임.
- 보고타 시장 : ANTANAS MOCKUS SIVICKAS
 - 1952년 3월 25일, 보고타 출생
 - 콜롬비아국립대학 철학박사
 - 콜롬비아국립대학 수학과 교수 및 학장 역임.
 - 보고타 시장(1995.1-1997.4) 역임
- 중앙은행 총재 : MIGUEL URRUTIA MONTOYA
 - 1939년 4월 20일생
 - 하버드대학 경영학과 졸업 및 동대학 석사취득
 - Berkeley 대학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중앙은행 국장, 경제사회 개발원 원장 역임
 - 재무부 사무국장 역임
- 노벨문학상 수상자 : GABRIEL GARCIA MARQUEZ
 - 1929년생
 - 1982년 “백년간의 고독(Cien Anos de Soledad)” 소설로 노벨문학상 수상
 - 이 외 “El Coronel no tiene quien le escriba”, “Cronica de una Muerte Anunciada” 등 다수의 저서를 남김
 - 대통령의 정책에 자문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대외특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경찰국장 : ROSSO JOSE SERRANO
 - 1942년생
 - Samper 정부에 이어 Pastrana 정부에서도 경찰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치안 및 안전을 대표하는 인물
 - Samper 정부시 미국과의 관계악화 기간 중 미국의 대화상대역을 수행, 양국간 관계개선에 기여하였으며, Cali 카르텔 마약조직의 두목을 체포, 마약과의 전쟁에 선봉장이 되고 있다.
 - 콜롬비아 경찰의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 현재 콜롬비아 경찰의 정보력은 중남미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 최고기업인 : JULIO MARIO SANTODOMINGO
 - 1923년 파나마 태생
 - 콜롬비아 최대 기업인 Santodomingo 그룹의 총수로서, 콜롬비아 최고의 부자, 제계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다.
 - 1997년 Vanity Fair지에 의해 세계를 움직이는 65명으로 Clinton 대통령 등과 함께 선정된 인물임.

- 현재 Santodomingo 그룹은 TV방송사, 라디오방송사, 휴대폰 통신업체, 맥주 및 음료수 생산업체, 콜롬비아 제1항공사 등 방대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 여당지도자 : HORACIO SERPA URIBE
 - 1943년생
 - 정치동반자였던 Samper 대통령 재임시 내무장관을 역임했으며 1998년 당시 집권자유당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참여 Pastrana 대통령에 패배함.
 - 대선당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amper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Serpa 대선패배의 주요인으로 지적되었다.
 - 여당인 PL(자유당)의 지도자로서 게릴라와 평화회담 등에 적극 참여.

33. 행정구역

[AMAZONAS 주]

면적 : 109.665 km²

인구 : 79.000

수도 : Leticia

수도인구 : 35.000

주요산업 : 수산업, 임업

특기사항 : 아마존 지역의 중심으로 많은 아마존 지류를 보유하고 있음.

[ANTIOQUIA 주]

면적 : 62.869 Km²

인구 : 4.830.000

수도 : Medellin

수도인구 : 2.200.000

주요산업 : 섬유, 플라스틱 등 경공업

특기사항 : 산업의 중심지로, Medellin은 콜롬비아 제2의 도시임.

[ARAUCA 주]

면적 : 23.939 Km²

인구 : 101,000

수도 : Arauca

수도인구 : 31.000

주요산업 : 목축, 석유생산

특기사항 : 1991년 행정구역상 주로 승격됨. 베네수엘라와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항을 보유하고 있음.

[ARCHIPIELAGO DE SAN ANDRES Y PROVIDENCIA주]

면적 : 52.5 km² y 349.800 km² (섬)

인구 : 52.450

수도 : San Andres

수도인구 : 48.464

주요산업 : 관광 및 상업

특기사항 : 중미 니카라과 부근의 섬 지역으로 니카라과와 영유권 분쟁이 있음. 콜롬비아 대표적인 관광지역의 하나로서 관광객을 위한 면세지역을 운영하고 있음.

[ATLANTICO주]

면적 : 3.319 Km2

인구 : 1.742.000

수도 : Barranquilla

수도인구 : 1.050.000

주요산업 : 경공업 및 상업

특기사항 : Barranquilla는 카리브 해에 위치한 콜롬비아 주요 국제항구의 하나로, 항만, 운송 등이 주산업이 되고 있음.

[BOLIVAR주]

면적 : 26.469 Km2

인구 : 1.739.000

수도 : Cartagena

수도인구 : 930.000

주요산업 : 관광, 목축, 플라스틱 등 경공업

특기사항 : Cartagena는 카리브 해안에 위치한 관광도시로서, 스페인의 중남미 정복시 교두보 역할을 수행, 고성 등 많은 유적지가 남아 있음.

[BOYACA주]

면적 : 23.012 Km2

인구 : 1.289.000

수도 : Tunja

수도인구 : 115.000

주요산업 : 농목축업 및 에메랄드 광업

특기사항 : 보고타 북쪽으로 보고타 시에 접한 주로서 주요도시에 스페인 식민시대 건축양식 및 전통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음.

[CALDAS주]

면적 : 7.291 km2

인구 : 918.000

수도 : Manizales

수도인구 : 331.000

주요산업 : 농업 및 경공업

특기사항 :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커피생산이 주산업임.

[CAQUETA주]

면적 : 91.725 Km2

인구 : 319.000

수도 : Florencia

수도인구 : 113.000

주요산업 : 농업, 임업, 축산업

특기사항 : 면적 기준으로 세번째로 넓은 주로, 아마존지역에 위치.

인구의 75%는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CASANARE주]

면적 : 44.428 Km²

인구 : 183.000

수도 : Yopal

수도인구 : 47.000

주요산업 : 광업, 목축업

특기사항 : 1991년 행정단위상 주로 승격되었음. 광활한 평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이 인디오로 구성됨.

[CAUCA주]

면적 : 30.985 Km²

인구 : 959.000

수도 : Popayan

수도인구 : 212.000

주요산업 : 농업, 상업

특기사항 : 태평양과 접한 주로, 스페인 정복이전 원주민 문화가 번창한 지역임. Popayan은 콜롬비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Cauca주는 누에고치 생산의 중심지가 되고 있음.

[CESAR주]

면적 : 22.213 km²

인구 : 818.000

수도 : Valledupar

수도인구 : 257.000

주요산업 : 농업, 목축업, 광업

특기사항 : 콜롬비아 동북부에 위치. 평균기온 27 °C의 열대기후를 보유하고 있으며, 1967년 행정구역상 주로 승격됨.

[CORDOBA주]

면적 : 24.999 Km²

인구 : 1.132.000

수도 : Monteria

수도인구 : 289.000

주요산업 : 농업, 목축업, 귀금속 가공업

특기사항 : 북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주로서 목축업 중심지의 하나임. 현재 보유 가축수는 190만 두에 이름

[CHOCO주]

면적 : 46.871 Km²

인구 : 359.000

수도 : Quibdo

수도인구 : 125.000

주요산업 : 광업

특기사항 : 연평균기온 28 °C의 열대성 기후를 보유하고 있으며, 흑인이

인구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한편 다양한 동,식물류를 보유,
생태자원 부존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CUNDINAMARCA주]

면적 : 23.942 Km2

인구 : 9.800.000

수도 : SantaFe de Bogota

수도인구 : 8.000.000

주요산업 : 농업, 목축업, 기타 제조업

특기사항 :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시를 주수도로 보유. 보고타시를
둘러싼 지역은 정치 행정의 중심지이나, 보고타시 외곽에는
농업 및 목축업이 주산업이 되고 있음.

[GUAINIA주]

면적 : 70.691 Km2

인구 : 17.000

수도 : Puerto Inirida

수도인구 : 12.900

주요산업 : 광업 및 농업

특기사항 : 베네수엘라, 브라질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문화가 보존되어 있음.

[GUAVIARE주]

면적 : 55.391 Km2

인구 : 75.000

수도 : San Jose del Guaviare

수도인구 : 60.000

주요산업 : 농업, 목축업, 수산업

특기사항 : 콜롬비아 동남부 정글지역에 위치한 주로서, 1991년 행정구역
주로 승격됨.

[HUILA주]

면적 : 18.331 Km2

인구 : 793.000

수도 : NEIVA

수도인구 : 239.000

주요산업 : 광업, 목축업, 농업

특기사항 : 콜롬비아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쌀생산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 되고 있음.

[LA GUAJIRA주]

면적 : 20.383 Km2

인구 : 356.000

수도 : RIOHACHA

수도인구 : 134.000

주요산업 : 광업

특기사항 : 콜롬비아 북단 카리브해 Guajira 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소금
생산 및 석탄광업이 주산업임.

[MAGDALENA주]

면적 : 22.742 Km2

인구 : 994.900

수도 : SANTA MARTA

수도인구 : 304.000

주요산업 : 농업, 축산업, 관광업

특기사항 : Santa Marta는 카리브해 주요 국제항구로서, 항만, 운송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인근 해안에는 국제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음.

[META주]

면적 : 85.286 km2

인구 : 579.100

수도 : VILLAVICENCIO

수도인구 : 240.400

주요산업 : 농업, 목축업

특기사항 : 보고타시 남부에 보고타시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평원지대로 목축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음.

[NARINO주]

면적 : 32.046 Km2

인구 : 1.200.000

수도 : SAN JUAN DE PASTO

수도인구 : 345.000

주요산업 : 농업, 상업

특기사항 : 콜롬비아 남서단에 위치해 있으며 Galeras 화산을 보유.
화산지진대에 위치해 있어, 잦은 지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음.

[NORTE DE SANTANDER주]

면적 : 22.007 km2

인구 : 1.025.000

수도 : CUCUTA

수도인구 : 503.000

주요산업 : 농업, 상업, 목축업

특기사항 : 베네수엘라와 접경지역에 위치, 베네수엘라와의 국경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있음.

[PUTUMAYO주]

면적 : 25.684 km2

인구 : 231.000

수도 : MOCOA

수도인구 : 203.700

주요산업 : 농업, 광업

특기사항 : 아마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원주민의 생활문화가 보존되고 있는 지역임.

[QUINDIO주]

면적 : 1.943 Km2

인구 : 419.000

수도 : ARMENIA

수도인구 : 290.000

주요산업 : 농업

특기사항 : 커피생산 중심지로, '99.1.25일 대규모 지진피해로 수천명이 사망하는 등 지진피해를 입은 바 있음.

[RISARALDA주]

면적 : 3.592 Km2

인구 : 749.300

수도 : Pereira

수도인구 : 342.000

주요산업 : 농업, 경공업

특기사항 : 커피생산이 주 산업이며, Pereira의 경우 콜롬비아 10대 도시에 포함되는 도시임.

[SANTANDER주]

면적 : 30.537 Km2

인구 : 1.657.000

수도 : BUCARAMANGA

수도인구 : 603.000

주요산업 : 섬유산업, 농기계산업

특기사항 : 콜롬비아에서 비교적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섬유와 기계 산업이 발달되어 있음. Bucaramanga는 전원도시로 잘 조성된 도시외관으로도 유명함.

[SUCRE주]

면적 : 10.917 Km2

인구 : 621.000 habitantes

수도 : Sincelejo

수도인구 : 210.000

주요산업 : 농업, 목축업, 상업

특기사항 : 북부 카리브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축업이 주 산업임. 한편 관광중심지인 Tolu 시와 Covenas시를 보유하고 있음.

[TOLIMA주]

면적 : 22.672 Km2

인구 : 1.179.028

수도 : Ibague

수도인구 : 635.000

주요산업 : 농업, 목축업

특기사항 : 해발 1,000미터 내외의 평원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쌀생산의 중심지임. 이외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섬유, 신발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VALLE DEL CAUCA주]

면적 : 21.195 Km²

인구 : 3.388.133

수도 : Santiago de Cali

수도인구 : 2.021.000

주요산업 : 농업, 경공업

특기사항 : 평균기온 25 ° C의 열대기후대에 위치해 있으며, 사탕수수가 주요 농업생산물임. 태평양의 Buenaventura 항구에 인접하여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수도인 Cali시는 콜롬비아 제3의 도시임.

[VAUPES주]

면적 : 53.190 Km²

인구 : 35.798

수도 : Mitu

수도인구 : 21.375

주요산업 : 농수산업

특기사항 : 브라질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991년 행정구역 주로 승격되었음. 주산업은 농업과 아마존을 이용한 수산업임.

[VICHADA주]

면적 : 98.970 Km²

인구 : 65.000

수도 : Puerto Carreno

수도인구 : 10.000

주요산업 : 농수산업

특기사항 : 베네수엘라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991년 행정구역 주로 승격되었으며 주산업은 농업과 수산업임.

34. 대외관계

[외교노선]

근본적으로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한 친미 외교노선에 바탕을 두어 왔으며, 일시적으로 탈미 자유화 노선을 추구하기도 했으나, 1980년대의 경제위기와 마약문제로 인해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타국의 주권, 독립 및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900년대 초반 파나마 분리 이후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Suarez대통령(1918-1922)은 북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커피시장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친미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80년대 초반까지 콜롬비아의 주요 경제외교의 기본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하에서 반공이 주요 외교노선으로 등장함에 따라 정치적 차원의 북방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주 상호원조조약, 미주기구 등에 가입하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하였다. 1967년부터는 정치사회적 이념을 초월한 다원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안데안 그룹 창설, 소련 및 쿠바와의 외교관계 재개, 비동맹지지 등 외교관계의 탈종속화와 국제관계의 다원화를 모색하였다.

1974년 Michelson 정부 때부터 제3세계 및 대 인근국 외교활동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 미국의 콘트라반군 지원 반대, 중미위기 해결을 위한 Contradora그룹 가입, 비동맹가입 등을 통해 대미지향 단일외교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외교관계의 다양화를 도모하였다. 1979년 후반부터 마약문제로 대미 외교관계가 점점 악화되었으며, 1982년 외채위기 이후로는 서방채권국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외자도입 협상이 외교의 주안점이 되었다.

'90년대 들어 콜롬비아 정부는 대외정책의 탈마약화를 표방하면서 국제화정책을 추진, 지역경제통합 및 경제개방, 선진국과의 경제우호관계설립,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채택하고 안데안 경제통합, G-3경제협력 Caricom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중미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중미와의 자유무역 협정체결, 선진국과의 쌍무경제협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1993년 Gaviria 정권때부터는 태평양 연안국,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강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외무역부, 투자진흥공사, 수출진흥공사가 주가 되어 아시아 전담반을 구성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확대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있고, Pastrana 대통령도 취임 후 일본, 중국 등 아시아국가를 순방, 경제협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Andino그룹과 Mercosur와의 통합 추진 및 NAFTA 가입을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전 미주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와 국경선 구획문제, 국경지대 치안문제 등이 숙제로 남아 있으며 니카라과와는SAN ANDRES 영유권 문제가 콜롬비아의 대중남미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83.3월 뉴델리 비동맹회의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문제 등 역내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95.10월에는 카르타헤나에서 32개국 정상, 유엔 사무총장 및 73개국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비동맹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최종문서 및 콜롬비아 선언을 채택하였다. 최종문서에는 비동맹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회원국, 옵서버 및 게스트 가입기준의 조기채택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엔 활성화 체제개편과 민주화에 있어 중요 역할수행을 다짐하였다. 한편 콜롬비아 선언에서는 빈곤, 불평등, 인종차별,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로부터의 위협, 핵폐기물 처리, 남남협력, 개도국의 사회환경 개선, 마약, 테러문제 등에 대해 비동맹 회원국의 협력 및 실제적 행동을 촉구하였다.

미국과는 파나마 독립건과 대미 최대의 마약수출국으로 지정되어 한동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Uribe 정권 출범 이후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어로, 현재는 최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6년부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는 데 합의한 상태이다.

[지역협력체 참여정도]

콜롬비아는 지역경제 통합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며, 현재까지 콜롬비아의 지역경제통합 또는 경제협력 협정 체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o ALADI(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 회 원 국 :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활동내용 :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체결, 공동시장 창설 활성화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제국간(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용인하고 있으며 동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는 G-3, CACOM,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음.

o 안데안 경제통합(ANDEAN PACT)

- 회 원 국 :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 최초논의 : 1989.12월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에서 안데안 5개국간 교역자유화 기본원칙에 합의
- 발효일시 : 1995.1.1일
- 주요내용 : 공동시장 결성으로 자유교역실시 및 대외 공동관세 부과

o G-3협정

- 회 원 국 :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 최초논의 : 1989.2월 온두라스에서 개최된 외무장관 회의시
- 공식발효 : 1995.1.1일
- 주요내용 : 공동시장 결성으로 자유교역실시 및 대외 공동관세 부과
G3 역외 국가인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의 협력 강화

o ATPA-The Andean Trade Preference Act

- 미국 부시대통령의 "War on Drugs"정책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농민들에게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미국수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코카인 재배 대신 여타 농산물을 재배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둔 일방적인 무역특혜 조치로, 지난 2001년 12월에 1차 종료가 되었으나, 2002년 8월 6일 미국이 연장법안을 통과시켜, 연장되었음.
- 적용기간 : 1991.12.4일부터 2006.12.4일까지

o 중미자유무역협정(CACAM:Free Trade Agreement with Centra America)

- 회원국 : 니카라과아이, 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 멕시코와 칠레,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간의 협정을 근간으로 회담추진.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관세부과 대상품목 선정 합의. 그러나 회원국간의 경제수준차이와 기존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등의 문제 대두

o 베네수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1992.3.17)

-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함
- 역외 안데안 그룹에 대해서는 20%를 최고한도로 하며 동일율로 부과

무역, 투자, 농산물가격, 금융시장의 외환관리규정 및 조세정책 상호 협의

o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체결

- 1992.7 ALADI협정서 근간으로 협정서 작성. 품목은 G-3협정 품목을 근간으로 함.
- 1993.11 양국간 경제 협정서 조인
 - . 양국간 약 300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기타 품목은 최고 25%로 관세 인하
 - . 1997년까지 양국간 교역품의 32% 비관세 및 1990년까지 90% 비관세 합의

o 에콰도르와 교역자유화 실시(1992.9.1)

- 교역자유화 예외품목의 인정 / 양국간 품질검사 및 위생검사제도의 일치
- 육로 화물 수송의 자유화 / 주류의 독과점 거래 철폐
- 농산물 가격의 안정 유지

o 쿠바와 외교.통상 협력협정 체결(94. 11.4)

- 외교 : 외교관 및 공용비자 면제
- 투자 : 쿠바의 석유, 생물공학, 석탄개발 분야에 투자 확대
- 교육 : 양측 대학에 양측 국가 강좌개설
- 통신 : 교육방송 상호 교류
- 무역 : 쿠바에 기업인 사절단 파견

o EU특혜관세

- 회원국 :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쿠아돌, 페루
- 콜롬비아로부터 EU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혜택 부여

o ANDEAN GROUP와 MERCOSUR간 통합

- 96.9.17일 리마회의에서 12월 중 브라질에서 통합을 위한 초안 마련키로 합의
- 10년내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합시 GDP 10,626억불, 인구 3억의 거대 시장 탄생
- 2004.3월, 연말까지 통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주자유무역지대 출범 이전에 통합을 완료하여,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국제기구가입]

콜롬비아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BCIE, CAN, Caricom(옵서버), CCC, CDB, ECLAC, D\FAO, G-3, G-24, G-77, IADB, IAEA, IBRD, ICAO, ICC, ICFTU, ICRM, IDA, IFAD, IFC, IFRCS, IHO, ILO, IMF, IMO, Interpol, IOC, IOM, ISO, ITU, LAES, LAIA, NAM, OAS, OPANAL, OPCW, PCA, RG, UN, UNCTAD, UNESCO, UNHCR, UNIDO, UNU, UPU, WCL, WFTU, WHO, WIPO, WMO, WToO, WTrO

35. 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 (IMD)

* IMD 국가경쟁력보고서(2003년도) 종합순위: 총 조사대상국 30개국 중 16위

(조사대상국은 IMD 조사대상국 중 인구 2천만 이상 국가임)

- 2002년도 20위에서 4계단 상승.

[요소별 기준별 경쟁력 순위]

요소	순위	기준	순위
Economic Performance	21	1) Domestic Economy	26
		2) International Trade	30
		3) International Investment	20
		4) Employment	24
		5) Prices	9
Government Efficiency	11	1) Public Finance	20
		2) Fiscal Policy	14
		3) Institutional Framework	8
		4) Business Framework	9
		5) Education	21
Business Efficiency	18	1) Productivity	23
		2) Labor Market	8
		3) Financial Markets	18
		4) Management Practices	10
		5) Impact of Globalization	22
Infrastructure	14	1) Basic Infrastructure	17
		2)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21
		3) Scientific Infrastructure	24
		4) Health and Environment	15
		5) Value System	11

[요소별 연도별 경쟁력 순위]

요 소	1999	2000	2001	2002	2003
Economic Performance	22	21	20	20	21
Government Efficiency	23	24	21	20	11
Business Efficiency	22	23	23	15	18
Infrastructure	20	19	18	15	14

[2003년도 주요 개선사항]

- 관, 민, 학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 조세제도 개혁으로 세금 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정책 실시
- 조세 인센티브 통한 사회간접자본 유지개발 장려
- 조세 인센티브 통한 대체에너지 생산 장려

36. 도량형

[도량형]

콜롬비아는 다양한 미국 및 영국식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도량형은 다음과 같다.

- 무게
 - Kg : 1,000g
 - Libra (파운드) : 453.59g
 - Onza (온스) : 28.5g
 - Arroba : 25파운드
- 길이 :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함
- 용적
 - Metro cubico : 입방미터
 - Litro : 리터
 - Barril : 159리터로, 석유생산량 등 양을 표시할 때 사용
 - Galon : 3.785리터로 가솔린 양을 표시할 때 사용
- 넓이
 - Metro Cuadrado : 제곱미터
 - Hectarea : 1,000 제곱미터
 - Fanegada : 800 제곱미터

[전기]

가정용 및 상업용으로는 110볼트 60Hz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산업용으로 220볼트, 삼상전류 등이 공급됨.

37. 관공서 관행

[민원 처리기간]

콜롬비아 관공서는 민원 사안별로 내부적 처리기간(보통 2일~15일)을 명시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처리기간이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후진국 특성상 민원부서의 부패는 존재하며, 사소한 기재사항 실수, 기타 사항을 트집잡아 접수를 거부 내지는 서류를 반송시켜 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류준비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서류작성시 절차를 잘 아는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관공서 민원창구는 민원인으로 붐벼, 차례를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한번 접수를 거부당하면 당일 처리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안내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관공서 업무가 있을 경우, 사전에 www.sinpro.gov.co 페이지를 방문, 해당정보 게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 인터넷 페이지에는 주요 공공기관 리스트와 기관별 민원절차 등이 설명되어 있다.

[관공서 방문시 유의사항]

콜롬비아 관공서는 대부분 09:00~14:00시까지 민원을 접수하며, 13:00~14:00까지는 중식시간으로 접수를 중단한다. 오후시간에는 많은 민원인으로 붐비므로 가급적 업무시작 시간에 맞춰 서류를 접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아직 대부분 관공서에서 외국어구사 인력이 없음을 감안, 방문시 신뢰할 수 있는 통역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민원업무가 많은 관공서 업무는 주로 대행업자를 통한 처리가 일반적이며, 중개인 이용시 수수료가 추가로 부담되나, 업무노하우, 그리고 담당관리와의 교분관계 등으로 개인이 처리하는 것 보다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세관, 국가보안국(DAS), 교통국 등에 대한 업무는 제출서류 및 절차 등이 까다로워 대행업자 활용이 권고된다.

대행업자 이용시 주의사항으로 대행업자별 능력차이가 있으므로, 능력이 검증된 대행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업무의뢰시 필요한 서류원본 일체와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대행업자에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복잡한 수속대행을 조건으로 접근하여 사기를 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대행업자에 업무의뢰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자신의 수수료 외에 급행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아무런 영수증이나 근거없이 지불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유경험자를 통해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밀수, 마약, 게릴라 등 문제해결에 공무원 부패가 주요 장애물의 하나라고 인식, 정부기관 부패척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 투자 등 외국인 대상 민원기관에서부터 본연의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점차 세관 등 여타 기관으로 정화노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38. 국제공항 및 항구

[공항]

콜롬비아는 산악국가의 특성상 내륙운송의 대체수단으로 항공운송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다. 주요도시인 칼리-보고타-메데진 사이는 예약할 필요도 없이 1시간 반 간격으로 탑승할 수 있는 에어셔틀이 운행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10개의 국제공항을 포함, 전국적으로 74개의 크고 작은 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승객운송량은 내국인 6백만 명, 외국인 1백만 명 내외이다. 주요 공항별 승객이용을 보면 보고타, 메데진, 깔리 등 3개 도시 공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 3개 공항이 국내선 승객의 57%, 국제선 승객의 87%를 점유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주요 공항 및 소재도시는 다음과 같다.

도시명	공항명
Bogota	El Dorado
Cali	Alfonso Bonilla Aragon
Medellin	Enrique Olaya Herrera
	Rio Negro
Cartagena	Rafael Nunez Crespo
Barranquilla	Ernesto Cortissoz
San Andres	Gustavo Rojas Pinilla

* El Dorado 국제공항

- 보고타 시내에서 약 12km로 택시로는 20분 거리이며, 요금은 2만페소(약 US\$ 7불) 정도
- 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 출국할 경우, 공항세 28불, 출국세 15불을 지불해야 함.

한편 콜롬비아에는 국내외 27개 항공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승객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AVIANCA(콜롬비아 국적기였으나, 2004년 3월에 브라질 Varig항공사가 인수)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American Airline, 파나마의 COPA, 그리고 콜롬비아의 ACES, SAM 등의 순이다. 콜롬비아에 취항하는 주요 항공사 및 비행편 코드, 콜롬비아 내 예약확인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보고타시 기준)

항공사	비행편코드	예약전화번호	기타전화번호
AEROTACA	ATK	413-8080	413-9153
AIR ARUBA	FK		610-5717
ACES	VX	283-0240	413-5511
AEROREPUBLICA	P-5	336-0361	413-8809
AIRES	4C	413-8500	413-9473 - 412-9517
AIR FRANCE	AF	254-8950	254-8990 - 413-8750
AVIANCA	AV	410-1011	413-8295
AERO. ARGENTINA	AR	610-9272	413-8715, 8741
AEROPERU	PL	286-8711	413-9455
AMERICAN AIRLINES	AA	285-1111	505-0505
ALITALIA	AZ	287-1375	413-5140
BRITISH AIRWAYS	BA	218-0200	413-8092
CONTINENTAL AIR.	CO	413-5645	413-5643
COPA	CM	623-1566	413-5469
CUBANA	CU	610-1676	256-1408
ECUATORIANA	EU	621-7600	413-9500 Ext. 2419
IBERIA	IB	610-0972	413-8715, 9637
INTERCONTINENTAL	RS	413-5366	413-8888

LAB	LB	621-3800	413-9500 Ext. 2419
LAN CHILE	LA	611-1533	413-8809
LUFTHANSA	LH	618-0300	503-0400
MEXICANA	MX		413-9500 Ext. 2810
SAETA INT'L	EH	312-3830	413-8826
SAM	MM	410-1011	413-8295
SATENA	ZT	413-8158	413-9464
SERVIVENSA	VC	622-5066	413-5491
VARIG	RG	285-8300	413-9500 Ext. 2871

[항구]

콜롬비아는 4개의 대표적인 국제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서양 지역에 Barranquilla, Santa Marta, Cartagena 항구가 있고, 태평양 연안에 Buenaventura 항구가 있다.

이들 항구의 물동량을 보면, 태평양 연안 Buenaventura 항구가 전체 수출입 물량의 50%를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대서양의 3개 항구에서 50%를 처리하고 있어, 콜롬비아의 태평양 연안국과의 교역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항구의 규모로 볼 때, Santa Marta 항구가 가장 크며, 입항선박의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구의 경우는 입항선박의 크기를 Panamax 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에는 22개의 사설항구가 있으며, 이들은 석유, 석탄, 바나나 등 생산지 부근에 위치, 이들 상품의 전용 수출항구로 활용되고 있다.

39. 매스미디어

[신문]

- 전국지

El Tiempo	: 1911년에 창간된 최대종합 일간지
La Republica	: 1954년 설립된 경제전문 일간지
El Espectador	: 1886년 설립된 종합일간지로 정치, 시사 등을 다룸.
El Espacio	: 서민층을 위한 일간지로 정치, 경제기사를 주로 수록
La Nota Economica	: 월 2회 발간되는 격주간지. 시사, 경제 등을 다룸.

- 지방지

El Colombiano	: 1912년에 창간된 종합일간지로 메데진시 지역 중심으로 배포.
El Pais	: Cali시 및 인근지역 신문으로 1950년에 창간됨. 정치, 경제기사를 주로 수록

[방송]

- TV

Canal Caracol(채널5)	: 종합방송사로, Santodomingo 그룹 계열사임.
Canal RCN (채널4)	: 1998년 설립된 민간 종합방송사로 Ardilla Lulle 그룹에서 운영
Canal Uno (채널7)	: 종합방송사로, 뉴스, 시사토론, 드라마 등을 방영
Canal A (채널 9)	: 종합방송사로, 뉴스, 시사토론, 드라마 등을 방영
Senal Colombia(채널11)	: 종합방송사로 뉴스, 교양,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방영
Canal Capital(채널 2)	: 콘서트 등 공연물과 영화 등 오락프로그램을 위주로 방영
Teveandina(채널 13)	: 안데안 지역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 영화, 코미디 위주 방송편성

- Radio

Cadena Super (FM)	: 음악위주 라디오방송
Caracol Radio (FM, AM)	: 종합방송사로 뉴스, 스포츠, 음악 등 프로그램 보유
RCN Radio (FM, AM)	: 종합방송사로 뉴스, 스포츠, 음악 등 프로그램 보유
Todelar (FM)	: 음악위주 라디오방송
Radionet (AM)	: 뉴스위주 라디오방송
Radio K (AM)	: 뉴스, 스포츠 중계, 음악 등 프로그램 보유

[기타 주간지]

Semana	: 대표적인 주간지. 시사, 정치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
Revista Cromos	: 1916년 창간된 주간지로서 모델, 배우, 정치 등을 다룸.
Ediciones Gamma	: 1964년 창간된 주간지로, 문화, 아동, 실내장식 등을 다룸.

40. 주한 주재국기관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 EMBAJADA DE COLOMBIA
 - 대사 : JORGE ENRIQUE MORA RANGEL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3층 사서함 7764호
 - 전화 : 02)720-1369
 - 팩스 : 02)755-6959
 - E-MAIL: eseul@minrelext.gov.co

[주콜롬비아 한국대사관]

- 주콜롬비아 한국대사관
 - 대사 : 박상균

- 주소 : Calle 94 No.9-39
- 전화 : 57-1)616-7200
- 팩스 : 57-1)610-0338
- E-Mail : embacorea@mofat.go.kr

41. 현지화제 유머속담/현지 주요스포츠

[현지의 주요스포츠]

- 싸이클

최초의 클럽은 1898년에 창설되었으며, 1950년 중미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많은 국제적인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범국민적인 스포츠로 활성화되었다. 보고타 시는 일요일 오전에 시내의 주요 간선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애정이 깊다.

- 축구

축구는 영국 해군이 Santa Marta시에 주둔하면서 경기한 것이 시초로, 최초의 축구클럽은 Barranquilla시에서 창설되었고, 1936년에 축구연맹이 창설되었다. 1945년 국제대회 처녀출전, 1947년 프로축구 창설 등으로 전국적인 축구붐이 일어났다. 유명한 선수로는 발데라마를 들 수 있으며, 월드컵 본선 4회 출전, 1989년 남미클럽선수권(Copa Libertadores) 우승 등이 국제대회에서의 주요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권투

1920년대부터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된 권투의 경우, 콜롬비아는 Antonio Cervantes Pambele 등 7명의 세계챔피언을 배출하였으며, 올림픽에서는 3개의 동메달을 얻었는데, 이 중 하나는 서울올림픽에서 Jorge Eliecer Julio선수가 딴 것이다.

- 야구

1903년 Cartagena에서 시작된 야구는 1912년 최초의 클럽 결성, 1948년 국내 선수권 대회 개최 등 긴 역사를 가진 스포츠이다. 콜롬비아는 Cartagena에서 열렸던 두번의 국제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많은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속담]

- 원어 : MAS VALE SOLO QUE MAL ACOMPAÑADO

- 발음 : 마스 발레 솔로 께 말 아콤빠냐도

직역하면 “ 혼자 있는 것이 못된 사람과 같이 있는 것 보다 낫다 ” 라는 뜻으로 교우관계 혹은 동료관계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

- 원어 : Hablando del rey de roma, es el que se asoma

- 발음 : 아블란도 델 레이 데 로마, 에스 엘 께 세 아소마

직역하면 " 로마 왕에 대해 이야기하자 마자 나타나는 사람이 그이다" 이지만 우리 속담식으로 표현하면 "호랑이도 제말하면 나타난다" 라는 표현으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다.

42. 물가정보

< 도시명 : 보고타 >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게	5.32	1인분
식 품 기호품	햄버거	2.20	맥도날드 빅맥 1개
식 품 기호품	수입담배	0.85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1,064.84	150m2/월, Semi-furnished
주 택 사무실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638.91	150m2/월, Semi-furnished
주 택 사무실	사무실 임차료	1,242.32	150m2/월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20,902.84	한국산, 오토, 에어컨
교 통 차 량	시내버스 요금	0.28	1구간
교 통 차 량	택시요금	0.82	기본요금
교 통 차 량	택시요금	0.18	추가요금, Km당
통 신 전 기	공중전화요금	0.07	시내, 3분
통 신 전 기	국제전화(할인)	0.75	현지-서울, 3분
통 신 전 기	전기요금	0.07	가정용, 1Kwh
통 신 전 기	인터넷 사용료	49.69	1개월 기본료
교 육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638.91	초등 1년간
교 육	외국인 학교 수업료	5,732.04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레저.오락	골프장 그린피	10.65	비회원, 18홀 1라운드
레저.오락	영화 관람료	3.37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21.30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호 텔	특급호텔 숙박료	47.47	할인, 싱글 1박

호 텔	중급호텔 숙박료	36.08	할인, 싱글 1박
임 금	사무실비서 월급여	141.98	초임, 학력불문
임 금	사무실직원 월급여	652.39	대졸, 초임

43. 경제발전사

[경제발전사]

[농업, 광업중심의 자급자족 경제: 20세기 이전]

19세기 말까지 콜롬비아 경제는 농업과 광업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었으며, 광대한 영토와 산악지형으로 교통, 통신의 발전도 지체되어 이 시기까지 콜롬비아 경제는 국가단위의 일관된 경제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지역별 자급자족 경제 및 인근 지역과의 물물교환 경제가 19세기 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19세기말 콜롬비아에는 주요 은행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20세기 초반에는 주별로 주요도시에 금융기관이 등장하는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농업은 봉건시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이루어진 금, 은의 채굴 및 수출이 주요 국가재원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이시기 경제발전이 지체된 것은 정치불안에 크게 기인하며, 19세기말 개혁, 보수세력간 천일전쟁 (Guerra de los mil dias, 1899~1902)은 국민의 관심사를 경제에서 정치문제로 돌려놓고, 농촌피폐, 농민의 도시빈민화 등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콜롬비아에 남겨주었다.

[전통 수출상품 위주 경제개발기 : 1904~1930]

천일전쟁 직후 집권한 Reyes 정부(1904~1909)는 국가재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체 제조업에 소요되는 면화생산, 수출상품인 바나나, 사탕수수, 커피, 고무 등 농업분야에 대한 진흥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주요 수출상품으로 손꼽히는 외화가득 상품이 이 시기에 개발되었으며, 콜롬비아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었다.

특기사항으로, 1903년 파나마의 독립과 관련, 미국에서는 콜롬비아에 배상금을 지불하였으며,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농업은행(Banco Agrícola)을 설립하였다. 20세기 초반 콜롬비아 농업의 발전에는 농업은행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Reyes 정부기간 중 국가적인 금융정책 필요성, 국유재정 및 세금관리 필요성 등으로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설립되었다.

20세기 초반 콜롬비아 경제의 번영은 30년대 세계 대공황과 함께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즉 세계공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경색은 콜롬비아 경제의 자금원을 봉쇄, 많은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도산을 야기하였으며, 또한 콜롬비아 주 수출상품이던 농산물 국제가격을 폭락시켜 외환유입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또한 많은 공장의 가동중지에 따라 양산된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위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였다.

[수입대체 공업화 시작 및 정부주도 경제발전기 : 1930~1950]

이러한 경제, 사회분위기 속에서 50여 년간 집권해 온 보수당 정권이 물러서고 자유당의 Enrique Olaya Herrera 정부(1930-1934)가 출범하였다. Enrique Olaya 정부는 파산위기에 있는 일반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하는 한편 농업부문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농산물 위주의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정부보호 아래 주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자율 조정 등 정부의 경제개입이 경기회복 및 성장에서 효과를 나타내자, 정부에서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산업현대화를 위한 산업진흥원(IFI),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커피기금(Fondo Nacional de Cafe), 축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기금(Fondo Ganadero) 등 다양한 정부주도 경제기구가 설립되었고, 민간기업의 해외차관 도입에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하기도 하였다.

세계 대공황 이후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4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1948년 다시 Violencia로 명명된 정치불안으로 콜롬비아 경제는 전환점을 맞는다. 정치불안기가 지속되던 1953년 Gustavo Rojas 장군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으며, 군부정권은 경제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인프라구축에 노력하게 된다.

[경제도약기 : 1950-1980]

이 시기에 콜롬비아는 TV 방송이 시작되고, 현재 보고타 국제공항(Aeropuerto El Dorado)이 건설되는 등 국가 기간시설이 건설되었으며, 아울러 커피, 석유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동 부문은 콜롬비아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누적은 폐소화 평가절하 및 외채누적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58년 미화 1불당 2.5페소에 이르던 대미환율이 이듬해에는 4.58페소로 거의 100% 평가절하가 이루어졌다.

Violencia와 군부정치 이후 자유보수 양당은 정치안정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1958년 국민전선 (Frente Nacional)을 형성한다. 국민전선은 향후 16년간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양당에서 번갈아 배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비교적 정치적 안정 속에 경제도약기를 맞게 된다.

4년 임기의 양당 정부는 “6만호 주택건설”, “전력생산 증배사업” 등 임기내 달성이 가능한 경제사업을 공약으로 설정, 경쟁적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콜롬비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댐,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가 이 시기에 건설된다. 아울러 정부기구의 효율화 및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석유생산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콜롬비아 정부의 경제정책 재원은 외채로서, 당시에는 외채를 들여와 인프라를 건설하는 게 당연한 개발정책으로 받아들여졌고, 콜롬비아 정부의 외채도입을 통한 인프라 건설은 70년대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1975년 브라질 커피홍작은 국제 커피가격을 1976년 6월 파운드당 미화 65센트에서 77년 4월 3.20불로 5배 가량 상승시켰으며, 브라질에 이어 제2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커피횡재를 안겨주었다.

[잃어버린 10년과 경제개방]

50년대 이후 정부주도 개발정책은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 심화, 단기외채 조달에 의존한 대형 인프라 건설,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환율불안 및 인플레이션 압력 등 국가경제에 구조적 왜곡현상을 야기했으며, 중남미 각국의 유사한 경제취약성은 결국 1982년 중남미 전체의 외채위기로 나타났다.

80년대 10년간 중남미 대부분 국가는 외채위기를 넘기면서 고인플레이션, 자국화 평가절하, 고실업, 저성장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와중에서도 콜롬비아는 모라토리움 선언없이, 안정적인 성장율을 기록,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90년 집권한 Cesar Gaviria 정부는 정부보호 속에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콜롬비아 경제 회생을 위해 과감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수입개방, 외국인 투자개방, 그리고 경제부문에서 정부역할 축소가 이루어졌다.

1999년 브라질, 멕시코 등의 외환위기로 인해 중남미 전체가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콜롬비아도 90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되찾았으며, 2003년에는 미국에 이은 최대 무역파트너인 베네수엘라가 폭동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수출량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으로 건설분야가 되살아나고 소비재에 대한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흐름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03년 하반기부터 콜롬비아 주요수출상품인 철광, 구리, 석탄, 원유, 금 등의 원자재 국제시세가 크게 급등하면서, 콜롬비아 폐소화가 평가절상되는 등 경제가 전반적인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4. 경제정책

1.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2002.8.7 Uribe 정부 출범)

콜롬비아 신정부는 주요 공약사항인 치안강화, 사회투자확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해 기존의 재정지출이외에 매년 GDP의 3% 정도의 초과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상기 초과 재정지출 수요 충당과 경기부양을 위하여 콜롬비아 정부는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 기반 구축, 정부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축소, 대외 신용회복을 위한 정책시행 등 3가지 시책을 향후 경제정책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초과 재정지출 수요 개요]

- 치안강화 비용 : 매년 GDP의 1% 추가 소요
 - 집권 4년간 경찰을 10만에서 20만으로, 직업군인을 5만 5천에서 10만으로 증강
 - 정보체제 현대화와 군의 기동성 강화
- 사회투자 비용 : 매년 GDP의 1% 추가 소요
 - 매년 10만호의 주택 건설

- 150만 교육기회 제공

- 사회간접자본 건설 비용 : 매년 GDP의 1% 추가 소요
 - 커피산업 지원
 - 수입자본재에 대한 면세비용 등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 기반 구축
 - 현 조세제도하에서 조세 감 · 면세액이 GDP의 2% 수준임을 감안, 조세 감 · 면세제도의 철폐시 GDP의 2.0%-4.0% 수준의 증세 가능
 - 탈세범 처벌을 통한 탈세방지대책의 시행과 새로운 조세원에 대한 혜택조치 시행시 GDP의 1.5-2.0% 수준의 증세 가능
 - 군 전력증강 목적의 목적세 신설시 GDP의 0.2-0.3% 수준의 증세 가능
 - 상기 제도 시행시 GDP의 3.7-6.3% 수준의 증세가 가능함에 따라 초과 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정부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축소
 - 정부 부처 통폐합
일부 부처 통 · 폐합을 단행, 내무부와 법무부를 내무 · 법무부로, 노동부와 보건부를 노동 · 보건부로, 대외무역부와 경제개발부를 폐지하고 양 부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상무부 신설
 - 재외공관 감축
재외공관의 대폭 감축 및 인원축소로 예산 절감
 - 기타 구조조정
신정부 출범후 청단위 이하 기관의 통 · 폐합 및 낭비 직위(2004년 중반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50%(약 40만명) 감축예정
- 대외신용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
 - IMF와의 재협상
2002년말로 종료되는 IMF와의 협정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조건 하에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IMF와 협의할 예정
- 미진한 구조조정계획 추진
 - IMF와 합의한 구조조정계획 중 연금법 개정안과 건전 재정법안이 상원의회에 계류중인 바, 대외 신용회복에 관건인 양 법안의 조속한 통과 추진
 - 외채관리대책
2003년 중 만기도래하는 약 30억불의 외채의 상환과 관련, 국제 금융기관을 통한 차관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한 외채 조정 가속화
- 기타정책(국영기업의 민영화)
 - 국영통신공사(Telecom), 국영석유공사(Ecopetrol) 등 국영기업의 자산매각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2. 신정부의 경제.사회개발계획

주재국 국가기획부(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 : DNP)는 '공동체 국가를 지향(Hacia un Estado Comunitario)'으로 명명된 Uribe 정부의 향후 4년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경제.사회개발계획은 Uribe 대통령의 대선공약 100개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민주적인 치안확보, 지속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사회형평실현,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의 4대 목표를 제시하고 각 목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4년간 주요 거시경제지표 목표치 및 투자계획 설정하였다.

[민주적인 치안확보(7개 시책)]

- 3조 2천억페소(13억불 상당)의 무기 구입
- 청년들에 대한 군사교육 실시
- 파괴된 163개 경찰서 복구
- 통합 무기 신고 체제 신설
- 군.경.검찰과의 협조하에 민간 이동순찰대의 전국 배치
- 마약거래조직 소유 39,000개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귀속작업 가속화
- 30,000가구의 내란 이재민에 대한 귀향사업 지원

[지속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1) 주택

- 6조 페소(24억불 상당)의 주택 저당 채권증서 발행
- 50,000채의 서민주택 구입 보조금 지급

(2) 석유

- 석유생산증대를 위해 유전탐사계약 조항 개정
- 년 평균 20회의 석유탐사 계약체결을 통해 100개 유정개발사업 시행

(3) 교통 및 도로건설

- Magdalena강 재개발사업 시행
- 50,000Km의 지방도로(Vias secundarias) 건설
- 깔리와 부까라망가에 대중교통시설 설치

(4) 대외통상

- 농산물 수출증대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협상에 적극 참여
- ATPA의 적극 활용

(5) 고용창출

- 310,000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율을 현재의 16%에서 2006년도에 10%로 축소

[사회 형평 실현]

- 150만 초.중등교육 기회 및 40만 대학 교육기회 제공
-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95%의 예방접종 실시
- 130만 아동에 대해 조식 및 중식 무료 제공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300개 정부기관의 통.폐합 검토
- 10,000 공직자 퇴출 및 30,000개 낭비직위 제거
- 공공부문의 정책 및 재정 집행상황에 대한 민간 감시 체제 강화

[향후 4년간 거시경제지표 목표치]

(단위 : %)

거시경제지표	2003	2004	2005	2006
경제성장률	2.0	3.3	3.7	2.9
재정적자(GDP 대비)	2.4	2.1	1.8	2.1
경상수지적자(GDP 대비)	0.8	1.5	1.8	1.9
저축율(GDP 대비)	12.1	12.3	12.3	12.6

[투자계획]

- 향후 4년간 총 180조 페소(약 430억불 상당)를 투자
-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억페소)

부 문 별	금 액
평화를 위한 투자기금	18,650
정 부	12,382
방 위	32,060
사 법	7,554
재 정	40,335
농 업	9,359
사 회 (보건, 노동, 교육, 문화, 주택, 위생 등)	657,117
인프라 (통신, 교통, 광업.에너지, 대중교통체제 등)	276,878
규제기관	4,067
환 경	1,646
기 타	20,142
합 계	1,080,190

3.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현지기업의 평가

2003년 1/4분기 기업환경 설문조사 결과
(10점 만점)

	2002년4/4분기	2003년 1/4분기
외교정책	7.40	7.75
치안	7.05	6.91
정치	6.71	6.78
사회발전	6.38	6.62
경제정책	6.32	6.47
고용	4.92	5.12
정부신뢰	7.67	7.55

* 자료원 : Opinometro

4. 2004년 조세개혁정책 주요포인트

-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 장려(부가세 2% 환급)
- 성실납세자에 대한 부가세 원천징수율 하향 조정(75%→60%)
- 세금체납자의 분할상환 신청시 원금부터 공제하여 세금부담 경감

5. 관련 사이트

- 통계청 : www.dane.gov.co
- 투자진흥공사 : www.coinvertir.org.co
- 중앙은행 : www.banrep.gov.co
- 개발연구원 : www.fedesarrollo.org
- 금융연구원 : www.anif.com.co
- 전국제조업연합회 : www.andi.com.co
- 전국상인연합회 : www.fenalco.com.co
- 보고타상공회의소 : www.ccb.org.co
- 상공회의소연합회 : www.confecamaras.org.co
- Latin Focus : www.latin-focus.com/countries/colombia/colombia.htm
- www.businesscol.com
- www.colombiatrade.org
- www.comprasycontratos.gov.co

45. 금융통화제도

[금융통화제도]

[금융시스템 개황]

콜롬비아 금융시스템은 재무부와 함께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은행(Banco de la Republica)이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일반 금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는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Bancaria), 그리고 은행 이용자들에게 은행의 신뢰를 보증하는 금융보증기금 (FOGAFIN : Fondo de Garantias de las Instituciones Financieras) 등이 설치되어 있다.

[감독기관]

-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콜롬비아 금융시스템 전반 및 외환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폐발행 권한을 통해 통화공급을 조절하고, 재할인율을 통해 시중금리를 조정하며, 아울러 이자율 및 외환보유고 등을 활용, 페소화의 환율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 은행감독원

일반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권한을 보유한 정부기관으로, 금융기관 별로 1명의 감독관을 두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주요기능은 신규 금융기관의 설립허가, 제반규정 준수여부 감시 및 규정 미준수시 제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금융보증기금

금융권에 대한 저축, 투자가에 대해 정부가 신뢰를 보증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즉, 금융기관에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산을 명령하고, 직접 청산절차를 수행한다.

[은행제도]

콜롬비아 은행권에는 일반은행, 기업은행, 신탁은행, 연금관리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은행들이 존재하고 있다.

- 일반은행

일반은행은 은행감독원이 설정한 38,073백만 페소(미화 2천만 불)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콜롬비아에는 Citibank, Banco Bilbao Viscaya 등 상당수의 외국계 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주로 미국계 및 스페인계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콜롬비아 은행 중 Banco Cafetero, Banco Agrario de Colombia등 공공은행에서는 특정부문 진흥을 위해 정책금융을 취급하고 있고, 이 외 Bande de Bogota, Bancolombia등 민간은행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20여 개의 은행들이 영업 중에 있고 이들의 주 상품은 당좌계좌와 저축계좌이다.

- 기업은행, 주택은행

일반은행과 구별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은행(Corporacion Financiera)과 주택은행(Corporacion de Ahorro y Vivienda)이 있다. 기업은행은 일반 예금자로부터 주로 정기예금을 유치, 이를 기업의 투자, 신설, 확장 등 주로 경제분야에 여신을 제공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편 주택은행의 경우 일반은행 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 서민의 주택구입 및

주택신축 자금대부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주택은행의 최소 자본금 규모는 각각 11,897백만 페소(7백만불), 9,518백만 페소(5백만불)이다.

- 신탁은행

신탁은행(Sociedad Fiduciaria)은 각종 공공민간 기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로, 콜롬비아에는 신탁기금 수익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수출진흥청 (PROEXPORT)의 경우, 정부에서 초기 출자한 수출진흥기금을 신탁은행에 맡겨,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간 예산에 충당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사회보장법은 모든 근로자의 연금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월 연금납입액은 급여의 13.5%로 이중 근로자 부담은 25%, 고용주 부담은 75%이다. 정부에서는 수 개의 금융기관을 선정, 연금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연금관리은행에서 수신한 근로자의 연금 납입액은 전체 민간저축고의 40%에 이르는 30억불에 이르고 있다.

[증권시장]

콜롬비아에는 지역별로 보고타증권시장(Bolsa de Bogota, 1929년 설립), 메데진 증권시장(Bolsa de Medellin, 1961년 설립), 그리고 깔리 증권시장(Bolsa de Occidente, 1983년 설립) 등 3개의 증권시장이 설립 운영되었으나, 지난 2001년 6월 보고타와 메데진의 증권시장이 BVC(콜롬비아 증권거래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콜롬비아 증권시장 규모는 주식총액 기준 250억불 규모로 아직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시장규모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다. 콜롬비아 증권시장 거래량 기준으로 주요 종목을 보면, Bavaria(맥주, 음료), Cementos Argos, Cementos del Caribe, Cementos de Valle(이상 시멘트), Compania Nacional de Chocolate, Noel (이상 제과, 식품), Coltabaco (담배), Coltejer (직물), Cadanalco, Carulla, Exito (이상 유통체인), Avianca(항공사) 등이다.

보고타 증권시장 종합 주가지수는 1995년 755포인트에서 '97년 1,431포인트로 급등세를 보였으나, 이후 경기침체 및 환율불안의 요인으로 '98년 1,109포인트, 그리고 '99년 900포인트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콜롬비아 증권거래소로 통합되면서, 종합주가지수는 1,000포인트에서 시작되었으며, 2002년말 1,611포인트, 2003년 5월말에는 1,967포인트, 2004년 3월말에는 3,200포인트를 기록,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경제회복이 주식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6.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전체산업동향]

2001년 산업 전체의 GDP 성장률은 2000년 대비 1.39%를 기록하였다. 광업(원유생산 포함)과 금융업이 부진을 보인 대신, 수산업과 도소매업이 큰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 외 대부분의 산업이 소폭 상승하는 실적을 나타내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이전 3년간의 마이너스성장을 극복하고,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지난 99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2000년, 2001년 각각 9.7%,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부문별 성장률 추이

(단위 : %)

부문	1997	1998	1999	2000	2001
산업전체 GDP Growth	3.43	0.57	-4.2	2.74	1.39
농업,목축업 Agricultura,Ganaderia,	0.61	0.10	-0.37	4.83	2.97
수산업 Pesca	2.23	-2.55	13.97	12.37	11.40
광업 Minas y Canteras	3.69	15.59	18.47	-10.04	-8.30
제조업 Manufactureras	0.42	-0.29	-8.37	9.67	7.70
전기,가스,수도 Elec., Gas y Agua	0.96	1.76	-4.18	0.70	1.20
건설업 Construccion	2.18	-7.23	-27.00	-2.85	1.80
도소매업 Com. mayor y menor	3.50	-2.04	-17.99	12.52	10.4
호텔 및 식당 Hotel y Restaurante	-5.27	0.69	-5.63	2.92	1.40
운송,창고,통신 Trans.,Alma., Com.	5.82	2.49	-1.92	2.23	2.10
금융중개업 Interm. Financiera	4.07	-5.67	-15.31	-1.47	-3.30
부동산 Act. Inmobiliarias	5.41	1.26	0.65	2.33	3.90
공공 및 국방 Adm. Pub. y defensa	8.46	4.03	3.08	-1.61	-2.10
교육 Educacion	6.30	-4.33	3.51	-0.91	-0.52
복지 및 의료 Ser. Social y de Salud	8.54	4.85	5.94	-0.61	-0.74
기타 Otras actividades	2.34	1.57	-2.27	1.60	1.90

자료원: 통계청(DANE)

[제조업]

1992년 콜롬비아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 도입 이후 제조업은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1996년 순수 민간투자액이 10억불을 초과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1995년의 제조업 분야는 커피경기 회복, 소비재 생산증가, 유리 및 목재산업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의류 및 가족의 침체, 건축경기 하락 등의 악재가 있어 생산증가율은 3.39%를 기록하였다.

1999년 제조산업은 98년말 시작된 경기침체의 지속의 여파와 수요감소, 고금융비용, 자금회전지연, 밀수, 현지 폐소화의 30%가 넘는 평가절하, 20%를 넘는 실업률로 인한 생산라인 가동 저하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99년 중에는 석유화학, 식품, 통신 및 섬유산업만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자동차 : 콜롬비아 자동차 산업은 매년 약 9% 수준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연간 1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조립공장은 COLMOTORES(GENERAL MOTORS), COMPANIA COLOMBIANA AUTOMOTRIZ(MAZDA & MITSUBISHI), SOFASA(RENAULT & TOYOTA) 등 3개사로 콜롬비아 전체 수요의 약 50%를 조립생산하고 있다.

* 철강 : 철강산업은 80년대 연평균 7.3%성장에서 90년대에는 이의 두 배에 달하는 15%의 성장을 하고 있다. 철강제조업체는 6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은 연간 80만톤에 이르고 있다. 콜롬비아 내 철강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이 건축분야에 활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섬유 : 섬유산업은 콜롬비아 전체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콜롬비아 섬유산업은 80년대 큰 시련을 겪은 뒤 새로운 기계 도입, 디자인의 컴퓨터화, 노동력 향상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

* 식료 : 식료부문은 전체 산업의 1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담배, 음료, 식품의 대외 수출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년 평균 성장률이 9%에 달하고 있다. 음료의 경우 세계 5위의 맥주 제조회사 BAVARIA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관광업]

콜롬비아 관광산업은 만년설에서 아마존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대와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면한 지리적 위치 등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한 게릴라 집단의 준동으로 인한 치안위협, 관광자원의 개발부재 등과 같은 요인으로 관광산업은 발전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Samper 대통령 집권기간 중 마약단체와의 전쟁은 마약단체 및 반정부 게릴라단체의 대정부 테러활동을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콜롬비아의 치안불안 상황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콜롬비아를 자국민 관광자제 국가로 분류, 콜롬비아 관광산업의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치안강화를 위해 경찰력과 군대를 증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게릴라에 의한 보고타 시내 폭탄테러 이후 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고, 미국이 콜롬비아 게릴라를 테러단체로 지목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향후 치안확보의 성공여부가 콜롬비아 관광산업 발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업]

* 농업

콜롬비아의 전체농지는 약 5.3백만 HA이며 이중 1.0백만 HA에서 커피가 재배되고 있다. 1996년 말 기준, 농수산업의 산업비중은 19.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중 커피, 바나나, 설탕, 면화, 화훼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통상품인 과일, 채소, 어류 등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말 농수산업은 커피 가격회복 및 화훼류 수출증가로 1.5%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SALTO SOCIAL)으로 매년 GDP의 0.44%를 투자할 예정이다.

* 수산업

콜롬비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접하고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어족이 잡히고 있다. 95년 어획량은 80만톤으로, 이중 69만톤이 태평양 연안에서 어획되었다. 주종 수출품은 참치와 오징어이며 수산업의 GDP비중('98년 기준)은 9.12%에 달하고 있다. 어획량 증가에 따라 관련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EU지역의 GSP 대상품목으로 수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업]

1996년말 기준 광업의 산업비중은 4.4%으로 7.6%의 성장율을 기록하여 가장 성장이 빠른 산업으로 등장하였다. 원유, 철광, 니켈, 에메랄드 등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증가로 지난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GDP비중도 80년대 1%에서 최근 5%로 상승하였다.

* 석탄

GUAJIRA지역과 CESAR 인근지에서의 석탄광맥 발견으로 전망이 밝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석탄개발은 국영기업인 CARBOCOL과 EXXON, SHELL등 다수의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1996년말 기준 석탄 수출액은 849백만불이 넘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영국과 동구국가들이다. 특히 96년 들어 석탄은 수출금액기준으로 51.9% 증가하여 원유수출과 함께 경기부양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 에메랄드

콜롬비아는 세계 제 1의 에메랄드 생산국가로 세계 전체 에메랄드 수요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98년 이후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마약자금 단속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원유

1991년 CUSIANA지역의 유전발견은 콜롬비아의 장기적인 경제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원유는 콜롬비아 최대의 수출품으로 커피의 명성을 능가하고 있다. 콜롬비아 전체 원유 매장량은 2,900백만 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7년 기준 1일 원유 생산량은 720천 배럴이며 CUSIANA지역의 유전개발이 본격화되면 1일 원유 수출량은 100만배럴에 달할 전망이다. 유전개발은 국영기업인 ECOPETROL과 다수의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현재 유전개발 분야는 송유관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98년 수출액이 2,298백만불로 커피를 누르고 콜롬비아 제 1수출상품으로 부각되었다.

*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GUAJIRA, BARRANCABERMEJA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나 최근 CUSIANA, VOLCANERA 지역에서 추가로 생산되고 있으며 총 매장량이 8,300GPC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연가스는 주로 산업분야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전력부족 해결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11백만불을 투자할 전망이다. 96년말 기준 가스생산량은 502mpcd이며 2000년까지 740mpcd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 산업]

콜롬비아의 에너지 생산량은 10,079 mw이며 이중 70% 이상이 수력에 의존하고 있어 기후 조건에 따라 심각한 에너지를 겪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의 외국투자 제 1순위 부문이며 정부의 투자유치 계획 지속에 따라 향후 수 년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4년 수력발전 의존율을 60%로 감소시키기 위한 2,500KW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 착수 및 1일 20만 배럴규모의 CUSIANA 유전에서 원유 본격 생산시작으로 동 분야는 가장 전망이 밝은 분야로 꼽히고 있다.

2010년까지 현재 에너지 생산량을 1천만 KW에서 2천만 KW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26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국영발전소의 효율성향상을 위하여 CHIVOR, BETANIA 발전소를 칠레에 매각하였으며, TERMOTASAJERO, TERMOCA-RTAGENA 등을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다.

47. 주요산업동향/광업

[개 황]

2002년말 기준 광업의 산업비중은 5.75%으로, 2002년 광업분야 경제성장률은 11.51%를 기록, 전체 경제성장률 8.25% 달성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최근 콜롬비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산업으로 등장하였다. 원유, 철광, 석탄, 니켈, 에메랄드 등 천연자원의 국제시세 상승으로 인해 향후 이러한 질주는 계속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석탄 : GUAJIRA 지역과 CESAR 인근지에서의 석탄 광맥발견으로 전망이 밝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석탄 개발은 국영기업인 CARBOCOL과 EXXON, SHELL 등 다수의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네델란드이며, 특히 2002년도 9.9억불 수출된 것에 비해 2003년에는 이보다 43.5%나 증가한 14.2억불을 기록하여, 원유수출과 함께 경기부양 부양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에메랄드 : 콜롬비아는 세계 제1위의 에메랄드 생산국가로 세계 전체 에메랄드 수요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98년 이후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마약자금 단속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에메랄드 거래소 창설 등 상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메랄드의 국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석가공학교를 설립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에메랄드 생산량이 급감하였으나, 이는 매장량 부족이 아닌 광산업자 간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유: 1991년 CUSIANA 지역의 유전발견 이후, 콜롬비아의 원유개발은 경제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GIBRALTA 지역의 유전발견이 공식으로 확인되면서, 원유는 콜롬비아 최대의 수출품으로 커피의 명성을 능가하고 있다. 콜롬비아 전체 원유 매장량은 2,900백만 배럴로 추정되고 있다. 유전개발은 국영기업인 ECOPETROL과 다수의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현재 유전개발 분야는 송유관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03년 수출액은 국제원유가의 호조로 2002년보다 3.3%가 증가한 33.8억불을 기록, 전체수출물량의 26%를 기록, 콜롬비아의 수출품목 1위의 자리를 굳혔다.

천연가스 : 천연가스는 GUAJIRA, BARRANCABERMEJA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나, 최근 CUSIANA, VOLCANERA지역에서 추가로 생산되고 있으며 총 매장량이 8,300 GPC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연가스는 주로 산업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전력난 해결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11백만불을 투자할 전망이며, 가스관 증설을 통해 베네주엘라로의 수출도 추진 중에 있다.

기타광물 : 콜롬비아는 남미 최대 니켈생산국이며 중남미 전체에서는 쿠바,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어 세 번째다. 세로마토소(Cerromatoso) 광산은 세계 최대 철니켈(Ferroniquel) 광산의 하나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2%를 공급한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은 4,280만 톤으로 품위는 Ni 2.38%이다. 이는 향후 30년 이상 수출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하다. 철광의 수출량은 2002년 2.7억불에서 2003년에는 3.9억불로 44.6%가 증가하였다.

콜롬비아는 세계8위, 남미 2위의 금 생산국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은 개발가능성이 높아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주요 철물 부존량 >

구 분	단 위	매장량
석탄	백만톤	6,636
석유	억배럴	28
천연가스	1조m ³	7.6
철광석	백만톤	150
은	백만톤	320
니켈	백만톤	42.8
보크사이트	백만톤	465
금	온스	0.45
유황	백만톤	3
인광석	백만톤	52
염	백만톤	300
석회석	백만톤	200

(자료원 : 에너지자원부)

[주요 광업진흥정책]

정부는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키 위해 기존의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조항을 완화했다. 1990년 가비리아(Cesar Gaviria)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한 환율결정,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보장 및 외환거래 절차의 간소화, 수출입관련 외환통제의 철폐 등 과감한 외환자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대외거래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정부는 92년 법령 9호와 중앙은행령 6호를 통해 석유부문 투자기업에 대해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석유부문 기업은 투자원금 및 이익회수 목적으로 수출을 통해 수취한 외환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내로 반입할 의무가 없다.

천연가스부문의 투자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3개월 수입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외환거래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91년 법령 9a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조세안정특별시제도를 제정, 투자자가 현행 소득세보다 2% 높은 세율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세제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계약시점과 동일한 세율을 보장 받게 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석탄산업 육성을 위해 석탄을 이용하여 화력발전을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종합적인 광산개발을 독려키 위해 95년 법령 10호를 제정하여 광산부 차관직(Viceministro del Minas)을 신설하여 국가광산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Minero)을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국가광산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컨설팅 회사에 ① 광업법 개혁, ② 광업제도부문 개혁, ③ 광산투자분석, ④ 광산부문 인프라분석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자문을 의뢰,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다.

[광업 발전 전망]

국제사회에서 콜롬비아는 광업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량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남미 광업부문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힘입어 콜롬비아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콜롬비아 전체 외국인투자액 20억불 중 광업부문의 비중은 원유가 18%인 3.8억불, 광산분야는 23%인 4.6억불을 기록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인 광산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남미국가들에 비해 ① 거시경제적 안정을 포함, 장기투자의 안정적 환경, ② 상대적으로 강력한 제도적 규제 능력, ③ 귀금속, 니켈, 석탄 산업의 기반이 튼튼, ④ 안정적이고 공고한 민주주의 제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콜롬비아 광업법은 소규모 광산업체에 유리하게 제정되어 온 반면에 중, 대규모의 광산업체에게는 광산권 획득을 허용할 뿐이며, 칠레,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 등의 국가들에 비해 계약이 엄격하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콜롬비아가 앞으로 광업국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이 지적하는 법적 제도적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8. 주요산업동향/교통,관광업

[개 황]

콜롬비아는 험준한 안데스 산맥이 적도를 지나는 지역에 위치, 아마존에서 만년설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의 천혜의 휴양지인 카리브해와 접해 있어 관광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력 부족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미흡, 그리고 산악 및 정글지역에 포진한 게릴라의 위협 등으로 관광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태에 있다.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카리브 해안지역으로, 카리브 해안을 따라 백사장과 호텔이 펼쳐져 있는 Santa Marta, 스페인 정복대의 중남미정복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여 오래된 성벽과 많은 유적지가 남아있으며,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Cartagena, 그리고 Nicaragua와 영유권 분쟁이 잠재된 상태에서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는 San Andres 섬 등이 주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 6개 주를 포괄하는 방대한 지역에 아마존 정글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아마존 지역은 남한의 4배에 이르는 403,000Km로 콜롬비아 국토와 비교해서도 35%에 이르고 있다. 아마존강 유역은 지구의 허파로 비유될 정도로 태고의 자연이 보존되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방출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국경이 접한 아마존 상류지역은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동식물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출전략]

콜롬비아는 카리브연안과 아마존지역을 중심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릴라와의 내전 및 항공노선의 불안 등을 인해 내.외국인에 대한 관광산업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 특히 마약과 연루된 게릴라들은 주요 도로를 수시로 봉쇄하여 내국인조차도 자동차여행은 꺼리고 있으며, 마약재배지역인 밀림지역 상공을 운행하는 비행기 노선의 경우 미국 및 콜롬비아 정부군의 마약단속정찰기로 오인되어 가끔 격추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러한 콜롬비아의 불안정한 이미지가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콜롬비아 관광청은 우선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우선과제로 내전종식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와 국민의 노력 및 반군과의 평화협상과정을 적극 대외에 홍보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주요관광지별로 패키지상품은 연령층, 관광목적 등에 따라 개발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향후 콜롬비아의 정세안정에 따라 관광산업의 개발여지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호텔 및 요식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신중히 검토해 볼만 하다.

자국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콜롬비아는 매년 “VITRINA TURISTICA DE ANATO”라는 관광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각종 여행사, 관광진흥기관, 주요호텔 및 관련업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 콜롬비아 관광투자에 관한 중요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주요 호텔]

1. HOTELES DECAMERON COLOMBIA
Add: Cra 11 a No 89-10 Of 301
Tel: 571-6235582 / 6235567
Fax: 571-6164785
Attn: Carlos Julio Kelman
Web: www.decameron.com/hoteles
2. GERMAN MORALES E HIJOS
Add: Calle 75 No 6 - 62
Tel: 571-3470099 / 3459361
Fax: 571-3459363
Attn: Nancy Reyes
E-Mail: gmdvtas@colomsat.net.co / gmdventa@colomsat.net.co
Web: www.hsinu@monteria.cetcol.net.co / hotelasierra@compunet.net.co
3. HOTEL SANTA CLARA SOFITEL CARTAGENA
Add: Calle 94 a No 13-08 Of 102
Tel: 571-6113499
Fax: 571-6228296
Attn: Jorge Palomino
E-Mail: hvictormv@colomsat.net.co
Web: www.sofitelvictoriaregia.com / www.hotelsantaclara.com
4. HOTEL IROTAMA
Add: Cra 9 No 80-15 Of 201
Tel: 571-2174311
Fax: 571-2100616
Attn: Antiar Alviz
E-Mail: irotamah@openway.com.co
Web: www.irotama.com.co
5. HOTELES CHARLESTON S.A.
Add: Cra 7 No 69a - 22
Tel: 571-3123757 / 3123747
Fax: 571-3123784
Atn: Carmen Gonzalez
E-Mail: info@hoteles-charleston.com
Web: www.hoteles-charleston.com
6. HOTELES DANN LTDA
Add: Calle 94 No 18-85
Tel: 571-2366236
Fax: 571-6108879
Attn: Amanda Sanchez

E-Mail: reservas@organizaciondann.com.co

Web: www.organizaciondann.com.co

7. AVIATUR

Add: Av. 19 No 4-62

Tel: 571-2865555

Fax: 571-2830141

Attn: Maria Eugenia Rey

E-Mail: aviatur@impsat.net.co / aviatur1@openway.com.co

Web: www.aviatur.com.co

8. TIERRA MAR AIRE

Add: Cra 7 No 35-20

Tel: 571-2882088

Fax: 571-2855558

Atn: Nubia Rodriguez

49.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개 황]

콜롬비아의 전체농지는 약 5.3백만 HA이며 이중 1.0백만 HA에서 커피가 재배되고 있다. 2002년 말 기준 농수산업의 산업비중은 13.8%로, 제조업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중 커피, 바나나, 설탕, 면화, 화훼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 전통상품인 과일, 채소, 어류 등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말 농수산업은 커피 가격회복 및 화훼류 수출증가로 6.94%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SALTO SOCIAL)과 향후 미주자유무역지대 출범에 대비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년 GDP의 0.5%를 투자할 예정이다.

수산업 관련 콜롬비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접하고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어족이 잡히고 있다. 어획량은 평균 80만톤으로 이 중 69만톤이 태평양 연안에서 어획되고 있다. 주종 수출품은 참치와 오징어이다.

어획량 증가에 따라 관련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EU지역의 GSP 대상 품목으로 수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된다.

커피 : 콜롬비아 커피산업은 세계커피협정의 붕괴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동 협정붕괴에 따른 커피가격 하락으로 1.1백만 헥타르의 농지와 30만명의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콜롬비아 커피수출은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커피의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1998년말 기준 수출액은1,891백만불로 97년 대비 -16.2%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수출 1위 자리를 원유에 내주었다. 한편, 세계 최대 커피 수입국인 미국은 마약재배농가 확산을 막고, 이들 농가가 커피를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4년에는 세계커피기구에 재가입하고, 커피가격 인상을 주도할 계획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바나나 : 콜롬비아는 세계 3위의 바나나 생산국가로 생산지는 카리브연안 지역에 43.9천 헥타르에 달하며, 2003년 수출액은 4.2억불을 기록, 전년대비 3.5%가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미국과 벨기에이다. 바나나의 일종인 PLATAN0의 경우 세계 제1위 수출국이며 매년100% 이상씩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화훼 : 콜롬비아의 화훼산업은 미국의 ATPA협정에 의해 급성장 하였으며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화훼 수출국가가 되었다. 수출화훼류는 카네이션, 장미, 국화로,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미국과 EU국가이며, 양지역은 모두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받고 있어 수출이 용이한 지역이기도 하다. 2003년말 수출액은 6.8억불로, 전년대비 1.4%가 증가하였다. 콜롬비아의 화훼산업은 보고타 인근지의 유리한 기후조건과 미국과 EU시장에 대한 용이한 진출조건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1996년 콜롬비아는 세계화훼시장의 10%를 공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출비중이 콜롬비아 전체의 5.3%를 차지할 만큼 화훼산업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기관 및 회사]

1. INCUBADORA DEL ORIENTE S.A.

ADD :CALE 46, 21-27, BUCARAMANGA.

TEL : (577) 6334844

FAX : (577) 6339768

E-MAIL: incbga@col1.telecom.com.co

CONTACT : LUIS CARLOS CAJAMARCA

RMK: 양계전문 수입 및 유통

2. INCUBADORA SANTANDER S.A.

ADD : CARRERA 28, 53-58, BUCARAMANGA

TEL : (577) 6430036

FAX : (577) 6435190/6479664

CONTACT : GABRIEL ENRIQUE GUERRERO

e-mail: mercadeo@incusan.com

RMK: 양계전문 수출

3. COLOMBIANA DE INCUBACION ? INCUBACOL S.A.

ADD : CALLE 37, 14-46, BOGOTA.

TEL : (571) 3382655

FAX : (571) 3383958

CONTACT : CESAR CAMARGO

CARGO: GERENTE GENERAL

e-mail: incubac@latino.net.co

RMK: 양계전문 수출, 사료 수입

4. C.I. BANANOS DE EXPORTACION S.A. ? C.I. BANADEX S.A.

ADD : CARRERA 44, 15-SUR-31. MEDELLIN.

TEL : (574) 3133311

FAX : (574) 3130022

CONTACT : CHARLES KEISER / RENAN HARARI

기타: 바나나전문 수출, 화학비료 등 수입

5. UNION DE BANANEROS DE URABA S.A. ? C.I. UNIBAN

ADD : CALLE 52, 47-42, ED. COLTEJER, PISO 15, MEDELLIN.

TEL : (574) 5115540

FAX : (574) 5118786

CONTACT : JUAN DAVID ALARCON

E-MAIL: info@uniban.com.co

WEB SITE: www.turbana.com

RMK: 바나나 전문수출

6. C.I. BANACOL S.A.

ADD : CALLE 26 SUR, 48-12, ENVIGADO.

TEL : (574) 3321166

FAX : (574) 3320053

E-MAIL: jquijano@ntbanacol.banacol.com.co

WEB SITE: www.banacol.com

CONTACT : JUAN DIEGO QUIJANO LLANO

RMK: 바나나 전문수출. 옥수수전분, 각종 사료 수입

7. MULTIFLORA S.A.

ADD : CALLE 75, 11-60, BOGOTA.

TEL : (571) 3130603 / 0614

FAX : (571) 2118378

E-MAIL: silvia@multiflora.com

WEB SITE: www.multiflora.com

CONTACT : ANDRES TORO

RMK: 화훼류 전문 수출

8. SUN FLOWERS S.A.

ADD : CARRETERA A SUBA ? COTA, KM 3, CUNDINAMARCA.

TEL : (571) 6814032

FAX : (571) 6815348

CONTACT : MOISES CROITORU

RMK: 화훼류 전문수출, 각종 비료 수입

9. COMERCIALIZADORA INTERNACIONAL VIKINGOS S.A.

ADD : ZONA INDUSTRIAL MAMONAL, KM3, SECTOR ALBORNOZ,
CARTAGENA.

TEL : (575) 6685028/21/119

FAX : (575) 6685677

E-MAIL: vikingos@ctgred.net.co

WEB SITE: www.vikingos.com

CONTACT : GERENTE GENERAL

RMK: 각종 수산물 가공 전문

10. LA FEDERACION NACIONAL DE CAFETEROS DE COLOMBIA

President: JORGE CARDENAS GUTIERREZ

Add: Calle 73, 8-13, Bogota.

Tel: 571-3456600/1088

Fax: 571-2171021

E-mail: cafe@cafedecolombia.com

Web Site: www.cafedecolombia.com

Ano de Fundacion: 1927

Empleados: 2800

RMK: 콜롬비아 커피의 대외홍보, 품질검사 등 주관

[진출전략]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농업의존형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지형학적으로 복합적인 기후를 보유하고 있어 일년 내내 농작물 수확이 가능하다. 또한 오랜 경험과 숙련된 노동력은 이러한 기후적인 장점과 함께 콜롬비아가 농업중심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콜롬비아의 농업생산구조는 전근대적인 영농구조를 탈피하지 못하여 생산성 면에서는 매우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WTO에 따라 농산물을 비롯 세계교역상품의 수입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에서 콜롬비아의 농업구조 및 생산품목 우위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시급히 요구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와 관련, 자국의 낙후된 영농구조의 개선 및 생산성향상을 목적을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주요 장려책은 다음과 같다.

- 농산물 중 쌀, 화훼 그리고 수산업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며, 이와 관련한 부문에 세제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 콜롬비아는 미국 및 EU로부터 농산물 수출시 관세혜택을 부여받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 현재 낙후된 농업기계 등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한 각종 농기계의 대 콜롬비아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해 볼 필요가 있다.

50. 주요산업동향/석유화학산업

[개 황]

원유는 콜롬비아 최대의 수출품으로 커피의 명성을 능가하고 있다. 콜롬비아 전체 원유 매장량은 2,900백만 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7년 기준 1일 원유 생산량은 720천 배럴이며 CUSIANA지역의 유전개발이 본격화되면 1일 원유 수출량은 100만 배럴에 달할 전망이다. 유전개발은 국영기업인 ECOPEPETROL과 다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현재 유전개발 분야는 송유관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수출물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2003년 수출액은 국제 원유가의 호조로 33.3억불을 기록, 전년대비

3.3%가 증가하였다. 또한, 석유부문의 지속적인 개발 및 수출로 관련산업도 병행하여 발전하고 있다. 특히 PET를 중심으로 한 플라스틱 원·부자재 분야의 성장이 주목되고 있다.

[석유산업진흥정책]

정부는 쿠시어나 유전의 생산개시에 따른 석유수입의 안정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석유안정기금을 창설했다. 동 기금은 매년 석유로부터 얻은 수입의 43%를 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해외에 적립(97~2001년까지 총액 약 21억 달러, 내역 : 국영석유회사(ECOPETROL)의 수입 14억 달러, 석유 7억달러), 2002~15년까지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인 바, 해외기금송금은 국영석유회사가, 기금운용은 중앙은행이 관리키로 했다

콜롬비아는 석유탐사, 생산에 있어 어소시에이션 계약(Association Contract)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동 계약은 ① 양허제도에 대한 로열티 지불 ② 생산의 경우 생산물분배법 ③ 합작투자일 경우 국영석유회사 (Ecopetrol)가 개발비용의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등 복합적인 계약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형태는 지난 70년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동계약 형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탐사 6년, 생산 22년 등 2단계로 나뉘어 총 28년이다. 그러나 국영석유회사(Ecopetrol)와 계약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탐사단계에서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만으로 탐사를 수행하며 탐사유전이 상업성을 띠 때 국영석유회사(Ecopetrol)는 탐사비용의 50%를 계약 당사자에게 환불하며, 신유전개발 투자에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어 있다.

조세제도의 경우 정부는 최근 소득세에 대한 25%의 부과세를 폐지했으며 95년 이후 발견된 유전에 대해 특별세를 폐지했다. 마찬가지로 현행 12%의 송금세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98년에는 7%로 인하하였으며, 5년간 이윤을 재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송금세를 면제한다.

[진출전략]

콜롬비아의 원유산업은 국민총생산의 4.5%를 차지하는 중요산업이며, 수출비중도 상당히 커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콜롬비아 국영석유기업인 ECOPETROL은 최근 인터넷에 자체 홈페이지 (www.ecopetrol.com.co/ronda2000)를 개설 콜롬비아 석유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플라스틱 수요는 포장 및 음료부문, 건설, 농업 및 각종산업용에 계속 확산되고 있어 동 분야로의 수출여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베네주엘라 다음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밀도 0.94 이상제품)제품을 콜롬비아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베네주엘라의 경제위기로,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경우는 ECOPETROL (콜롬비아국영석유회사)이 내수시장의 50%를 공급하고 있으나, 평균수입 가격을 훨씬 웃돌고 있어 동 관련제품에 대한 집중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51. 주요산업동향/자동차산업

[개 황]

콜롬비아의 자동차 수요는 연간 10만대 내외로서 자국생산 자동차가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수입자동차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콜롬비아 자동차 산업은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현지 조립·생산하고 있는 단계이며 GM의 현지 회사인 Colmotores사('98년 매출 US\$5억3천만)와 Mazda와Mitsubishi가 공동출자한 Compania Colombiana Automotriz사('98년 매출 US\$2억 7천만) 그리고 Renault과 Toyota가 공동출자한 Sofasa사('98년 매출 US\$2억 6천만)등 3개사가 있다. 3개사가 생산한 자동차 중 일부는 베네수엘라등 인근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자동차 산업은 외국자동차회사의 현지 조립에 불과하며 부품사업 역시 발달하지 못한 단계이며 기존 설비 가동율도 매우 낮아 외국산 자동차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현재 한국산 자동차(택시)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 조사에 착수 중이다.

현재 콜롬비아 자동차 생산회사의 생산성이 낮아 값싼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산 수입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립업체들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실업이 증가하자 콜롬비아 정부는 자동차 수입을 규제하려는 추세이다. 콜롬비아는 자국산 자동차 산업보호를 위해 당분간 수입을 규제하여 자동차 산업에서의 실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자동차 판매통계]

(단위: 대)

구분	2002	2003	증가율	점유율
현지생산차량	61,667	69,067	11.99%	73.55%
수입차량	30,165	24,826	-17.69%	26.44%
합계	91,832	93,893	2.24%	100.00%

현지생산차량	2002	2003	증가율	점유율
Chevrolet	29,955	33,404	11.51%	48.36%
Sofasa (Renault y Toyota)	17,988	21,425 (르노16,947 도요타4,478)	19.10%	31.02%
CCA (Mazda)	13,724	14,238	3.74%	20.61%
현지생산 합계	61,667	69,067	11.99%	100.00%

수입차량	2002	2003	Var%	Sh%
현대	6,406	7,308	14.08%	29.43%
Ford	2,303	2,769	20.23%	11.15%
기타	21,456	14,749	-31.25%	59.40%
수입차량 합계	30,165	24,826	-17.69%	100.00%

정보원: Econometria Statistics.

[진출전략]

콜롬비아에 대한 외국 자동차 회사의 투자진출은 성공실패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콜롬비아가 자동차 수입을 허가제로 할 당시에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으나 수입 자유화로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자 설비 가동율이 떨어지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진출은 현대와 기아가 현지인 에이전트를 통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지 우리나라 자동차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20% 이상이며 수입자동차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일반자동차는 수입관세가 35%인데 비해 택시는 수입관세가 15%로 낮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서, 한국산 자동차가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자 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이다. 또한 2000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사전 국제안전규격획득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52.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종류

콜롬비아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 및 저작권기구(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s de Autor) 등을 두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서적, S/W 등 제품의 경우 고가의 정품을 사용하는 관행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상가 및 대학 주변 등에서 복사본 서적 및 S/W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저작권

콜롬비아의 저작권 보호는 예술작품, 저서, S/W 등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 23호(1982), 법률 44호(1993), 그리고 안데안협정 351호 등으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S/W의 경우 정품사용자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백업본 1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사항은 아니나 저작권기구에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기업부문에 적용된 지적재산권으로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호, 상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안데안협정 344호(1993), 대통령령 117호(1994)로 규정되어 있다.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기간 중 관련인사의 조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될 것에 우려, 콜롬비아

상공위원회(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으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0년간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상호, 상표권의 경우도 상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10년간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구 사과”와 같이 특정지역 상품이 타지역 상품보다 탁월한 품질을 갖고 있을 경우, 동지역, 동제품 생산자들에게 상호 및 상표에 해당 지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 또한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분류된다.

53. 소비자보호

[소비자 보호]

콜롬비아 소비자 보호법은 1982년 법령 346호에 법적 토대를 두고있다. 동 법률은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시 적정품질을 유지하고,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 소비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등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경제주체에 제품의 품질유지 및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약품,통신장비 등 국민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부문별로 별도 승인기관을 통해 사전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 시판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서 품목별 적정품질을 판정토록 하고 있다.

개별 등록 및 승인기관 및 상공위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관할 상품을 수거, 품질 및 규격 등을 검사, 등록 당시 승인받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상품의 포장에 있어서도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제품, 제품용기, 라벨 등에 소비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삽입토록 하고 있으며, TV등 광고매체에 과대선전 또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무지로 고가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약품 류의 경우 최고가격을 포장에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보면, 우선 공식적으로 품질 및 규격등록이 요구되는 품목의 품질미흡이 적발되면 최저임금의 1~100배 벌금부과, 품질개선 가능시까지 영업중지, 1차 처벌을 받고 2년 이내에 다시 적발시 영구 생산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여타품목의 경우 상공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정상적인 상품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거나, 표시된 함량 등이 미달될 경우 최저임금의 5~150배 벌금부과,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상표, 상호, 광고 내용 등이 실제 상품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54. 수입관리제도

[수입관리제도]

[수입관리제도개황]

콜롬비아는 1991년부터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시장을 개방하여 밀무역에 의한 만성적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건실한 경제의 구축을 지향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의 인하, 통관 및 대외지불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한 역외 공동관세 및 역내 관세 철폐를 위한 통상외교도 활발히 전개하여 관세의 구조와 관세율을 ANDEAN 경제통합의 구도로 맞추어 가고 있다.

현행 콜롬비아의 수입관리는 기본적으로 NEGATIVE SYSTEM을 지향하고 있으며, 상품의 분류는 HS CODE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리의 주무기관은 대외무역부 산하의 대외무역청(INCOMEX: INSTITUT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이며,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 산하의 세무관세청 (DIAN: DE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에서 관장하고 있다. 즉, 수입관리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대외무역부가,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관리 체계이다.

콜롬비아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수입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관리제도는 사전 수입면허발급 및 특정품목에 대한 인허가가 있으며, 일반상품의 경우 수입면허를 발급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함으로써 수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96년 2월부터 실시된 선적전 사전검사제도는 검사결과에 대한 효과감소 및 통관 간소화를 위해 `99년 8월 폐지되었다.

[수입면허를 통한 수입관리]

일반상품 수입시 대외무역청(INCOMEX)에 수입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정양식에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신고하여 수입면허(Licencia de Importacion)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수입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은 수입상은 해당상품을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수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대외무역청에서는 수입면허 발급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수입면허 제도의 주목적은 쿼터적용 상품의 수량제한 및 수입규제 상품의 반입여부 등을 감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수출국의 덤핑, 수입상의 Under Value 등을 감시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간혹 대외무역청에서 수입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수입상의 Under Value 시 대외무역청에서 신고가격과 기준가격을 비교, 신고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수입인증(Certification) 제도]

한편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기관에 위생, 안전성,

규격인증 등을 인증받아야 하며, 이들 품목의 수입시 인증서 사본을 대외무역청에 첨부하여야 수입면허가 발급된다.

수입인증의 대상은 수입상이 아닌 수입상품으로서 결국 외국의 수출업체가 신청주체가 된다. 수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규격증명서, 수출국에서 자유시판 인증서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며, 아울러 규격검사, 안정성 검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1회 인증을 받아두면 해당 인증서 사본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아울러 수출업체에서 다른 수입업체에 수출시에도 인증사항의 일부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수입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수입거래시 수출상은 필요 서류를 지원하고, 콜롬비아 수입상이 자사 비용부담하에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한 수입상의 손실은 물품 가격에 반영, 일정기간 독점권부여 등 거래조건에서 상쇄해 주고 있다.

[수입규제 품목]

* 다음 품목은 국가방위산업용 목적 이외에는 수입불허

HS CODE	품명	HS CODE	품명
2804.70.0020	황인	3102.30.0000	질산 암모늄
2834.29.0010	질산 암모늄	3102.50.0000	질산 나트륨
2834.21.0000	질산 칼륨	3102.60.0000	질산 칼륨
2834.29.0090	질산 모노메틸미아	3912.20.0000	질산 섬유소
2929.19.1000	염소산 칼륨	3601 류 전체	화약
2904.20.1000	니트로 톨루엔	3602 류 전체	폭약
2904.20.9000	니트로 셀룰로스	3603류 전체	도화선, 도폭선, 뇌관 등
2904.90.0000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93류 전체	무기, 총포탄 및 부분품
2904.90.1000	니트로크로트 벤젠	95류 일부	무기성 장난감
2904.90.2000	팰스리이트		

[사전 수입인증 대상품목]

전 수입승인 대상 품목	승인 주무기관
1960제작 또는 363천KLS이상	운항항공기 항공협회(AERONAUTICA CIVIL)
야생동물 및 그 생산품	환경부(MIN. DEL MEDIO AMBIENTE)
식품,음료,화장품 등 보건위생 관련품	보건부(MIN. DE SALUD)
화약,총포류	국방부
동물 생산품, 가축약품, 사료	농수산연구소(ICA), 보건부
채소로 만든 원료,농업용 생산품	농수산연구소, 보건부
마약류 및 환각성 화학 제품	보건부, 마약위원회
대중수송용 차량	교통부
휘발류 등 연료	광업부

[수입절차 개요]

1. 수입허가 취득 : [수입업체] [대외무역청]
 I/L 신청 —————>
 <————— I/L발급
 I/L 발급 소요기간 - 수입자유품목 ; 1 - 2일
 사전승인품목 ; 10 -15일
 I/L 유효기간 - 식료품 : 3개월, 일반상품 : 6개월
2. 대금결제 : [수입업체] [은행]
 L/C개설 신청 —————>
 (I/L 첨부)
 통관신청후 3개월이내 결제
3. 통 관 : [수입업체] [세 관]
 통관신청 —————>
 (I/L,PACKING LIST,INVOICE,B/L 첨부)

자료원 : 대외무역청 (INCOMEX: INSTITUT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세무관세청 (DIAN: DE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55. 관세제도

< 관세제도 >

<관세제도 개황>

콜롬비아는 안데안 공동시장(Comunidad Andina)의 일원으로서, 안데안 대외공통관세에 준하는 4단계 관세율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 이다. 관세산정 방식은 종가세(AD-VALORE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부과기준은 CIF가격이다. 콜롬비아의 품목군별 관세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관세율	대상 품목
기본체계	0%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5%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동물 및 식물
	10%	국내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산동물 및 식물 일부
	15%	국내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예 외	35%	승용 승용차
	15%	화물 승용차
변동관세		농산물

한편 관세의 종류로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상기 4단계 관세율 적용을 받는다. 특혜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한 주요 경제협정 및 이에 따른 특혜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LADI 특혜관세 :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ALADI(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임.
국가별 관세할인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0.88/ 볼리비아:0.86/ 에콰아돌:0.72/ 파라과이:0.66/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우루과이:0.08 등이다.
- ANDEAN 특혜관세 : 안데안공동시장(베네수엘라, 에콰아돌, 볼리비아, 페루)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ANDEAN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품목에 0% 관세율이 적용되나, 국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G-3 특혜관세 : GRUPO DE LOS TRES(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로, 품목별로 특혜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주요품목별 관세율>

관 세 율	품 목
5%	VCR, 전자오븐, 헤어드라이, 전자부품, 기계류, 컴퓨터, 교환기
10%	철강판, 사출성형기
15%	타이어, 튜브, 섬유사, 케이블
20%	TV, AUDIO, 혼방직물, 신발,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 사무용품
35%	이상 승용차

*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재정적자 보완정책 등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는 수입품목의 관세를 1.2% 상향 조정하는 안을 국회에 계류중임.

56. 통관절차

<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개요>

외국에서 콜롬비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모두 보세구역 입고 및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콜롬비아 통관절차는 크게 보세창고입고 -> 수입신고 -> 관세납부 -> 세관검사 -> 출고의 과정을 거치며, 과거에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이 통관주체가 될 수 있었으나, '99년 8월부터 반드시 통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화주 및 대리인이 수입신고서(Declaracion de Importacion) 양식을 세관에서 구매하여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99년 8월부터 수입신고서 양식사용을 폐지하고 전산망을 통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관사협회(SIA: Sociedad Intermediaria Aduanera) 소속 통관사에게만 고유코드를 부여, 동 전산망에 접근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접근코드가 없는 일반인 및 기업은 자체 통관이 봉쇄된 상태이다.

한편, 일반 수입상품의 통관기한은 물품도착 후 2개월 이내이며, 2개월 이내 통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창고이용료 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콜롬비아에서 통관절차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2-3일이면 가능하나, 현지 통관사들조차도 콜롬비아 통관절차를 Tramtologia(통관학)로 부를 정도로 관료주의, 무원칙 등이 만연, 통관사를 고용하더라도 1주일 이상은 기간을 잡아야 한다.

<수입신고>

수입물품 통관절차는 수입신고에서 시작되며, 통관사협회 전산망을 통해 필요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에 기재되는 사항은 수입상 상호 및 주소지, 수입목적, B/L 번호, 물품내역, 물품의 상품코드, 수량, 단가, 중량, 보험료 및 운송비, 원산지, 납부세액 등이다.

전산망을 통한 수입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세관에서는 접수결과를 통보하며, 이때 전산입력 내용을 출력하면 이것이 수입신고서 역할을 하게 된다. 만일 기재사항 미비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 세관에서는 동 신고서를 반송시키며, 재입력을 요구한다.

<관세납부>

수입신고 후 접수통보가 오면 입력내용을 출력하여 여기에 기재된 세금과 부가세(16%)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달러로 기재된 세금을 당일 시장대표환율로 폐소화로 환산하여 세관 에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 납부기한은 물품도착 15일 이전부터 도착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물품검사 및 출고>

관세납부가 끝나면 수입신고서(전산출력물) 및 관세납부증명서와 함께 제반 수입서류(상업송장, 운송서류, 원산지증명, Packing List, 위생증명서 등 품목에 따라 소요되는 기타서류)를 보세창고에 제출, 물품인도를 요청한다.

보세창고에서는 사전에 해당 수입신고서를 전산망으로 접수받으며, 전산 임의추출에 의해 물품검사 대상여부가 같이 통보된다. 물품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이 수입서류와 물품을 일일이 대조하는 실물검사를 거치게 되며, 비검사 대상물품의 경우 실물검사 없이 바로 출고가 허가된다.

57. 유통구조

<유통구조>

<유통구조 개황>

콜롬비아 시장의 유통구조는 일반적으로 생산자(수입상)->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전형적

경로로 유통되어 왔다. 과거 수입이 규제되어 있을 때는 외국상품 유통업체들이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며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근래에는 유통비용을 줄이려는 생산자와 소매상의 노력으로, 생산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직수입을 추진하는 등, 중간 유통단계를 배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매유통>

유통구조 단순화 추세에 따라 일반상품을 중심으로 도매유통망이 점차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생산자(수입상) 및 소매상의 유통단계 축소노력 이외에도, 환율변동, 인플레이, 금융비용 상승 등 창고를 보유해야 하는 도매상의 영업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매유통의 기능을 수입상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수입물품을 창고에 저장해두고, 판매사원을 고용, 소매상 방문판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소매유통>

상공회의소 등록기준 도소매상은 10만 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중 16%가 도매상, 84%가 소매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보고타 시내 주요 도로변 또는 상가건물 등에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료품, 가정용품의 경우 유통단계를 단축시킨 슈퍼체인, 하이퍼마켓 등이 일반 소매상의 영역을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은 식음료, 가정용 청소용품, 기호품 등 이외에 최근에는 철물, 자동차용품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보고타 시내에서 발견되는 주요 슈퍼마켓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

기업형 - MAKRO, LEY, EXITO, CARULLA, OLIMPICA, POMONA

조합형 - CAFAM, FEBOR, COLSUBSIDIO(CUNDINAMARCA주), CONFABOY(BOYACA주)

- 쇼핑센터

보고타 - SANTA BARBARA, UNICENTRO, BULEVARNIZA, GRANAHORRAR METROPOLIS

깔 리 - PASAJE, ALFEREZ REAL

메데인 - SANDIEGO, OVIEDO

- 전문상가

PALOQUEMAO(철물류), 7 DE AGOSTO(자동차 부품), RESTREPO(신발, 가죽제품),
SAN ADRESITO, HOME CENTER(가정용품), CORABASTOS, PLAZAS DE MERCADO(농수산물),
UNILAGO(컴퓨터제품), PARALELA(가구), MONSERATE(예술품)

<수입품 유통구조>

수입상품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입상->도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안경테, 여성용 액세서리 등 일부 품목별로 소매상들의 유통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직수입 등 유통구조 단축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타 시내에 안경점을 2~3개 보유한 상점주인은 수입상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기보다, 연간 1~2차례 마이아미 등 미국출장 또는 여행을 이용, 자사 판매물량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9년 경제위기 이후, 마이애미나 파나마를 통해 수입하던 관행이 해외 제조업체로부터의 직접 수입으로 바뀌고 있다.

58. 국제입찰제도

< 국제입찰제도 >

<입찰기관>

콜롬비아에서는 정부예산 및 외국차관, 부문별 산업진흥 기금 등을 통해 설비매입 입찰, 공사입찰 등이 발주되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기업에서도 대규모 상품구입시 입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참여할 만한 규모의 입찰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발주되고 있다. 주요 입찰기관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통신, 상하수 등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 그리고 각종 조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찰제도>

콜롬비아는 외국기업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경우 콜롬비아 법인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발주입찰에 외국기업이 참가할 경우 콜롬비아 업체를 입찰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한편 콜롬비아를 비롯 대부분 중남미 국가는 주요 차관도입처로 미주개발은행(IDB)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가기간산업 입찰에는 IDB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IDB자금을 활용한 입찰에는 IDB회원국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되고 있어, 한국업체의 입찰참가는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입찰은 지명입찰 또는 경쟁입찰 중 한 가지로 행하여진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지명입찰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동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구입시 공개입찰이 의무화되어 있다. 낙찰자의 결정은 가격, 경력, 기술,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요소 이외에도 인맥을 통한 로비활동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영기업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적인 분야이면서 순수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찰을 제외하고, 일반 상품구입 입찰의 경우 콜롬비아 업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입찰공고시 오퍼 제출기한이 2~4주 정도로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찰전략>

입찰에 관한 정보는 매주 발간되는 입찰정보지 'LICITACIONES' 지를 통해 입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 정보는 콜롬비아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로서 응찰기한이 짧아 외국기업의 참여에 제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입찰참가가 유망한 품목의 경우, 사전에 콜롬비아 내 유력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과 아울러, 에이전트 계약 및 기본적인 가격정보 등을 준비, 에이전트로 하여금 사전 입찰정보

입수에 노력케 하여, 입찰이 공시되면 단기간 내 응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대부분 입찰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상당시간 전에 구매계획이 결정되며, 응찰조건 등을 부서간에 조율하여 공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한 내부인사와 연계된 에이전트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가지고 입찰에 준비하게 되어 낙찰가능성이 높은 만큼, 에이전트 선정시 과거 낙찰경험 및 발주업체와의 인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9. 외환관리제도

[외환관리제도]

현재 콜롬비아의 외환관리제도는 1991년 법률 제9호 및 1993년 시행령 21호에 법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는 기존 1967년 시행령 444호에 바탕을 둔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완화시킨 것으로서, 외환부문의 개혁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근본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91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결의 제 4호를 통해 시중은행에 대한 외환보유 및 매입, 매각을 허용하였으며 1991년 10월 중앙은행 이사회는 결의 제 3호를 통해 개인 및 제1금융권에 대해서도 외환보유 매매를 자유화시키는 한편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시장 환율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콜롬비아 외환시장은 공식시장과 자유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시장 구성원이 틀린 만큼 별도의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에서는 시장대표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 공식시장

은행 등 금융기관 및 기업체 등 법인, 개인으로 구성된 시장으로서 기업의 투자, 수출입, 송금, 외화저축 등 공식적인 금융거래가 공식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식시장의 대미 달러화 환율은 자유시장보다 높으나 공식적인 거래가 수반되는 만큼 수출입 사후관리 등 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개인보유 달러의 환전 등은 공식시장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 자유시장

여행자 등 개인의 달러매입, 환전 등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사설 환전소가 중심이 된다. 출처 등에 대한 정부관리가 없어 마약달러 등이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초과 현상으로 자유시장 환율은 공식시장 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다. 여행자의 환전시 여권의 제시만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자유변동환율제도]

콜롬비아 정부는 과거에는 전년도 국내외 물가차이 등을 감안, 매년 초에 연말까지 평가절하 목표선을 설정하며, 동 목표선을 중심으로 $\pm 10\%$ 에 상하한선(Banda Cambiaria)을 두어 폐소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이 동 상하한선 내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허용하며, 상하한선을 벗어나려 하면 중앙은행에서 보유한 외환을 통해 자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동 제도는 단기적으로 환율을 시장기능에 맡기면서도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외부적인 강력한 충격에는 적응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실제로 콜롬비아 페소화는 국제 투기자금의 공격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경제계 및 학계의 환율제한선 폐지 논의가 지속되어, 현재는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뀐 상태이다.

60.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시장규모>

콜롬비아는 자체적으로 4천3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 인구측면에서 중남미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제3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와 함께 안데안 공동시장(Comunidad Andina)을 형성하고 있으며, 멕시코, 베네수엘라와는 G-3협정을 통해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어, 이들 협정국을 포함할 경우, 인구 2억의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콜롬비아 수입시장 규모는 '92년 수입개방 이후 지속 증가세를 기록, 현재 연간 US\$ 150억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 수입품목은 자본재 및 공산품 소비재, 그리고 주 수입원은 미국(42%), 중남미(23%), EU(16%) 등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은 아직 크지 않은 실정이다. (대외거래지표 참조)

<시장특성>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건실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4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유망수출시장이다. 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에도 불구하고, 채무 모라토리움 선언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 경험을 갖고있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마약자금 유입으로 달러화가 풍부하여 안정적 환율운영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안데안지역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산업기반을 보유한 국가로, 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타이어, 철강, 화훼류, 커피 등의 산업은 수출산업으로 인정될 만큼 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등 자본재 및 내구성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는 90%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계층별 소득격차가 심각하여, 상품시장의 경우도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중질, 중가품 시장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가시장에서는 선진국 브랜드제품이, 그리고 서민을 상대로 한 저가시장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산 상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지하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수입품의 30% 내외가 밀수품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로 오디오, 비디오, 의류, 신발, 주류, 담배 등이 밀수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 외 일반상품들도 밀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지

정부에서는 정권 교체시마다 밀수근절을 약속하고 있으나 밀수단속의 단기적 부정적 효과, 정부관료의 밀수결탁 등 부패로 인해 번번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도시마다 San Andresito라는 대규모 밀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하경제의 또 다른 모습은 마약달러의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콜롬비아에는 연간 US\$ 10억불 내외의 마약자금의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부분은 돈세탁을 위해 무역 및 투자형태로 콜롬비아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콜롬비아 마약달러는 밀수, 그리고 건축 및 금융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94년 이후 당시 Samper 대통령의 마약단속과 함께 콜롬비아 경기가 냉각된 것은 콜롬비아의 지하경제 의존도를 반증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상담시 유의사항>

아울러 일반 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92년 전면적 수입개방 이후 일반 소매점까지 수입에 가세하여 기존의 수입상->도매상->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가 붕괴되어 규모있는 수입상 발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금융비용 및 세금포탈의 목적으로 신용장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Under Value에 대한 요청도 일반적이다.

또한 현지인들의 수입경험이 일천하여 한국에 대해 아직 지리적, 심리적 원격성을 느끼고 있으며, 단순서신, 팩스 등으로 거래성사가 이루어지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속적인 방문 및 대면상담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대부분 품목에 있어 가격조건은 양호한 반면 소량주문이 일반화되어 있어, 콜롬비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초기 소량주문 수용 및 점차 수입상을 키워가는 장기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61.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문화적 금기사항]

콜롬비아는 서구사회의 일원으로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도 활발한 편이다. 따라서 정계에 여성 장차관도 많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여성후보가 30% 가까운 지지를 받기도 한다. 한국업체의 콜롬비아 업체와 상담시 책임자로 여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쉽게 만나게 되며, 이 경우 상대를 책임자로 존중하는 자세와 함께 신사로서 여성에 대한 에티켓이 함께 요구된다.

콜롬비아는 전국민의 95%가 카톨릭 신자로 구성된 카톨릭 국가임에도 자유로운 사회제도,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의 지위상승 등의 요인으로 독신, 이혼녀, 미혼모, 별거 등 다양한 결혼형태를 보유한 여성을 만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연령 및 결혼여부, 배우자 직업 등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상대를 당혹케 하는 것으로 금기시된다.

또한 콜롬비아는 마약, 치안불안, 밀수, 빈곤 등 많은 사회문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국민들은 자신들끼리 대화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치안불안에 대한 CNN 보도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있기는 있었지만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 보도하여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처음 만나는 상대방과의 대화시, 콜롬비아의 치안불안, 정치상황 등에 대한 선부른 의견 개진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수입관행]

콜롬비아 수입시장은 오랜 기간 선진국 기업의 현지대리점을 통한 수입이 관행화되어 왔으며, 현지 수입상들의 외국에서의 직수입은 '92년 수입개방 이후 이루어져 역사가 짧은 형편이다. 기존 수입대리점들은 같은 근무시간대에 동일 언어로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주문을 접수하고, 기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며, 문제 발생시에도 A/S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실정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업체가 상담에 임할 경우 많은 시행착오가 예견된다. 우선 가격조건은 당연히 한국제품이 탁월하므로 수입상의 구미를 당기지만, 상당수 수입상들은 신용장 개설이니 통관이니 하는 절차에 문외한인 경우가 있으며 아울러 시간대 차이 및 언어의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 무역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물품상 착오나 하자가 발생하고, 이에 수출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선 기본적으로는 한국수출업체에서 콜롬비아 시장을 대체시장 내지는 일회용 시장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래 유망시장으로 키워가겠다는 의지와 여타시장과 동등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도 물품수출시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향후 이러한 문제발생시 해결비용까지 감안한 가격을 제시하고, 향후 수입상의 불만 도출시 이를 책임져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 지리적 인접성 및 진출역사를 바탕으로 현지 수입상들과 외상조건의 거래를 일반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수입상의 한국업체와 상담시 경직된 지불조건 요구를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업체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들 선진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 있지 않으며, 외상거래는 위험한 시도로 보여진다. 따라서 초기 거래에서는 신용장 또는 일정부분 사전송금 등 대금지불의 확보를 고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거래를 통해 수입상의 신용이 확인될 경우 시장에서 수입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상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경우 수출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시 유의사항]

콜롬비아 국민은 근본적으로 낙천적인 라틴문화를 이어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질은 무역거래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품품질 및 가격에 만족하면, 자신의 자금능력, 무역 및 통관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거래에 동의하고, 그러다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또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거래상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구두상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법적 효력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합의사항은 문서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첫거래일 경우 물품대금이 확보될 때까지 물품의 생산 및 구매는 미루어 둘 필요가 있다.

많은 한국업체에서 무역관에 요청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바이어가 상담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지 출장을 통해 바이어와 상담하고 바이어가

“언제까지 대금을 송금할 테니 지금부터 물품을 준비해 달라”는 약속에 따라 물품을 생산해 놓았는데 송금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관에서 접촉해 보면 대해 수입상은 아직 시장성을 검토하고 있다.. 내지는 수입대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애매한 답변을 듣기 일쑤다. 한국업체의 주의가 요청된다.

또 한 가지 한국업체에서 콜롬비아 시장진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콜롬비아 인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 보수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국민들이 아직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국에 대해 지리적, 문화적 원격성을 느끼고 있어 한국과의 첫 거래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날아온 거래제의 팩스, 서신, 카타로그 등에 수입상들이 큰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기관인 무역관에서 주선한 대면상담에는 수입상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업체의 콜롬비아 시장진출시 시장조사와 수입상조사를 통해 시장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장을 통한 방문상담을 추진해 볼만 하다. 아울러 방문시 수입상 식사초대, 간단한 선물증정으로 친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일단 친분관계가 구축되면 여타 경쟁국제품 또는 경쟁업체의 거래제에도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상담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현지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시 과잉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 신용거래 및 독점대리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거래 및 대리점 영업은 콜롬비아 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이나, 초기 거래시에는 일단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수요량을 취합할 수 있는 대리점의 선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여러 업체와의 거래경험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하고, 상대의 신뢰도가 확인이 된 이후에는 수입상의 외상거래 요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장(Invoice)상 물품대금의 Under Value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상의 Under Value 요청에 대해, 밀수가 만연된 현지실정을 감안, 수출업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Under Value 목적상, 그리고 현지의 높은 금융코스트로 인해 신용장보다는 T/T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 일부 T/T 송금, 그리고 나머지 잔액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는 수입상도 있다.

아울러 세관의 부패로 수입물품이 세관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아울러 주요항구에서 보고타시까지 안데스 산맥을 넘어 500여Km를 내륙운송하는 도중 화물의 도난사고 위험이 크므로 딜리버리 상의 책임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62.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시장규모]

콜롬비아는 자체적으로 4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 인구 면에서 중남미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제3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와 함께 안데안 공동시장(Comunidad Andina)을 형성하고 있으며, 멕시코,

베네수엘라와는 G-3협정을 통해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어, 이들 협정국을 포함할 경우 인구 2억의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콜롬비아 수입시장 규모는 '92년 수입개방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현재 연간 US\$ 150억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 수입품목은 자본재 및 공산품 소비재, 그리고 주 수입원은 미국(42%), 중남미(23%), EU(16%) 등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은 아직 크지 않은 실정이다. (대외거래지표 참조)

[시장특성]

콜롬비아는 중남미국가 중 비교적 건실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4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유망수출시장이다. 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에도 불구하고, 채무 모라토리움 선언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 경험을 갖고 있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마약자금 유입으로 달러화가 풍부하여 안정적 환율운영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안데안지역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산업기반을 보유한 국가로, 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타이어, 철강, 화훼류, 커피 등 산업은 수출산업으로 인정될 만큼 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등 자본재 및 내구성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는 90%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계층별 소득격차가 심각하여, 상품시장의 경우도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중질, 중가품 시장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가시장에서는 선진국 브랜드제품이, 그리고 서민을 상대로 한 저가시장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산 상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지하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수입품의 30% 내외가 밀수품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로 오디오, 비디오, 의류, 신발, 주류, 담배 등이 밀수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 외 일반상품들도 밀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지 정부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밀수근절을 약속하고 있으나 밀수단속의 단기적 부정적 효과, 정부관료의 밀수결탁 등 부패로 인해 번번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도시마다 San Andresito라는 대규모 밀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하경제의 또 다른 모습은 마약달러의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콜롬비아에는 연간 US\$ 10억 내외의 마약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부분은 돈세탁을 위해 무역 및 투자형태로 콜롬비아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콜롬비아 마약달러는 밀수, 그리고 건축 및 금융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94년 이후 당시 Samper 대통령의 마약단속과 함께 콜롬비아 경기가 냉각된 것은 콜롬비아의 지하경제 의존도를 반증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상담시 유의사항]

아울러 일반 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92년 전면적 수입개방 이후 일반소매점까지 수입에 가세하여 기존의 수입상->도매상->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가 붕괴되어 규모있는 수입상 발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금융비용 및 세금포탈의 목적으로 신용장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Under Value에 대한 요청도 일반적이다.

또한 현지인들의 수입경험이 일천하여 한국에 대해 아직 지리적, 심리적 원격성을 느끼고 있으며, 단순서신, 팩스 등으로 거래성사가 이루어지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속적인 방문 및 대면상담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대부분 품목에 있어 가격조건은 양호한 반면 소량주문이 일반화되어 있어 콜롬비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초기 소량주문 수용 및 점차 수입상을 키워가는 장기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정도]

콜롬비아의 외국인투자 유치법은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의 동등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 등 최소한의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투자에 개방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100% 지분확보가 가능한, 매우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시, 투자를 위한 별도승인이 불요하며, 단지 향후 외국인투자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중앙은행에 도입자금, 이윤발생 등의 신고가 필요하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콜롬비아 투자진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밀수문제, 게릴라문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밀수는 마약과 함께 콜롬비아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밀수가 국내기업을 도산으로 몰고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전에 해당품목에 대한 밀수현황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97년 6월 밀수단속을 위하여 17만불 이상 밀수자 및 상습적인 밀수범에 최고 6년 형을 구형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교체 때마다 밀수근절이 주요공약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수입의 30% 정도가 밀수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릴라의 경우, 과거에는 이념으로 무장한 반정부단체였으나, 구소련 붕괴 이후 이념적 토대를 상실하고, 현재는 이윤추구를 위한 단순 무장단체로 전략하였다. 게릴라들은 자신들의 세력과시 및 민심동요를 목적으로 한 송유관, 송전탑 등 기간산업 시설물 공격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조직운영 경비마련을 위해 운송화물 탈취, 신변위험을 미끼로 한 금품요구, 기업인 등 주요인사 납치 후 몸값요구, 그리고 기업체에 대한 테러예고 및 테러취소 대가로 정기적 금품요구 등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콜롬비아 기업체에서는 생산비용 이외에 기업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정치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한국업체의 투자진출시 입지적으로 게릴라 활동 가능성을 감안한 입지선정이 요구되며,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게릴라 및 치안불안을 염두에 두고 현지인과의 원한관계를 맺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1995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비용을 전체 비용에 충분히 감안한 사업계획이 요청된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임금 이외의 비용이 월급여의 63.6%에 해당하고 있다. 또한 높은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매년 기업 및 노동자 대표와 협상을 벌여 차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임금인상률은 대부분 기업에 차년도 임금인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업체

임장에서는 높은 임금인상률이 장기간 근로자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숙련공 양성을 어렵게 하고 결국 기업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에 ATPA, G-3, ANCOM 등 콜롬비아와 주변국가와의 경제협정 등을 검토하여 시장확대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는 지리적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에 접하고 있으며, 남미대륙 북단에 위치해 있어 북미시장과 남미시장 진출에 전략적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단기적으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국가와 안데안 공동시장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데안 공동시장은 현재 상당수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안데안 공동시장은 장기적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통합,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의 통합 등 단계적으로 미주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지향하고 있어, 한국업체의 투자진출시 콜롬비아 뿐 아닌 여타국 시장까지 감안한 투자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63. 투자유치정책

< 투자유치정책 >

콜롬비아 정부는 1991년, 법령 제9호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전면 개방하였다. 1991년 1월 상기 법의 시행령인 CONPES(경제사회정책심의회) 결의(resolucion) 제49호를 통해 내외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국방 및 핵폐기물 처리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문호개방, 외국인투자 사전승인제도 철폐, 연간 투자자본의 100% 과실송금 허용, 외국인 기업의 혼합기업으로의 전환 약정(대안데안 교역시 특혜관세 수혜조건)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잔존 투자제한조치를 사실상 거의 철폐하였으며, 1991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무제한 과실송금 허용조치를 발표하였다. 콜롬비아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제한을 철폐, 내국기업과 동등시 한다는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콜롬비아 투자환경의 변화를 대외에 홍보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키 위해 1992년에는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COINVERTIR를 창설하였으며, COINVERTIR를 통해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유치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다.

- 타국와 비교하여 경쟁적이고 신뢰성 있는 투자환경 조성
- 미국, 유럽,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투자유치 강화
- 기술투자 유치증대를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
- 게릴라 및 마약 억제로 부정적 투자환경 최소화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법은 1991년 공포된 법령 제291과 292(DECRETO 291, 292)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아래 법령들이 관련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 LAW 9(1991)
- RESOLUTION 51,52(1991), 53,55,56,57(1992), 60(1993) - CONPES
- DECREES 98, 2012(1994), 517(1995)

콜롬비아의 투자유치법은 외국기업의 내국민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분야 (아래 분야는 현재 사전승인조건 철폐추진 중)에 대한 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며, 투자를 위한 별도 승인도 필요없고 중앙은행에 대한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 수도, 전기, 보건 등 공공분야 및 1억불 초과 광산개발 분야(국가기획청)
- 폐기물 처리분야 및 국제협정에 의거, 정부의 보증이 필요한 사업분야(국가기획청)
- 외국 공공기관의 주식투자(증권감독원)
- 유전 및 광산개발 분야(광업전력부)
- 금융분야((은행감독원)

* 투자관련 주요 세금

구분	세율	비고
정상소득세	35%	공공기관의 경우 30%
기회소득세	35%	증권투자의 경우 0%
송금세	7%	유전개발의 경우 15%
부가세	16%	자동차의 경우 35%
인지세	1%	지방정부에 따라 상이
영업세	2-10%	제조:2-7%, 유통:2-10%
재산세	1-16%	지방정부에 따라 상이

자료원) 투자진흥청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던 헌법 제 58조에 의한 무보상 외국인 투자몰수조항 수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한 외국인 투자 몰수는 도로건설, 농지개량, 도시건설 등으로 제한하고, 몰수할 경우 보상을 의무화하게 된다. 현재 투자보호법은 여타 개정법률과 함께 의회의 검토를 받고 있으나 동 조항이 외국인 투자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압력 등으로 조만간 성문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콜롬비아의 국제투자보장협정 가입현황

1985년 :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
 1986년 :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1995년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64. 외국인투자제한

콜롬비아 정부는 1991년 1월28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100% 과실송금 가능 등 사실상의 외국인투자 전면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협력, 특허권 양도, 증권투자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100% 지분소유의 기업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당시의 제 조건은 국내법에 의하여 소급을 보장받는다. 한편 세제 면에 있어서도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방위산업, 독극물유출산업 등에 대한 과실송금 비율에 있어서는 제한이 상존하고 있다.

2002년 중 투자된 외국인자본은 5.3억불로, 2001년 대비 77% 감소하였다. 단일국가로는 미국의 투자액이 가장 많으나, 2002년 투자금액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 멕시코, 스페인 등의 투자가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평균 7백만불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2002년에는 투자금액이 3백만불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는 지난 1999년까지는 전력, 가스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와 제조업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금융업에 대한 투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5. 투자진출절차

사전투자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투자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실제 투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감독청의 영업허가획득 및 관할 상공회의소 등록을 마치고 중앙은행에 투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절차

- 1) 국가기획청(DNP)에 투자승인 신청
(광산 및 원유부문은 광산동력성의 승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 2) 국가기획청의 승인 (신청 후 45일 이내 결정)
- 3) 기업감독원의 영업허가 취득
- 4) 은행감독원의 허가취득(금융부문 투자에 한함)
- 5) 중앙은행 외환국에 투자등록(이윤송금 및 자본철수 시 합법적 근거가 됨)
- 6) 상공회의소 등록 (기업활동 소재지의 상공회의소)

66.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1. 지사개설 준비서류

- 본사 소재지에서 공증받은 외국 본사의 정관사본
- 지사설립 계획서
 - 설립목적, 투자금액, 주소지, 지사설립 시기 및 폐쇄계획
 - 지사를 대표하여 모든 법적행위를 수행할 대표자 및 대리인 성명
 - 현지인 회계감사 성명

2. 등록절차

- 준비된 서류를 거주지 공증소에서 공증확인
- 동 서류를, 이사들의 직무수락 동의서를 첨부, 주소지 상공회의소에 제출
(관련부서 : Registro Mercantil)
- 동시에 회사관련 중요서류(원장 및 회계장부, 주주명부 등)을 상의에 등록
- 국세청(Administracion de Impuestos Nacionales)에 회사설립을 신고하여

납세번호(NIT : 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를 발급받음.

- 회사명의의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액을 입금
- 투자금액을 중앙은행(Banco de la Republica) 국제부(Subdireccion Tecnica Internacional)에 등록

3. 참고사항

- 외국인 투자는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중앙은행에 등록 필요 (적정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가능)
- 증권시장 투자의 경우, 투자금을 외환시장에서 환전 후 1달 이내 등록필요
- 투자자의 지위변동, 투자대상의 변동 등 중요사항은 중앙은행에 재등록 필요

67. 공장설립

1. 법인설립의 경우

가. 회사설립 정관 작성

- 설립목적, 투자금액, 주소지, 회사설립 시기 및 폐쇄계획
- 회사를 대표하여 모든 법적행위를 수행할 대표자 및 대리인 성명
- 이사회 구성
- 주식회사의 경우 현지인 회계감사 지정

나. 해외투자 관련 주요 등록/신고 기관

1) 상공회의소(La Camara de Comercio)

- 등록하려는 상호명의 중복여부 검색
- 법인(상호)명 등록
- 매년 3. 31일 이전에 등록상호명 및 브랜드명 갱신 및 재등록

2) 관세청(DIAN: LA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VIONALES)

- 납세자번호(NIT: 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신청

3) 중앙은행(El Banco de la Republica)

- 외환거래로 운영되는 모든법인 등록
- 상공회의소 발행 외국인법인 등록서류 제출

4) 환경청(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 천연자원 피해 및 각종 산업공해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공장 설립에 대한 사전 인가, 규제, 공장가동조건 등을 규정

[외국인투자 관련기관]

○ Banco de La Republica (중앙은행: Subdireccion Tecnica Internacional)

- Calle 16, No. 6-66 Piso 17, Bogota, Colombia
- Tel : 57-1-284-9572
- Fax : 57-1-282-7014

- COINVERTIR (투자진흥청: Investment Climate Department)
 - Carrera 7 No.71-52 Torre A Of.702, Bogota, Colombia
 - Tel : 57-1-312-0312
 - Fax : 57-1-312-0318
-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DNP (국가기획부)
 - (Division Especial de Inversion Extranjera)
 - Tel : 57-1-334-0225/ 336-1600 Ext.240
 - Fax : 57-1-281-3348
-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관세청)
 - Carrera 8 No.6-64
 - TEL : 57-1-297-1220
 - FAX : 57-1-286-5789

2. 참고사항

콜롬비아에 공장설립을 계획할 경우 공장지대, 양질의 노동력 보유, 기타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전기, 수도 등 관개시설, 외환거래 등 금융시설, 치안 등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인 보고타의 경우 전체국민소득의 65%, 국민저축액의 50%, 전체 수입액의 32%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의 우위에 근거하여 보고타는 아직도 외국인 투자 대상지 중 선두를 지켜나가고 있다.

68. 산업단지

< 콜롬비아의 산업공단 개요 >

콜롬비아는 낙후된 제조업분야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외국의 선진기술도입, 고용증대 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산업공단단지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현재 투자진흥청(BOI)이 설치한 공단은 KATUNAYAKE, BIYAGAMA, KOGGALA, KANDY, MALWATTA 등 5개이며 산업개발청(IDB)이 개발중인 공단은 RATNAPURA, MIHINTHALE, BELIATTA 등 3개가 있다. 이중 KATUNAYAKE, BIYAGAMA 등 2개의 공단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6개 공단은 조성이 완료되어 분양 중이거나 현재 조성 중이다.

외국기업 전용공단은 없으며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차원에서 공단 입주업체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입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업종 및 투자성격에 따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에게는 공단입주여부에 관계없이 파격적인 투자장려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공단입주시에는 안정적인 전력, 용수공급 및 치안유지 등 제반 여건과 부대환경 등으로 인해 간접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2개 공단 외에 여타 공단들은 항만 등의 접근성이 뒤떨어지는 등 입주여건이 다소 뒤지고 있어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콜롬보 주변의 공단 이외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록공단〉

- ① CANDELARIA
- ② ZONA FRANCA DE CUCUTA
- ③ ZONA FRANCA SANTA MARTA
- ④ ZONA FRANCA DE RIO NEGRO
- ⑤ ZONA FRANCA CARTAGENA
- ⑥ ZONA FRANCA PACIFICO
- ⑦ MANUEL CARVAJAL SINISTERRA

가. 공단명 : CANDELARIA

소재지	ZONA INDUSTRIAL MAMONAL, CATAGENA		
부지면적	1,240,000m2	조성	CENTRO INT'L CARTAGENA
		주체	DE INDIAS (민간)
공단성격	식품, 가죽, 장난감 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자유 무역지대를 겸함. 입주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개방되어 있음.		
입주비용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공사진행중이며 1999년부터 입주 가능		
교	항만	2km - CARTAGENA 항구	
통	철도	없음	
	공항	15km - CRESPO 공항	
	도로	0.1 km	
전력	US\$ 0.11KWH - 풍부		
용수	US\$ 0.06/gallon - 풍부		
통신	US\$ 1.90/분 - 광케이블 이용으로 용이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비숙련공 : US\$ 200/월, 숙련공 : US\$ 600/월		
외국기업 입주현황	없음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로 제한 - 무기제조 및 마약생산관련 화학물질 생산업체는 불가				
우대조치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송금수수료 면제, 금융지원, 외리 대상제외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입지가 우수하며 입주자에 대한 특혜 확대를 위하여 전력, 용수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할 계획이 있어 입주가 권장됨.				
공단연락처	업체명	CENTRO INT'L DE CARTAGE DE INDIAS			
	주 소	CRA 3 NO. 8-129 OF. 703 BOCAGRANDA, CARTAGENA			
	전화	5756)65-5677	팩스	5756)65-2000	담당 MARCELA VELAZQUEZ

나. 공단명 : ZONA FRANCA DE CUCUTA

소재지	AVD. LIBERTADORES, CUCUTA		
부지면적	56,000m2	조성주체	정부
공단성격	봉제, 철강, 자동차 조립 산업육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자유무역지대를 겸하고 있음. 입주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개방되어 있음.		
입주비용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현재 입주가능		
교	항만	850km - SANTA MARTA 항구	
통	철도	없음	
	공항	1km - CUCUTA 공항	
	도로	0.1km	
전력	US\$ 0.11KWH, 150,00KW 용량		

용수	US\$ 0.06/gallon - 신 송수로 건설				
통신	US\$ 1.90/분 - 300회선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비숙련공 : US\$ 170/월, 숙련공 : US\$ 550/월				
외국기업 입주현황	MONOLOPH (독일)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입주와 관련한 제한사항은 없음. - 무기제조 및 마약생산관련 화학물질 생산업체는 불가				
우대조치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송금수수료 면제, 금융지원, 외환관리 대상제외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베네수엘라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생산제품을 콜롬비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로 직접 수출가능하므로 입주가 권장됨				
공단연락처	업체명	ZONA FRANCA INDUSTRIAL Y DE SERVICIOS DE CUCUTA S.A.			
	주 소	AVD. LIBERTADORES, CUCUTA			
	전 화	5775)78-1002	팩스	5775)78-3399	담당 RODRIGO LARA

다. 공단명 : ZONA FRANCA SANTA MARTA

소 재 지	AVD. FERROCARRIL NO. 1C-119, SANTA MARTA		
부지면적	326,300m2	조성	정부
		주체	
공단성격	봉제, 철강 및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자유 무역지대를 겸함. 입주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개방되어 있음.		
입주비용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현재 입주 가능		

교	항만	15km - SANTA MARTA 항구				
통	철도	1km				
	공항	50km - BARRANQUILLA 공항				
	도로	0.1km				
전력	US\$ 0.08KWH, 132,000KW 용량					
용수	자가 용수펌프 사용으로 부지 임대료에 포함					
통신	US\$ 1.90/분 - 광케이블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비숙련공 : US\$ 170, 숙련공 : US\$ 550					
외국기업 입주현황	TECHINT, ODEBRECH, JAPON UNION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로 제한 - 무기제조 및 마약생산관련 화학물질 생산업체는 불가					
우대조치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송금수수료 면제, 금융지원, 외환관리 대상제외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항구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제 공항이 없어 타 공단보다 입주 여건이 다소 열악함.					
공단연락처	업체명	SOCIEDAD OPERADORA DE LA ZONA INDUSTRIAL DE BIENS Y SERVICIOS				
	주 소	AVD. FERROCARRIL NO. 1C-119, SANTA MARTA				
	전 화	5754)21-0201	팩스	5754)21-2170	담당자	MARCO MEJIA

라. 공단명 : ZONA FRANCA DE RIO NEGRO

소 재 지	VEREDA LA BODEGA, RIO NEGRO, MEDELLIN					
-------	---------------------------------------	--	--	--	--	--

부지면적		387,000m2		조성주체		정부	
공단성격		직물, 봉제, 내의, 전자기기, 디자인 산업육성을 위하여 설립 되었으며 자유무역지대와 겹하고 있음.					
입주비용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현재 공사진행중이며 1997년부터 입주 가능.					
교	항만	400km - BUENAVETURA 항구					
통	철도	없음					
	공항	20km - MEDELLIN 공항					
	도로	0.1km					
전력	US\$ 0.08KWH, 15,000KW 용량						
용수	US\$ 0.06/gallon						
통신	US\$ 1.90/분 - 광케이블 (250회선)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비숙련공 : US\$ 200/월, 숙련공 : US\$ 600/월					
외국기업 입주현황		없음.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로 제한 - 무기제조 및 마약생산관련 화학물질 생산업체는 불가					
우대조치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송금수수료 면제, 금융 지원, 외환관리 대상제외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섬유산업 중심지로 섬유업체의 경우 입주가 권장됨.					
공단연락처		업체명	PROMOTORA NACIONAL DE ZONA FRANCAS S.A.				
		주 소	CLL 4 SUR NO. 43AA-30 FORMACOL OF. 404				
		전 화	574)311-8900	팩 스	574)331-7329	담당	GLORIA

마. 공단명 : ZONA FRANCA CARTAGENA

소재지	CLL 29 NO. 27-05 MANGA, CARTAGENA		
부지면적	189,000m2	조성주체	정부
공단성격	식품, 가죽,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자유무역지대를 겸하고 있음.		
입주비용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현재 입주 가능		
교	항만	3km - CARTAGENA 항구	
통	철도	1km	
	공항	25km - CRESPO 공항	
	도로	0.1km	
용수	US\$ 0.06/gallon		
통신	US\$ 1.90/분 - 광케이블 (100회선)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비숙련공 : US\$ 200/월, 숙련공 : US\$ 550/월		
외국기업 입주현황	없음.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로 제한 - 무기제조 및 마약생산관련 화학물질 생산업체는 불가		
우대조치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송금수수료 면제, 금융지원, 외환관리 대상제외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항구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제공항이 없어 타 공단보다 입주 여건이 다소 열악함.		
공단연락처	업체명	ZONA FRANCA INDUSTRIAL DE BIENES Y SERVICIOS	

		DE CARTAGENA S.A.				
	주 소	CLL 29 NO. 27-05 MANGA, CARTAGENA				
	전 화	5756)66-0913	팩스	5756)66-3354	담당	CARLOS CUARTAS

바. 공단명 : ZONA FRANCA PACIFICO

소 재 지	PALMIRA, VALLE DE CAUCA		
부지면적	784,000m2	조성 주체	INDUSTRIAL DE BIENES Y SERVICIOS (민간)
공단성격	봉제, 전자, 화학, 디자인, 도자기, 보석가공, 포장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자유무역지대를 겸하고 있음. 입주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개방		
입주비용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현재 공사진행중이며 1997년 부터 입		
교	항만	50km - BUENAVENTURA 항구	
통	철도	없음	
	공항	65km - CALI 공항	
	도로	0.1km	
전력	US\$ 0.10KWH, 250,000KW 용량		
용수	US\$ 0.06/gallon		
통신	US\$ 1.90/분 (80회선)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비숙련공 : US\$ 170/월, 숙련공 : US\$ 550/월		
외국기업 입주현황	없음.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로 제한		

규제현황	- 무기제조 및 마약생산관련 화학물질 생산업체는 불가					
우대조치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송금수수료 면제, 금융지원, 외환관리 대상제외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태평양 항구에 인접하고 있어 한국과의 교역이 용이하며 따라서 한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거나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기업에게는 아주 권장됨.					
공단연락처	업체명	CIUADELA INT'L DE PACIFICO S.A.				
	주 소	TORRE VALLE DE CALI OF. 808, CALI				
	전화	572)330-3308	팩스	572)330-9229	담당	EVELIO CIFVENTES

사. 공단명 : MANUEL CARVAJAL SINISTERRA

소 재 지	PALMASECA, VALLE		
부지면적	554,000m2	조성주체	정부
공단성격	봉제, 신발, 기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자유무역지대를 겸하고 있음.		
입주비용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현재 입주 가능		
교 통	항만	70km - BUENAVENTURA 항구	
통	철도	없음.	
	공항	30km - CALI 공항	
	도로	0.1km	
전력	US\$ 0.08KWH, 132,000KW 용량		
용수	US\$ 0.06/gallon		
통신	US\$ 1.90/분 - 350 회선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비숙련공 : US\$ 170/월, 숙련공 : US\$ 550/월					
외국기업 입주현황	SONOTEX, J & J, CELPROCHEMICAL, GENRAL FOO, PHILIP MORRIS					
한국입주 기업명단	대우자동차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로 제한 - 무기제조 및 마약생산관련 화학물질 생산업체는 불가					
우대조치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송금수수료 면제, 금융지원, 외환관리 대상제외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항구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제 공항이 없어 타 공항보다 입주 여건이 다소 열악함.					
공단연락처	업체명	ZONA FRANCA INDUSTRIAL Y COMMERCIAL MANUEL CARVAJA SINISTERRA				
	주 소	PALMASECA, VALLE				
	전 화	572)651-1111	팩스	572)448-2795	담당자	EFRAIN CASAS

69.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현황]

제조업 및 상업 위주로 CUCUTA를 비롯, 5개 지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는 20년 이상 운영되어 왔으나 설치 당시 기대했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 콜롬비아 정부는 1992년 시행령 2131호로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관리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현재 CUCUTA, BARRANQUILLA, BUENAVENTURA, CARTAGENA, PALMASECA의 5개 자유무역지대는 공공기관인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이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설치되는 자유무역 지대는 민간기업이 관리토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제조업 및 상업이 자유무역지대의 중심기능이었으나 향후에는 관광업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입주기업 혜택)

- 수출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세
- 이자 및 기술용역료 대외송금시 면세
- 지대 내로 반입되는 외국상품 관세 면세

- 국내기업의 상품을 지대 내로 판매시 수출로 인정하여 CERT(수출보조금) 지급
- 입주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국내 금융조달가능
- 모든 종류의 외환 보유 및 거래가능
- 국내은행에 달러화 구좌 개설, 보유 가능
- 종전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생산품 60%이상 수출의무 철폐. 단, 콜롬비아 국내로 판매시 판매분에 대한 소득세 부과

(입주기업 종류별 기능)

- 관 리 업체: 자유무역지대의 관리 및 조정을 담당
- 개 발 업체: 자유무역지대의 인프라 개발을 담당
- 제 조 업체: 수출상품의 조립 및 생산
- 서비스업체: 모든 종류의 서비스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 입주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 및 특혜 부여
- 국내에 현재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도 초과이익을 자유무역지대에 재투자가능

(자유무역지대별 규모)

지역	면적(S/M)	분야
BARRANQUILLA	1,000,000	가죽, 식품, 철강, 서비스
CARTAGENA	157,000	식품, 악어가죽, 장난감, 서비스
SANTA MARTA	324,000	철강, 기계, 서비스, 관광
CUCUTA	100,000	기계, 철강, 자동차
BUENAVENTURA	360,000	서비스
CALI	547,496	기계, 전자, 인쇄, 화학

정보원: 투자진흥청 (COINVERTIR)

* 참고 : CAUCA 경제특구

1995년 법령 218호에 의거, 동 경제특구 내에 위치한 전 산업분야(단, 천연자원 개발제외)에 대하여 10년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즉, 99년까지 소득세 전액면제(이후 매2년 단위로 조정), 송금세 면제 등의 세제상의 혜택과 자본재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70. 조세제도

[조세제도]

콜롬비아에서는 세금부과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세(국세), 주정부세 및 시정부세 등 3가지 형태의 세금이 부과된다. 콜롬비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기업도 상기 조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요세금으로는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수입관세, 사회보장세(연금,보험)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제반 세금의 징수 등 세무업무는 세무관세청(DIAN :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는 상기 주요세금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특별입법을 통한 한시적 세금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98년말 금융시스템 위기극복 및 Armenia 지진피해 복구자금 확보를 위한 특별세(은행거래세) 0.2%가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된 적이 있으며, 아울러 정부의 게릴라와의 평화협상 진전에 따라 게릴라의 사회복귀 등 게릴라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평화세(Bono de Paz) 명목으로 2000년부터 징수하고 있다.

[주요세금]

(법인소득세)

기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기업매출액에서 제비용, 환급, 할인 등을 공제하여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세율은 35%이다.

한편 기업의 투자확대, 특정산업 진흥 등의 목적으로 법인소득세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할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법인소득세 면제(약정기간 중)
- 기업의 수출활동에 따라 환급받은 관세액의 35%까지 법인세 납부금 할인
- 제조업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자본재 및 컴퓨터 구입, 구매확정 방식 리스계약으로 자본재 구입, 기초산업용 기계류 구입시 납부된 부가가치세 부분만큼 소득세에서 할인
- 콜롬비아 법인의 해외수익에 대해 외국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만큼 소득세에서 할인

(기회소득세)

정상적인 재화 및 서비스판매 등 영업을 통한 수익이 아닌 특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35%이다. 기회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수익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자산매각, 기업청산 등을 통한 소득
- 유산, 증여, 기부 등 일방적인 소득
- 복권, 경마 등을 통한 투기성 소득

(개인소득세)

기업활동이 아닌 피고용자로서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큰 차별을 보이고 있다.

- 1,100천 페소 미만: 급여의 0.09%
- 1,200천~1,250천 페소 : 급여의 2.04%
- 2,001천~2,050천 페소 : 급여의 9.80%
- 3,001천~3,050천 페소 : 급여의 16.15%
- 4,001천~4,050천 페소 : 급여의 19.34%
- 5,001천~5,050천 페소 : 급여의 22.4%

(배당소득세)

외국거주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7%이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외국투자자의 이윤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수익을 콜롬비아에 재투자할 경우 소득세 부과를 보류하며, 재투자 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송금세)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상품을 수입하여 발생하는 대금지불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7%이고, 주요 부과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커미션, 로열티
- 외국영화 수입방영 수입중 외국 수출업체 지분
- 컴퓨터 S/W 로열티

예외적으로 배당소득세는 이미 7%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송금세는 면제되며, 아울러 외국차입금에 대한 이자송금시, 그리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자문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송금시에도 송금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일반상품에 대해 16%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의료, 교육, 농산물 등 품목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어 있으며, 항공권에는 10%가 부과되는 등 품목별로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전 Pastrana 정부에서 임기 중('98~2002) 부가세 16%를 12%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기타)

기업의 계약공증, 등록 등에 인지세 및 등록세 등이 부과된다. 인지세는 4,890만 페소를 넘어서는 거래 중에서 서류공증, 관공서 인증, 은행신고 등이 수반되는 거래에 대해 거래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해당 공증기관이 수납기관이 된다. 한편 개인의 부동산 등록(가치의 0.5~1%), 기업의 상공회의소 등록(자본금의 0.3~0.7%)시 등록세가 부과된다.

[기타세금]

(영업세)

지방정부에서 지역 상공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지역마다 세율, 납기 등이 상이하며, 대체로 반기별로 영업수익의 0.2~1.0%의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행정구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정부산출 가치(공시지가와 유사)기준 지역별로 0.1~1.6%까지 부과된다. 재산세는 연간 1회 부과되며 일정기한 내 납부하면 최고 15%까지 세금할인이 이루어진다.

(자동차세)

지방정부에서 자동차 번호판 발급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 보유세로, 125cc 미만 이륜자동차, 트랙터, 건설장비, 영업용 자동차 등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1회 세금이 부과되며 일정기한 내 납부하면 세금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정부에서는 자동차 모델, 연식, 배기용량 등을 기준으로 차량별 기준가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준가격별 세율을 보면 2,000만페소 미만 차량에 대해 1.5%, 2,000만~4,500만페소 차량에 2.5%, 그리고 4,500만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 3.5% 세금이 부과된다.

(기타)

이 외 지방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가솔린, 기타 유류제품 등에 국세 이외의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보고타시 지역에서 부과되는 가솔린 지방세는 20% 수준에 이른다.

71.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 >

<전력>

2002년말 기준 콜롬비아의 전력 생산능력은 11,896MW로서 이중 68.4%는 수력발전, 31.6%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화력발전의 에너지원별 의존율을 보면 가스발전이 전체 화력발전의 81.3%, 석탄이 18.3%, 그리고 석유가 0.4%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을 겪고있으며, 인접 베네수엘라에서 240MW,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30MW의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전력생산은 19세기말에 시작되어 20세기 중반까지 민간기업 주도로 생산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민간기업의 상업성위주 전력공급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리고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점차 전력생산, 기간송전망 등이 국유산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정부산하의 국영 전력업체들이 80년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경쟁력 약화와 함께, 정부 재정적자의 주범으로 물리면서 다시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회생을 모색하게 되었고, 1992년 엘니뇨 현상에 따른 전력부족현상은 심각한 제한송전을 야기했고, 전력산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현재 콜롬비아 전력생산 기준 주요기업을 보면 EMGESA에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 Empresa Publica de Medellin(17%), ISAGEN(15%), Chivor(9%) 등이 주요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력부문 대표적인 국영기업으로 발전, 송전을 담당해 온 ISA 및 ISAGEN사는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상하수도>

콜롬비아의 상하수 서비스는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상수의 경우 식수로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정수품질이 낮으며, 하수의 경우도 서비스 보급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현재 콜롬비아의 상수도 보급율은 89.4%, 하수도 보급율은 79.2%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보건 차원에서 상하수도의 중요성은 70년대 중반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1975~1993년 기간 중 동 분야에 2,795백만 불이 투자되었다. 이러한 정부투자에 힘입어 동 기간 중 상하수 보급율을 각 25%, 26%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콜롬비아 인구가 상수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1,600만 명의 인구가 하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상하수도 보급은 도시와 지방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도시의 상하수도 보급율은 각 98.0%, 94.6%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상하수도 보급율은 92.4%, 7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

콜롬비아는 INVIAS(Instituto Nacional de Vias)를 통해 전국적인 국가도로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26개의 도로관리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가 보유한 도로의 총 연장은 16,296 Km로서 이중 69.26%는 포장도로이고 나머지 30.74%는 비포장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확충 및 경기부양, 고용확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나, 정부의 예산확보 어려움 이외에, 게릴라 준동에 따른 치안불안 등이 건설공사 추진에 장애물이 되어 시행이 지체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대표적인 도로건설 프로젝트로서, 보고타에서 태평양 연안 항구도시인 Buenaventura를 잇는 503Km 구간도로의 신설 및 확장공사 프로젝트가 있으며, 약 10억불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동 건설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00년 중 유료도로건설에 대한 국제입찰을 실시하였다. 이 외,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도로건설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통신>

콜롬비아 통신부문 중 유선전화는 현재 약 800만 회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구 100명당 19.82회선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아날로그 방식의 교환기를 보유, 통신설비가 노후되어 있어 정부에서는 신규 통신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유발,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통신산업 현대화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통신현대화 사업의 결과 '94년 400만회선에 불과하던 통신인프라가 '2001년 700만 회선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아직 수요 대비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정상적인 신청으로 전화회선을 확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전화가입자들 간에 전화회선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고정식 전화의 보급지체에 따라, 높은 이용요금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가 고정식 전화의 대체수단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휴대전화의 가입자수는 95년 27만명에서 2002년 3월말 기준으로 35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어, 6년 만에 13배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콜롬비아의 공중전화 설치대수는 7만대 내외로 상가 및 공항 등 공공장소를 벗어나 길거리에서 공중전화 발견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타 길가에서는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풍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콜롬비아에는 전국적으로 50여개의 지역 통신회사와 Telecom, ETB(Empresa de Telecomunicaciones de Bogota), Orbitel 등 3개 장거리 및 국제통신회사가 영업 중이었으나, 매년 예산 대비 30% 이상의 극심한 적자를 기록해, 2003년 6월 12일부로 기존의 지역통신회사와 Telecom, ETB 등을 통합한 Telecom S.A.(콜롬비아통신공사)를 설립, 100% 정부출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72. 노동여건

< 노동여건 >

<고용>

콜롬비아에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며 신문광고, 대학추천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고용절차가 끝난다. 콜롬비아 노동법상 만18세 이상이면 자유롭게 고용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노동희망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신청으로 노동관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노동이 가능하다.

고용계약서에는 업무의 종류와 업무장소, 급여수준 및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 그리고 수습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콜롬비아에서는 2개월까지 수습기간이 인정되며 수습기간 중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사전 통보없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

콜롬비아는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해고 등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 불법해고시 퇴직금보다 많은 벌금을 물리고 있어,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경우 전문 노무담당 고용, 혹은 전문 변호사와 시간제 계약 등을 통해 고용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인력>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제3위의 인구규모를 보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의 질에 있어 단순, 비숙련 노동력은 풍부하고 임금수준도 저렴한 반면, 전문기술 보유자, 영어구사자 등 기능보유자의 경우 높은 보수를 요구하고, 대상자 물색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임금>

콜롬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임금지수는 최저임금으로서 '99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236,460페소로 설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연말에 해당년도 물가상승율을 감안, 정부, 기업, 노조대표간 협상을 갖고, 협상결과를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권한은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99년 최저임금은 '98년말 협상에서 노조측의 지나친 인상주장으로 협상이 결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수치이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200불 수준에서 고용이 가능하나, 전문기술 보유자, 혹은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경우 부문별로 월 2,000~3,000불 수준, 그리고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경우 월 10,000불 이상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에서 근로자 고용시,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외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사회보장제도 참조] 납부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외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보조, 다수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보험 등이 의무화 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종업원 급여의 50% 정도가 임금외 비용으로 추가로 소요된다.

임금외 혜택과 관련, 콜롬비아 근로자는 연간 근무일 기준 15일의 휴가를 보장받으며, 주말을 감안하면 3주, 이를 연휴와 연결하면 거의 1달 가까이 휴가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근로자 고용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고용>

종업원 1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는 전체 근로자의 10% 이내이다. 기업 특성상 법정한도 이상의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콜롬비아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콜롬비아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노동조건, 급여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차별대우가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콜롬비아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 보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73.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콜롬비아의 사회보장제도는 1993년 제정된 법령 100호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 동 법령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공공, 민간기업체 근로자의 사회보장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의 내용은 근로자 급여, 사업장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크게 의료보험과 노후연금으로 대별된다.

노후연금의 경우 근로기간 중 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60세(여자의 경우 55세)에 이르러 노동이 불가능할 경우 매월 연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60세 이전이라도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노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금이 지불된다.

한편 의료보험의 경우 역시 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의료보험은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의료비 납부 후 부상경험이 없더라도 보험료 환불이 불가하다.

연금 및 의료보험의 월납입액은 근로자의 월급여 기준 각각 13.5%, 12%로, 월 납입액의 25%는 근로자가 그리고 나머지 75%는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및 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금융기관들이 경쟁수단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고 있어, 근로자는 이들 기관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 및 의료보험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외국인 사회보장]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지사형태의 주재원은 단기체류자로 분류, 사회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지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체의 외국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의 경우 부상의 경우가 아니면 60세가 되어야 수혜대상이 되고, 의료보험의 경우도 커다란 질병 내지 사고에 따른 부상 등만 보험수혜 대상이 되고, 이것도 일반 낙후된 병원에서 진료가 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과, 자영업자 및 단기체류 외국인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설 의료보험을 선호하고 있다.

사설 의료보험 회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보다 다양한 보험수혜지원 등 우수한 서비스와 현대적인 병원설비를 이용 고객에 서비스하고 있으나 월 납입액은, 회사별, 서비스항목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미화 200불 수준으로 비싼 편이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설 의료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4. 현지 생활여건

<생필품 조달>

식품이외의 생필품은 1990년 수입개방 이후 외제상품이 대거 현지에 반입되어 구입상 어려움은 별로 없다. 주로 EXITO, CARULLA, POMONA, CAFAM, OLYMPICA, ALKOSTO 등 대형 하이퍼마켓 및 슈퍼체인점에서 일반 생필품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수준은 환율 등에 영향을 받아 변동이 있으나, 대체로 제조산업이 부족한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되어 서울보다 비싸며 채소, 과일, 육류 등은 서울보다 저렴한 가격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식품 조달여건>

한국식품중 채소 및 육류 구입은 불편이 없으나 장류 및 양념, 젓갈류는 현지조달이 어려우며 공항 통관시 식품검사가 까다로워 외부로 부터의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보고타에는 한국식당 및 동양식품(636-1906)이 라면 등 한국식품을 취급(일부 양념 및 젓갈류 구입 가능)하고 있으나 작은 교포사회 규모를 반영, 아직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도 비교적 높은 실정이다.

<레저여건>

보고타시 등 주요도시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보고타시의 경우 평지보다 산소가 25%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산소량을 요구하는 테니스, 수영 등 운동은 한국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콜롬비아에는 일반 도심에서 누구나 이용하는 위락시설은 식당, 디스코텍 등이 고작이며, 운동 및 레저시설은 클럽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콜롬비아는 다양한 클럽이 운용되고 있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회원권이 수만불에 이르는 컨트리클럽 외 다양한 회원제 클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반 중산층의 경우도 직장단위로 가입하는 클럽에서 축구, 수영, 볼링, 사우나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개 직장인 클럽의 경우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며, 회원에게는 일정 할인율이 적용된다.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의 경우 대부분 골프를 즐긴다. 보고타지역은 4계절이 없어 연중 파란잔디를 볼 수 있으며, 기온도 한국의 초가을 날씨가 지속되어 골프를 즐기기에 매우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가입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으로 클럽별로 최소 2만불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아울러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이 아닐 경우, 기존 회원의 초대를 받아야만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인들은 중산층 이상의 경우 시외곽에 Finca(별장)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원생활을 즐긴다.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주택, 수영장이 딸린 별장, 그리고 다양한 레저시설이 완비된 클럽식 별장 등 다양한 유형의 별장들이 있으며, 연휴가 시작되면 도시를 빠져나가는 차량,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은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야기된다.

한편 콜롬비아 한인회(교민회)는 보고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저지대 (해발 500미터) Melgar시에 공동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요청으로 한국정부에서 구매, 교민회에 기증한 것으로 한국교포의 경우 누구나 사전약속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치안상태>

콜롬비아의 치안상태는 지속 불안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치안불안의 주 요인은 마약과 게릴라 준동에 있다. (주요이슈 참조) 현지인들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에서는 치안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행등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소련 붕괴후 사상적 토대를 상실한 게릴라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무장세력으로 변질되어 국민 대부분이 게릴라의 존재에 등을 돌린지 오래이며, 이들은 마약거래 관여 및 시민납치후 몸값 요구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러한 수익이 조직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은 주요 지방도로 일부를 점거, 차량을 세운후 금품 및 차량탈취, 납치등을 서슴지 않고 있어, 지방도시를 육로로 여행하는 것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보고타 시내에서는 게릴라 등의 위협은 없으나, 슬럼화된 시내중심부 및 보고타 남부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 일과시간중 활동이 요구된다.

<주거환경>

한국인들은 보고타, 메데진, 페레이라, 깔리 등 주요도시에 분산되어 주거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보고타시에 거주하고 있다. 보고타시 주거환경은 비교적 환경이 양호한 편으로, 남부와 북부의 주거환경이 큰 차이가 있다. 중심부 및 남부는 통상 구 시가지(CENTRO,

SUR)라고 일컬어지며 상가밀집 지역으로 도시범죄가 다발하고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편에 속한다. 반면 북부지역 (NORTE)는 신흥개발 주거지역으로 현대 적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으며 주위환경이 쾌적하여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인인식>

중남미 국가중 유일한 6.25 참전국으로 한국과의 혈맹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입장에서 유일한 해외파병 경험으로 매년 6월 25일은 콜롬비아 군에 주요 기념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유대관계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없으며 한국인은 근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이며 UN등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한인회.한국학교>

한인교포는 보고타시에 70가구, 메데진, 깔리, 페레이라등 주요도시에 30세대로 총 100여가구 4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단기체류자 100여명을 합할경우 총 500여명의 한국인이 콜롬비아에 주거하고 있다.

한편 교포자녀 및 주재원 자녀를 위한 토요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 초등, 중등으로 6개반, 그리고 현지인을 위한 성인반, 아동반 2개반도 운영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는 주로 대사관, 상사, 코트라 등 주재원 부인들과 유학생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75.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생필품]

식품이외의 생필품은 1990년 수입개방이후 외제상품이 대거 현지에 반입되어 구입상 어려움은 별로 없다. 주로 EXITO, CARULLA, POMONA, CAFAM, OLYMPICA 등 대형 하이퍼마켓 및 수퍼체인점에서 일반 생필품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수준은 환율 등에 영향을 받아 변동이 있으나, 대체로 제조산업이 부족한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되어 서울보다 비싸며, 채소, 과일, 육류 등은 서울보다 저렴한 가격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식품]

한국식품중 채소 및 육류 구입은 불편이 없으나, 장류 및 양념, 젓갈류는 현지조달이 불가하며 공항 통관시 식품검사가 까다로워 외부로부터의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보고타에는 한국식당 및 동양식품(636-1906)이 라면 등 한국식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작은 교포사회 규모를 반영, 아직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도 비교적 높은 실정이다.

[여가활용]

보고타시 등 주요도시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보고타시의 경우 평지보다 산소가 25%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산소량을 요구하는 테니스, 수영 등 운동은 한국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콜롬비아에는 일반 도심에서 누구나 이용하는 위락시설은 식당, 디스코텍 등이 고작이며, 운동 및 레저설비는 클럽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콜롬비아는 다양한 클럽이 운용되고 있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회원권이 수만불에 이르는 컨트리클럽 외 다양한 회원제 클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반 중산층의 경우도 직장단위로 가입하는 클럽에서 축구, 수영, 볼링, 사우나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대개 직장인 클럽의 경우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며, 회원에게는 일정 할인율이 적용된다.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의 경우 대부분 골프를 즐긴다. 보고타지역은 4계절이 없어 연중 파란잔디를 볼 수 있으며, 기온도 한국의 초가을 날씨가 지속되어 골프를 즐기기에 매우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가입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으로 클럽 별로 최소 2만불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아울러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이 아닐 경우, 기존 회원의 초청을 받아야만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 인들은 중산층 이상의 경우 시외곽에 Finca(별장)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원생활을 즐긴다.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주택, 수영장이 딸린 별장, 그리고 다양한 레저시설이 완비된 클럽식 별장 등 다양한 유형의 별장들이 있으며, 연휴가 시작되면 도시를 빠져나가는 차량,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은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야기된다.

한편 콜롬비아 한인회(교민회)는 보고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저지대(해발 500미터) Melgar시에 공동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요청으로 한국정부에서 구매, 교민회에 기증한 것으로 한국교포의 경우 누구나 사전예약만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치안]

콜롬비아의 치안상태는 지속적인 불안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치안불안의 주 요인은 마약과 게릴라 준동에 있다. (주요이슈 참조) 현지인들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에서는 치안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행 등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소련 붕괴 후 사상적 토대를 상실한 게릴라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무장세력으로 변질되어 국민 대부분이 게릴라의 존재에 등을 돌린 지 오래이며, 이들은 마약거래 관여 및 시민납치 후 몸값 요구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러한 수익이 조직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은 주요 지방도로 일부를 점거, 차량을 세운 후 금품 및 차량탈취, 납치 등을 서슴지 않고 있어, 지방도시를 육로로 여행하는 것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보고타 시내에서는 게릴라 등의 위협은 없으나, 슬럼화된 시내 중심부 및 보고타 남부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 일과시간 중 활동이 요구된다.

[주거환경]

한국인들은 보고타, 메데진, 페레이라, 깔리 등 주요도시에 분산되어 주거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보고타시에 거주하고 있다. 보고타시 주거환경은 비교적 환경이 양호한 편으로, 남부와 북부의 주거환경이 큰 차이가 있다. 중심부 및 남부는 통상 구 시가지(CENTRO, SUR)라고 일컬어지며, 상가밀집 지역으로 도시범죄가 다발하고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편에 속한다. 반면 북부지역 (NORTE)는 신흥개발 주거지역으로 현대적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으며 주위환경이 쾌적하여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인에 대한 인식]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6.25 참전국으로 한국과의 혈맹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입장에서 유일한 해외파병 경험으로 매년 6월 25일은 콜롬비아 군의 주요 기념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유대관계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없으며, 한국인은 근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며 UN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교포사회]

한인교포는 보고타시에 70가구, 메데진, 깔리, 페레이라 등 주요도시에 30세대로 총 100여 가구 35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단기체류자 50여 명을 합할 경우 총 400여명의 한국인이 콜롬비아에 주거하고 있다.

한편 교포자녀 및 주재원 자녀를 위한 토요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 초등, 중등으로 6개반, 그리고 현지인을 위한 성인반, 아동반 2개반도 운영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는 주로 대사관, 상사, 코트라 등 주재원 부인들과 유학생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76. 자녀 교육여건

- International School

학교명 : Nueva Granada
주 소 : Cra 2E No 70-20
전 화 : (57-1)212-3511
팩 스 : (57-1)211-3720
학 비 : 입학금 US\$7,000, 월수업료US\$450
참 고 : American School로 가장 학비가 비싼 학교로 전과정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학생구성도 대부분 외국인자녀로 구성되어 있음.

학교명 : Anglo Colombiano
주 소 : Av 19 No 152-48
전 화 : (57-1)633-5172
팩 스 : (57-1)614-9673
학 비 : 입학금 US\$6,500, 월수업료US\$300
참 고 : 콜롬비아 명문 학교중의 하나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가르치며, Gaviria 전 대통령 자녀들이 동 학교에서 교육을 받음.

학교명 : The English School
 주 소 : Cll 170 No 31-98
 전 화 : (57-1)672-9177/671-1318
 팩 스 : (57-1)671-1318
 학 비 : 입학금 U\$5,000, 월수업료U\$300
 참 고 : 영국계 학교로, 전과정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상당수 학생들이 외국인임.

학교명 : Colegio Andino
 주 소 : Cra 51 No 218-85
 전 화 : (57-1)676-0709
 학 비 : 입학금 U\$ 4,000, 월수업료U\$ 250
 참 고 : 독일정부의 지원을 받는 독일계 학교로서 독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4학년부터 영어과목이 추가됨.

학교명 : Saint George School
 주 소 : Finca El Penon Suba No.14-10
 전 화 : (57-1)686-0343/ 681-5384
 팩 스 : (57-1)686-0343
 학 비 : 입학금 U\$3,000, 월수업료U\$ 250
 참 고 :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로서 1학년으로만 입학이 가능하며, 중간에 편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학교명 : Abraham Lincoln
 주 소 : Cll 170 No 51-25
 전 화 : (57-1)671-8281/ 672-0253
 팩 스 : (57-1)672-0253
 학 비 : 입학금 U\$2,000, 월수업료U\$ 200
 참 고 : American School로서 전 과목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넓은 캠퍼스를 보유, 다양한 스포츠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Bilungual School

학교명 : San Mateo Apostol
 주 소 : Cll 215 No 50-24
 전 화 : (57-1)676-2900
 학 비 : 입학금 U\$2,500, 월수업료 U\$200
 참 고 : 카톨릭 재단의 학교로서 현지학교 중 상위랭킹에 속해 있음.

학교명 : Clermont
 주 소 : Cll 219 No 50-10
 전 화 : (57-1)526-2669
 팩 스 : (57-1)256-2373
 학 비 : 입학금 없으며, 월수업료U\$ 250
 참 고 :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 상위 25위 내에 드는 명문학교로서, 일부 과목은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짐

학교명 : Colombo Gales
 주 소 : Cll 227 No 49-70
 전 화 : (57-1)676-1378 /676-0985
 팩 스 : (57-1)676-0408
 학 비 : 입학금 없으며, 월수업료U\$ 300
 참 고 : 과외활동으로 수영과 승마 교육기회를 부여하며, 일부 과목은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짐.

학교명 : Gimnasio del Norte
 주 소 : Cll 207 No 70-50
 전 화 : (57-1)676-2577/ 676-0753
 팩 스 : (57-1)676-0753
 학 비 : 입학금 U\$3,000, 월수업료U\$ 250
 참 고 : 유럽 및 미국소재 학교와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으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함.

- 현지학교

학교명 : Gimnasio Moderno
 주 소 : Cra 9 No 74-09
 전 화 : (57-1)249-8009/ 540-1890
 팩 스 : (57-1)217-1781
 학 비 : 입학금 없으며, 월수업료U\$ 250.
 참 고 : 수명의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학교로 전직 Samper 대통령을 배출함

학교명 : San Carlos
 주 소 : Calle 193 No 39-05
 전 화 : (57-1)670-4964/ 670-2299
 팩 스 : (57-1)677-9700
 학 비 : 입학금 없으며, 월수업료U\$ 200
 참 고 : 남자학교이며, 전직 Pastrana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학교임.

학교명 : Emilio Valenzuela
 주 소 : Cra 62 No 181-45
 전 화 : (57-1)671-1730/ 671-1353
 팩 스 : (57-1)677-3893
 학 비 : 입학금 없으며, 월수업료U\$ 300
 참 고 : 남자학교로서 카톨릭 재단에 소속된 학교임.

학교명 : Anglo Americano
 주 소 : Calle 170 No 21-50
 전 화 : (57-1)677-7828/ 677-4629
 팩 스 : (57-1)669-4181
 학 비 : 입학금 없으며, 월수업료U\$ 200
 참 고 : 일부 과목은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3월 학제를 보유.

학교명 : Presentacion de Sans Facon
 주 소 : ClI 170 No 35-41
 전 화 : (57-1)671-4912/ 678-0763
 팩 스 : (57-1)676-0763
 학 비 : 입학금 없으며, 월수업료US\$ 150
 참 고 : 카톨릭재단 여자학교로서 수녀들이 가르침. 스페인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아울러 영어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77. 진출기업

[현지투자 판매법인]

<1. 삼성전자 콜롬비아 법인 : Samsung Electronics Colombia S.A.>

(기본정보)

City : Bogota
 Add : Cra 9A No.99-02 Of.106 Bogota. Colombia
 Tel : (57-1) 642-0555
 Fax : (57-1) 618-2072
 Pres.: J. K. Ahn, 안중구(부장)

(주요현황)

업 종 : 전기/전자제품 수입/판매
 취 급 분야 : 가전 완제품 (TV, VCR, AUDIO, 세탁기, 냉장고 등) 휴대폰,
 정보제품(모니터, 팩스기기, 프린터 등)
 진 출 형태 : 현지 판매법인
 진 출 년도 : 1997
 종업원현황 : 4(본사파견), 40(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US\$ 3,000천
 연간매출액 : US\$ 134,000천(2002년 기준)
 합 작 선 : -
 합 작 비율 : 100 / 0 (한국/외국)

(국내모기업)

모기업: 삼성전자(주)
 Add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50
 Tel : 02-727-7114
 Fax : 02-727-7985
 Pres. : 윤종용

<2. LG전자 콜롬비아 법인 : LG Electronics Colombia Ltda.>

(기본정보)

City : Bogota

Add : Av.13(Autopists Norte) No.122-35, Bogota, Colombia
 Tel : (57-1) 647-1088
 Fax : (57-1) 647-1206/1207
 Pres.: B. W. Oh 오방원(부장)

(주요현황)

업 종 : 전기/전자제품 수입/판매
 취 급 분야 : 가전완제품(TV, VCR, AUDIO, 세탁기, 냉장고 등) 휴대폰,
 IT제품(모니터, DVD 등)
 진 출 형태 : 현지 판매법인
 진 출 년도 : 2000
 종업원현황 : 5(본사파견), 45(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US\$5,000천
 연간매출액 : US\$70,000천(2002년 기준)
 합 작 선 : 없음
 합 작 비율 : 100 / 0 (한국/외국)

(국내모기업)

모기업: LG 전자(주)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 Twin Tower빌딩
 Tel : 02-3777-1114
 Fax : 02-3777-5335
 Pres : 구자홍

[현지판매지사]

<1. 현대종합상사 보고타 지사 : Hyundai Corp. Bogota Office>

(기본정보)

City : Bogota
 Add : Calle 98 No.9-03 Of.1001 Bogota, Colombia
 Tel : (57-1)611-3737
 Fax : (57-1)218-3400
 Pres.: W. Y. Jung 정우영(부장)

(주요현황)

업 종 : 무역업
 취 급 분야 :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전기제품 등
 진 출 형태 : 지사
 진 출 년도 : 2003
 종업원현황 : 1(본사파견) 2(현지채용)
 설립자본금 : -
 연간매출금 :
 합 작 선 : -
 합 작 비율 :

(국내모기업)

모기업: 현대종합상사(주)

Add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Tel : 02-746-1114

Fax : 02-741-2345

Pres : 학원진

78. 주요경제지표

지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GDP(US\$억)	879	865	832	812	824	821	1,020
1인당GDP(US\$)	2,148	2,100	1,963	1,982	1,833	1,842	2,270
실질성장률(%)	0.6	-4.4	2.7	1.3	1.5	2.9	3.6
물가상승률(%)	16.7	9.2	8.8	7.7	6.9	6.5	5.5
실업률(%)*	15.1	19.4	20.2	16.5	16.5	15.8	13.5
수출(US\$억)	109.2	115.6	132.4	123.0	123.0	128.6	164
수입(US\$억)	137.2	99.9	104.7	119.9	120.7	138.8	167
외환보유고(US\$억)	87.3	81.0	88.2	101.6	107.8	109	135
총외채(US\$억)	336.3	344.2	342.6	390.3	372.2	379.4*	385
환율(Peso/US\$1)*	1,542	1,874	2,229	2,306	2,814	2,778	2387

(자료원 : 중앙은행, 통계청(DANE))

주 1) 실업률은 주요 7대도시 기준 집계수치임.

2) 환율은 05.3월 30일 현재 기준임.

* 2004년말 기준임.

79. 대외거래지표

(단위: US\$ 백만)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무역수지	-2,899	1,626	2,160	304	228	-60	1,019
수출	10,825	11,617	13,158	12,301	12,304	12,862	16,483
수입	13,724	9,991	10,998	11,997	12,076	13,880	16,744
경상수지	-5,869	-963	-333	-1,414	-1,578	-370*	-786
자본수지	4,670	317.6	590	2,226	1,238	514*	3,096
외환보유고	8,739	9,102	9,004	10,165	10,783	10,863*	13,535

(자료원: 통계청)

* : 2004년말 기준

80.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수출]

(단위: US\$ Million / FOB)

수출대상국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계	10,825	11,617	13,158	12,301	11,900	12,862	16,483
1. 미국	4,027	5,616	6,524	5,254	5,151	5,666	6,491
2. 베네주엘라	1,146	923	1,308	1,737	1,122	690	11,599
3. 에쿠아도르	574	330	467	700	815	787	1,000
4. 페루	370	358	373	277	347	386	332
5. 독일	683	486	434	417	322	263	263
6. 멕시코	128	202	230	261	307	354	504
7. 벨기에	315	284	224	210	241	226	288
8. 일본	268	245	230	165	193	197	261
9. 기타	3,314	3,174	3,368	3,279	3,392	4,556	5,545

(자료원 : 통계청)

[수입 Import]

(단위: US\$ Million / CIF)

수입원산국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계	13,724	9,991	10,998	11,997	11,891	13,880	16,744
1. 미국	4,364	3,952	3,878	4,414	4,020	4,081	4,838
2. 베네주엘라	1246	869	945	793	788	727	1,081
3. 멕시코	586	466	549	596	678	744	1,038
4. 일본	925	527	534	559	619	642	643
5. 독일	743	496	489	560	508	611	661

(자료원 : 통계청)

81.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

[수출 Export]

(단위: US\$ Million)

주요수출품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계	10,825	11,617	13,158	12,301	11,900	12,862	16,483
원유	2,298	3,755	4,775	3,285	3,275	3,383	4,179
석탄	933	857	893	1,179	990	1,420	1,841
커피	1,891	1,347	1,067	764	772	806	949
니켈	117	154	211	235	272	394	626
금	109.3	89	91	68	103	584	554
에메랄드	52.6	112	97	89	92	78	72
기타	5,405.6	5,504	6,211	6,838	6,590	6,196	8,256

(자료원 : 통계청)

[수입]

(단위: US\$ Million)

주요수입품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계	13,724	9,991	10,998	11,997	11,891	13,880	16,744
수송기기	1,115	457.4	484.9	675.2	844.2	895.7	1,426
종이	346	299.6	326.0	307.4	314.2	325.9	376
밀	129	151.3	151.6	181.4	199.8	201.8	236.9
통신장비	404	210.8	148.4	137.8	144.8	150.3	162.5
폴리에틸렌	122	103.4	125.0	111.8	111.0	142.9	216.4
비닐 및 원료	78.7	92.8	138.9	84.4	105.8	137.2	155.2
철·강관류	133	34.1	44.2	63.1	58.5	57.5	58.7
가솔린	207	130.9	64.8	34.2	0.0	0.0	0.0

(자료원: 통계청)

82.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수출입 규모

[연도별 우리나라 수출실적]

(단위: 천불. %)

연도별	금액	증가율	월별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2	75,286	42	1	18,849	-13.4	24,515	30.1
1993	161,848	115	2	19,984	-14.4	59,843	54.1
1994	233,433	44.2	3	28,202	3.2	97,466	45.4
1995	217,694	-6.7	4	26,340	10.9	131,570	40.9
1996	193,794	-11	5	24,019	-12.6	164,153	39.8
1997	324,528	67.5	6	24,366	-10.1	203,198	43.3
1998	271,908	-16.2	7	20,476	-16.2	240,022	47.9
1999	152,647	-43.9	8	16,458	-26.3	269,185	50.6
2000	201,144	31.8	9	24,469	8.1	305,892	50.6
2001	226,147	12.4	10	31,348	38.8	356,144	51.9
2002	272,185	20.4	11	34,167	124.7	411,083	53
2003	296,559	9.0	12	27,879	96.2	459,476	54.9
2004	459,476	54.9					

[연도별 우리나라 수입실적]

연도별	금액	증가율
1992	24,602	22.8
1993	28,977	17.8
1994	34,124	17.8
1995	56,849	66.6
1996	56,851	-
1997	76,765	35
1998	52,138	-32.1
1999	47,645	-8.6
2000	52,894	11
2001	42,271	-20.1
2002	48,905	15.7
2003	76,143	55.7
2004	106,339	39.7

(단위: 천불, %)

월별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7,757	116.4	10,160	31
2	6,494	212.3	21,194	48.7
3	3,761	3.5	30,799	71
4	5,514	9.1	36,642	55.8
5	7,506	117.2	38,577	24.3
6	4,018	19.0	53,775	53.4
7	5,424	-2.0	60,788	50.2
8	5,719	33.2	69,638	50.8
9	6,663	130.1	75,669	43.2
10	9,656	68.2	88,804	42.1
11	6,933	47.2	99,226	42.9
12	6,699	47.5	106,339	39.7

(자료원: KOTIS)

83.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출입 상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

(단위: 천불, %)

순위	MTI품목코드	품목명	20	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96,559	9	459,476	54.9
1	214	합성수지	66,672	165.3	-	-
2	741	자동차	51,922	-21.2	168,200	224
3	812	무선통신기기	42,933	3.6	65,205	51.9
4	742	자동차부품	20,468	29.2	36,913	80.3
5	824	가정용회전기기	13,692	-24.2	13,944	1.8
6	310	플라스틱 제품	9,807	6.7	8,832	-9.9
7	815	계측제어분석기	7,187	112.2	5,364	-25.4
8	821	영상기기	6,953	-19.2	8,319	19.7
9	823	냉장고	6,761	-0.4	7,012	3.7
10	320	고무제품	5,365	8.8	11,288	110.4
11	422	인조섬유장섬유사	4,629	-0.9	6,036	30.4
12	434	인조장섬유직물	4,204	-45.2	-	-
13	228	정밀화학원료	3,586	39.6	-	-
14	721	섬유및화학기계	3,309	32	4,355	31.6
15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3,102	33.1	-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상품]

(단위: 천불, %)

순위	MTI 품목코드	품목명	20	03	20	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6,143	55.7	106,339	39.7
1	618	합금철선철및고철	52,030	73.4	79,872	53.5
2	015	기호식품	10,582	10.9	15,883	50.1
3	133	석유제품	4,731	-		
4	016	농산가공품	2,965	104.6	1,639	-44.7
5	622	동제품	1,882	-19.6	3,305	75.6
6	441	의류	1,337	45.9	1,338	0.1
7	812	무선통신기기	500	180.3	-	-
8	331	가죽	455	-38.7	1,838	304
9	023	축산부산물	395	3,317.00	415	5.1
10	119	기타금속광물	293	-	353	20.4
11	621	알루미늄	226	16.2	-	-
12	569	기타완구	152	-	244	60.4
13	512	신발	137	-	-	-
14	310	플라스틱 제품	133	279.4	-	-
15	614	철강관및철강선	80	-	-	-

(자료원 : KOTIS (MTI3단위))

84.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국별 투자진출 Foreign Investment by Country]

(단위: US\$ thousand)

투자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계	4,002,093	273,094	2,336,793	534,675	440,275	2,093,637
버진아일랜드	411,229	-63,575	564,395	540,925	223,076	165,356
멕시코	35,038	27,625	10,763	222,788	2,639	12,197
스페인	-85,035	-145,057	868,870	147,089	95,406	536,314
독일	101,356	93,476	14,369	55,428	7,628	30,637
버뮤다	424,976	139,724	184,033	64,705	95,317	6,834
바하마스	64,415	24,118	331	61,393	-619,690	4,331
영국	-801	61,110	2,161	38,031	-86,326	32,716
네델란드	875,927	176,804	184,096	31,813	-7,774	465,531
벨기에	771	-1,362	14,600	30,887	-1,301	495
에콰도르	17,858	-14,966	10,990	16,138	5,558	10,018
베네주엘라	41,847	-7,781	-5,463	1,206	31,525	64,150

대한민국	9,891	5,976	7,803	-2,708	-	-
미국	818,617	158,254	628,825	-53,721	666,376	807,501
파나마	10,594	-546,637	123,548	-489,750	18,010	26,373

(자료원: 중앙은행. Statistics and Economical Analysis Division)

[업종별 투자진출 Foreign Investment by Industry]

(단위: US\$ Thousand)

투자대상업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계	4,002,093	273,094	2,336,793	534,675	440,275	2,093,637
농업	65,809	13,919	-12,578	-10,509	13,533	17,493
제조업	1,474,872	224,580	138,254	94,646	1,163	239,609
상업	356,855	116,644	96,890	50,184	99,747	134,676
호텔및 요식업	21,772	12,071	2,671	-36,931	5,572	7,772
금융업	455,948	636,640	454,897	195,758	55,913	370,789

(자료원: 중앙은행. Statistics and Economical Analysis Division)

85. 물가금융지표/물가 및 금융지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비자물가지수(%)	16.7	9.23	8.75	7.65	6.99	6.49	5.5
도매물가지수(%)	13.5	12.71	11.04	6.93	9.28	5.72	4.6
통화량(십억페소)	n/a	n/a	n/a	18,737	21,648	25,017	26,458
통화증가율(%)	n/a	n/a	n/a	12.1	15.5	15.6	15.7
주가지수(%)	1609.2	N/A	N/A	929.2	1467	2330	4,345
연평균환율(P\$:1US\$)	1542.1	1873.7	2229.1	2306.1	2814.2	2877.7	2,626
금리(%)	34.5	16.61	13.21	11.44	15.23	7.95	7.7

(자료원: 중앙은행)

86. 노동통계

지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고용인구	N/A	N/A	N/A	N/A	N/A	N/A	N/A	N/A
완전실업률(%)	12	15.6	18.0	20.5	13.5	15.6	15.8	13.5
평균임금(US\$)	133	132.1	154.2	141.7	137.3	121.8	128.8	1160
임금상승률(%)	21.02	18.5	16.1	10.0	9.95	8.04	7.83	6.5
평균근로시간(hrs)	48	48	48	48	48	48	48	48

(자료원: 노동부)

87.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수출진흥청 (PROEXPORT)]

- 설립목적

Proexport는 콜롬비아의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수출과 관련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전략의 수립과 수행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내에 보고타 본사를 포함, 5개의 사무소, 해외에는 미주 11개소, 유럽 3개소, 아시아 3개소 등 총 17개소의 사무소를 두고 있음.

- 주요기능

- 인콰이어리 발굴 및 시장진출전략 제공
- 기업의 국제화 지원, 수출실행계획 수립 지원
- 무역확대 및 투자확대를 위한 업체간의 연락 지원
- 콜롬비아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外國人投資廳 (PROINVERTIR)]

- 설립목적

外國人投資公社(Coinvertir)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및 유치촉진을 위해 1992년 11월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설립된 자율적 비영리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투자정보의 제공, 투자자문, 기타 협력의 제공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음.

- 주요기능

- 각종 투자유치활동을 강화시켜 1997년까지 외국인투자 금액을 GDP의 3% 이상으로 제고
- 전체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의 다변화 유도
- 외국인투자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투자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 바람직한 외국인투자 정책의 개발
- 세계각국에 콜롬비아의 투자환경 소개

[中央銀行 (Banco de la Republica)]

- 개요

Banco de la Republica는 中央銀行으로서 통화정책을 총괄할 뿐 아니라 외국인의 신규투자, 기업확장, 기업매수 등 제반 투자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는 중앙은행의 國際技術局(International Technical Subdivision)에 투자등록을 해야 함.

[기타 관련기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자동승인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원칙의 예외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國家計劃局, 銀行監督局, 鑛業部, 證券監督局 등이 있음.

그밖에 각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産業開發廳, 對外去來銀行 등을 들 수 있음.

□ 무역진흥기관

기관명	ProExport		
주 소	Calle 28 No. 13A - 15 Pisos 1, 35 y 36		
전 화	(571) 5600 100	팩 스	(571) 5600 136
Web-site	http://www.proexport.com.co/		
E-mail	info@proexport.com.co		
기관개요	수출진흥청-콜롬비아 수출입업체 지원 및 외국인투자 지원		
Abstract			

□ 해외투자유치기관

기관명	Invest in Colombia Corporation (COINVERTIR)		
주 소	Carrera 7 #71-52 Torre A Oficina 702, Bogota, Colombia		
전 화	57-1-3120312	팩 스	57-1-3120318
Web-site	www.coinvertir.org.co		
E-mail	info@coinvertir.org.co		
기관개요	콜롬비아 외국인투자공사-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및 유치촉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설립한 자율적 비영리기관		
Abstract			

기관명	Banco of Republic Colombia		
주 소	Apartado Aereo: 3551 de SantaFe de Bogota		
전 화	(571) 336-0200 (571) 343-0190	팩 스	(571) 286-1686 (571) 286-1731 (571) 334-7128
Web-site	www.banrep.gov.co		
E-mail			
기관개요	콜롬비아 중앙은행-제반 투자등록업무		
Abstract			

88. 지방자치구역동향/유용한 웹사이트

* 비즈니스관련 추천웹사이트

◇ 콜롬비아 포털사이트 모음 ◇ 신문, 잡지

- ◇ 통관제도
- ◇ 시장조사
- ◇ 유통
- ◇ 거래알선사이트

[콜롬비아 포털 사이트 모음]

- www.conexcol.com
- www.colombialink.com
- www.uol.com.co
- www.terra.com.co

[통관제도]

-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 www.dian.gov.co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La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홈페이지로서 각 세무행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세금별 납부일자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99 년 8 월부터 통관양식의 전산화로 수입신고 등을 동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나, 전산작업은 통관업체별 접근코드를 입력해야 작업이 가능하다.

[시장조사]

- 중앙은행 : www.banrep.gov.co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ublica) 홈페이지로서 고시환율, 이자율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은행 발간 자료의 일부도 입수가 가능하다.
- 경제개발원 : www.dnp.gov.co
콜롬비아 경제개발원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 홈페이지로서 경제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수록 서비스하고 있다.
- 투자진흥청 : www.coinvertir.org.co
콜롬비아 투자진흥청 (Corporacion Invertir en Colombia) 홈페이지로서, 콜롬비아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까지 국별, 부문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통계입수가 가능하다
- 중소기업 진흥원 : www.microempresas.com.co
콜롬비아 중소기업 진흥원 (Corporacion para el Desarrollo de las Microempresas) 홈페이지로 주요 중소기업체 명단 및 이들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 수출진흥청 : www.proexport.com/home.htm
콜롬비아 수출진흥청 (PROEXPORT) 홈페이지로, 콜롬비아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외국 수입상을 위한 콜롬비아 수출업체 디렉토리를 수록하고 있다.

[산업 및 기업]

- 콜롬비아 YELLOW PAGE : www.paginasamarillas.com

콜롬비아 YELLOW PAGE 를 발간하고 있는 PUBLICAR 사 홈페이지로, YELLOW PAGE 수록 업체 검색, 품목별 검색이 가능하며, 동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인근 중남미국 YELLOW PAGE 도 수록하고 있다.

- 인터넷 디렉토리 : www.indexcol.com.co
콜롬비아 연금, 보험 관리 금융회사의 하나인 Colpatrria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디렉토리로서 콜롬비아 주요기업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별 연락처 상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로 연결시켜 준다. 아울러 콜롬비아 주요도시의 일기예보도 서비스하고 있다.
- 포장산업 디렉토리 : www.colombiapack.com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콜롬비아 포장산업 연보형태를 갖고있다. 포장기계, 자재, 서비스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업체별, 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 교육 디렉토리 : www.mundoeducativo.com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콜롬비아 교육산업 연보형태를 갖고있다. 교육서비스, 기자재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지역별, 기자재 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 그래픽 디렉토리 : www.colombiagraph.com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콜롬비아 그래픽산업 연보형태를 갖고있다. 그래픽 관련기계, 자재, 서비스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업체별, 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 수출산업 디렉토리 : www.colombiaexport.com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콜롬비아 수출업체 디렉토리를 수록하고 있으며, 업체별, 상품별 검색이 가능.

[신문, 잡지]

- El Tiempo 지 : www.eltiempo.com
콜롬비아 최대 종합일간지인 El Tiempo 지 홈페이지로서 주요기사 검색이 가능.
- Semana 지 : www.semana.com
시사정치 중심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Semana 지 홈페이지로 회사소개 및 구독 안내와 함께 지난기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Dinero 지 : www.dinero.com
경제경영 중심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Dinero 지 홈페이지로 회사소개 및 구독 안내와 함께 지난기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El Colombiano 지 : www.elcolombiano.com.co
콜롬비아 제 2 도시 메데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간되는 종합일간지인 El Colombiano 지 홈페이지로 주요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다.

[통계,자료]

- 정부기관 : www.sinpro.gov.co
알파벳 순으로 모든 정부기관 홈페이지 목록을 제공하며, 해당기관별 역할 및 민원수속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증권회사 : www.corredores.com
콜롬비아 주요 증권회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로, 간략한 경제, 금융, 증권소식, 주가지수, 환율, 이자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은행연합회 : www.asobancaria.com
콜롬비아 은행연합회(Asociacion Bancaria de Colombia) 홈페이지로 은행연합회 기능소개, 회원소개, 그리고 연합회 발간 경제보고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보고타증권시장 : www.bolsabogota.com.co
보고타 증권시장 홈페이지로 기능소개와 시황, 업체정보, 주가등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 메데진 증권시장 : www.bolsamed.com
콜롬비아 제 2 도시인 메데진 증권시장 홈페이지로 수요서비스 소개와 시황, 업체정보 등을 수록, 서비스하고 있다.
- 상공회의소 연합회 : www.confecamaras.org.co
콜롬비아 상공회의소연합회(Confecamaras : Confederacion Colombiana de Camaras) 홈페이지로 발간자료 안내, 회원사 정보, 인콰이어리 정보, 전시회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 은행감독원 : www.superbancaria.gov.co
콜롬비아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Bancaria) 홈페이지로서 감독원 소개 및 주요 기능 설명, 그리고 금융부문 주요 통계, 지표 등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 통계청 : www.dane.gov.co
콜롬비아 통계청 (DANE : 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istica) 홈페이지로서 각종 사회, 경제, 생산, 교역 등 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나, 후진국 공식통계기관으로서 최근 통계가 수록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유통]

www.alkosto.com.co
www.virtualexito.com
www.carulla.com
www.superley.com.co
www.cadenalco.com.co
www.ley.com.co
www.pomona.com.co
www.corabastos.co

www.tia.com.co

[거래알선 사이트]

www.fenalco.com.co

- 제조업, 유통업, 수출입상등 그룹군별로 검색
- 영어로 동시 검색 가능

www.indexcol.com.co

- 콜롬비아 최대의 업체정보 제공
- 영어 동시검색 가능

www.ccb.org.co

- 기업체 일반정보 이외의 신용정보(자본금, 매출액, 자산현황 등) 제공
- 일부검색(신용정보 등)은 유료정보.